

제 2 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알리프 램 뱀¹⁾

2. 의심할 바 없는 이 성서는¹⁾
하나님을 공경²⁾하는 자들의 이정
표요

3.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을
믿고¹⁾ 예배를 드리며 그들에게 배
풀어 준 양식을²⁾ 선행하는 사람들
의 이정표이며

4. 그대에게 계시된 것과¹⁾ 그 이
전에 계시된 것과²⁾ 또한 내세를
믿는 사람들의 이정표이며³⁾

5. 그들¹⁾이 바로 주님의 안내를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اَلَمْ

ذٰلِكَ الْكِتٰبُ لَا رَيْبَ فِيْهِ هُدًى لِّلْمُتَّقِيْنَ

الَّذِيْنَ يُؤْمِنُوْنَ بِالْغَيْْبِ وَيُقِيْمُوْنَ الصَّلٰوةَ وَمِمَّا
رَزَقْنٰهُمْ يَنْفِقُوْنَ

وَالَّذِيْنَ يُؤْمِنُوْنَ بِمَا اُنزِلَ اِلَيْكَ وَمِمَّا اُنزِلَ مِنْ قَبْلِكَ
وَيَاذِكْرَهُمْ يُؤْمِنُوْنَ

اُولٰٓئِكَ عَلَىٰ هُدًى مِّنْ رَبِّهِمْ ۗ وَاُولٰٓئِكَ هُمُ الْمُفْلِحُوْنَ

1-1) 이 문자를 해설하는데는 학자들간에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세 문자는 꾸란에 있어서 하나님의 비밀이거나 또는 훌륭한 하나님의 이름 또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문자 또는 생략된 약어로서 '알리프'는 하나님(Allah)을, '람'은 자비(Latif), '뱀'은 영광(Majid)의 생략형으로 보는 학자가 있고, 또는 어떤 심오하고 신비한 진리를 나타내는 상징어로도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18).

2-1) 무함마드여! 이 계시된 꾸란은 의심할 바 없는 성서이거늘

2) '따끄와'는 여러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견제하여 혀와 손과 마음이 유혹되지 아니하며 정의와 경건함과 선행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다는 의미를 전부 내포하는 아랍어로서 이와 같은 사람이 가장 정직한 신앙인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3-1) 인간의 오판으로 정확히 알 수 없는 영역 즉 하나님, 천사들, 정명, 부활, 천국, 지옥, 심판 등 꾸란과 예언자가 언급한 불가시계의 영역

2)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물질적, 정신적 은혜를 모든 인간의 복지를 위해 선행하는 것,

4-1)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꾸란

2) 하나님으로부터 무함마드 이전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된 것들, 모세를 통하여 계시된 구약(Taurat), 예수를 통하여 계시된 신약(Injil), 다윗의 시편(zabūr), 아브라함의 책(Suhuf) 등을 일컫는다.

3) 현재 다음에는 반드시 내세가 있어 그때에는 심판과 부활과 보상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5-1) 그들이라함은 무함마드를 통하여 계시된 꾸란과 그 이전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성서들을 믿고, 내세를 믿으며, 보이지 않는 영역을 믿으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주신 모든 양식을 인류의 복지를 위해 선행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받아 영화를 누릴 사람들이라

6. 믿음을 부정¹⁾하는 사람들은
그대가 그들에게 경고하던 또는
경고하지 아니하던 믿으려 하지
아니하매²⁾

إِنَّ الَّذِينَ كَفَرُوا وَسَوَّأَ عَلَيْهِمْ أَعْيُنُهُمْ أَذْرَهُمْ أَن لَّمْ تُنذِرْهُمْ
لَا يُؤْمِنُونَ ⑥

7.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
리사 그들의 마음을 봉하고 그들
의 귀를 봉하고¹⁾ 그들의 눈을 봉
하여 버릴 것이라

خَتَمَ اللَّهُ عَلَى قُلُوبِهِمْ وَعَلَى سَمْعِهِمْ وَعَلَى أَبْصَارِهِمْ
غِشَاوًا وَلَهُمْ عَذَابٌ عَظِيمٌ ⑦

8.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과 내세
를 믿는척 말하는 무리가 있으나
실로 그들은 신앙인들이 아니거늘¹⁾

وَمِنَ النَّاسِ مَن يَقُولُ آمَنَّا بِاللَّهِ وَيَالِ الْأَيُّومِ وَأَنَّهُمْ
يُؤْمِنُونَ ⑧

9. 믿는 척 하나님을 속이는¹⁾ 것
은 스스로를 배반하는 것과 같으
나 그들이 알지 못할 뿐이라

يُخَادِعُونَ اللَّهَ وَالَّذِينَ آمَنُوا وَمَا يُخَادِعُونَ إِلَّا أَنفُسَهُمْ
وَمَا يَعْلَمُونَ ⑨

10. 그들 마음에는 병이¹⁾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 병을 더하게 하시
매 그들은 고통스러운 벌을 받을

فِي قُلُوبِهِمْ مَرَضٌ فَزَادَهُمُ اللَّهُ مَرَضًا وَلَهُمْ عَذَابٌ
أَلِيمٌ ⑩

- 6-1) ‘카파라’(불신하다), ‘쿠프르’(불신), ‘카-피르’(불신자) 즉 하나님의 말씀들을 부정하고 선지자 무함마드를 통하여 계시된 메시지를 불신하는 것.
- 2) 앞절까지는 진실한 믿음으로 영화를 누리려는 신앙인들에 관한 말씀이었으며, 6절과 7절에서는 믿음을 부정한 불신자들에게 대한 말씀이 언급되고 있다.
- 7-1) ‘카타마’는 어떤 것을 봉하여 그 안에 들어 갈 수도 없으며 그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수도 없다는 언어적 해석이며, 이절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은 전자로, 마음을 봉했으니 그 안에 광명이 들어 갈 수 없으며, 믿음이 있으나 그 마음에 이르지 못하고, 귀와 눈을 봉했으니 광명을 볼 수도 없으며 들을 수도 없음을 제시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20).
- 8-1) 1-5절까지는 믿음이 진실한 신앙인들에 관하여, 6-7절에서는 불신자에 관하여 묘사하였고, 8-11절에서는 위선자에 관해 묘사하고 있다. 이 위선자들은 자기 자신들에게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병들며, 이 병들은 다른 사악함과 마찬가지로 번지게 된다. 이 병들은 치료 될 수 있으나 그들은 자신들을 망각한 채 광명과 진리를 고의적으로 부인함으로써 치료될 수 없는 다른 사악의 세계로 쉽사리 빠져 들고 만다.
- 9-1) ‘키다-아’ 또는 ‘무카-디오’의 뜻은 부패 또는 사악함이란 뜻의 언어적 해석으로, 타인 앞에서는 이슬람에 충실한 척 행동하나 홀로 있을때는 그렇지 아니하며, 혀로써는 이론에 충실하나 실천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 10-1) 병이라함은 신체적 질병이 아니라 신앙의 병을 의미한다. 즉 신앙에 대한 회의, 의심, 위선 등을 말하고 있다.

것이라 이는 그들이 스스로를 배반했기 때문이라

11. 이 세상에서 해악을¹⁾ 퍼뜨리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을 때 그들은 평화를 심는 사람들이라 말하더라

12. 실로 그들은 해악을 퍼뜨리면서도 깨닫지 못하노라

13. 그 사람들이¹⁾ 믿는 것처럼 믿으라 그들에게²⁾ 말씀이 있었을 때 어리석은 자들이³⁾ 믿는 것처럼 믿으란 말이뇨 라고 그들은 대답하도다 보라 실로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면서 그들은 깨닫지 못하노라

14. 그들이¹⁾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저희들도 믿음이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사탄과 함께 있을 때는 저희는 당신과 함께 있나니 실로 우리는 조롱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더라

15.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라 그들을 암흑속에서 버리시니 그들은 장님처럼 방황하노라

16. 그들은 진실을 팔고 허위를 사니¹⁾ 그들의 장사가 흥할리 없으

وَإِذَا قِيلَ لَهُمْ لَا تُفْسِدُوا فِي الْأَرْضِ قَالُوا إِنَّمَا نَحْنُ مُصْلِحُونَ ﴿١١﴾

أَلَا إِنَّهُمْ هُمُ الْمُفْسِدُونَ وَلَكِنْ لَا يَشْعُرُونَ ﴿١٢﴾

وَإِذَا قِيلَ لَهُمُ امْكُفُوا أَعْيُنَكُمْ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قَالُوا إِنَّمَا نَحْنُ مُصْلِحُونَ كَمَا آمَنَ السُّفَهَاءُ أَلَا إِنَّهُمْ هُمُ السُّفَهَاءُ وَلَكِنْ لَا يَعْلَمُونَ ﴿١٣﴾

وَإِذَا الْفُلُ الَّذِينَ آمَنُوا قَالُوا إِنَّمَا نَحْنُ مُصْلِحُونَ وَإِذَا خَلَوْا إِلَىٰ شَيَاطِينِهِمْ قَالُوا إِنَّا مَعَكُمْ إِنَّمَا نَحْنُ مُسْتَهْزِءُونَ ﴿١٤﴾

أَللَّهُ يَسْتَهْزِئُ بِهِمْ وَيَمُدُّهُمْ فِي طُغْيَانِهِمْ يَعْمَهُونَ ﴿١٥﴾

أُولَٰئِكَ الَّذِينَ اشْتَرَوُا الضَّلَالََةَ بِالْهُدَىٰ فَمَا رَبِحَت تِّجَارَتُهُمْ وَمَا كَانُوا مُهْتَدِينَ ﴿١٦﴾

11-1) 해악이라함은 창조주를 불신하고 자신을 속이며 꾸란을 믿고 선지자 무함마드를 따르는 사람들을 교란시키는 사악함을 일컫는다.

13-1) '무하-지란'과 '안사-리' 등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선지자들의 추종자들이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2) 위선자들. 알칼라비는 유대인들이라고 전하고 있다.

3) 위선자들은 조롱하여 말하길, "무지하고 어리석은 '수하이브'나 '암마르' 또는 '빌랄' 처럼 믿음을 가지란 말인가?"라고 하였다(사프와트 타과 싸르, 제1권, p.22).

14-1) 위선자들

16-1) 위선자들이 믿음을 버리고 불신의 길을 걷는 것, 또는 광명의 길에서 방황의 길을 선택하는 것, 또는 공동사회를 이탈하거나 무함마드 전통(Sunna)에서 벗어나는 행위

며 인도받지 못하리라

17. 그들을¹⁾ 비유하사 그들이 불을 켜 놓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들 주변의 빛을 거두어 가시고 그들을 암흑속에 버리나니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²⁾

18. 귀머거리 병어리 장님이 되어 돌아오지 못하노라¹⁾

19. 그들을 비유하사 하늘에서 폭풍우가 몰아치고 암흑이 되어 천둥과 번개가 진동하니 죽음이 두려워 그들은 귀를 막으며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들을 포위하시노라¹⁾

20. 번개가 그들의 시력을 할퀴어 가니 그들에게 빛을 비출 때에는 걷다가 그들을 암흑으로 덮칠 때는¹⁾ 멈추어 서도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의 청각과 시력도 앗아 가시니 실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 전능하심이라

21. 인간들이여¹⁾ 주님을 경배하

مَنْ لَهُمْ كَيْسٌ الَّذِي اسْتَوْقَدُوا نَارَهُ فَانجَبُوا عَنْهَا لَوْ كَانُوا يَعْلَمُونَ
 ① ذَهَبَ اللَّهُ بِنُورِهِمْ وَتَرَكَهُمْ فِي ظُلُمَاتٍ لَا يُبْصِرُونَ ②

صُمٌّ بُكْمٌ عُمْى فَهُمْ لَا يَرْجِعُونَ ①

أَوْ كَصَيْبٍ مِنَ السَّمَاءِ فِيهِ ظُلُمَاتٌ وَرَعْدٌ وَبَرْقٌ يَجْعَلُونَ
 أَصَابِعَهُمْ فِي آذَانِهِمْ مِنَ الصَّوَاعِقِ حَذَرَ الْمَوْتِ وَاللَّهُ مُحِيطٌ
 بِالْكَافِرِينَ ①

يَكَادُ الْبَرْقُ يَخْطَفُ أَبْصَارَهُمْ كُلَّمَا أَضَاءَ لَهُمْ مَشَوْا فِيهِ
 وَإِذَا أَظْلَمَ عَلَيْهِمْ قَامُوا وَلَوْ سَاءَ لَدُنَّ اللَّهُ الذَّهَبَ بِسَعْيِهِمْ
 وَأَبْصَارِهِمْ لَرَأَى اللَّهُ عَلَى كُلِّ شَيْءٍ قَدِيرٌ ①

يَا أَيُّهَا النَّاسُ اعْبُدُوا رَبَّكُمُ الَّذِي خَلَقَكُمْ

17-1) 불신자들

2) 17절의 계시말씀은 위선자들에 대한 경고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그 신앙을 버렸거나 또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암흑속으로 인도하니, 그들은 복음의 길과 구원의 길로 이르지 못함을 제시하고 있다.

18-1) 그들은 귀머거리처럼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들은 병어리처럼 유용한 말을 못하며, 그들은 장님처럼 옳은 길을 보지 못하다.

19-1) 혼돈과 방황속에 있는 그들을 비유하며, 그들은 마치 세찬 폭풍우와, 천둥과 번개가 진동하는 암흑속에서 두려워 어찌할 줄 모르는 무리와의 같음을 비유하고 있다.

20-1) 암흑속에서 번개불이 번쩍일때만 그 불빛으로 걷다가 번개불이 그치면 걸음을 멈춘다.
 ※ 하나님은 위선자의 속성을 지금까지의 말씀에서 10가지 속성으로 묘사하고 있다. 즉 거짓말, 기만, 현혹, 오만, 조롱, 해악, 무지, 방황,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행위, 경멸(사프와트 파파씨르. 제1권. p.25)

21-1)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류여!

야 아이유하 : 구란에는 여러 차례의 호격이 언급되고 있다. 이것은 강조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종들에게 언급된 호격의 표현으로써 촉구하는 모든 것을 인간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알바이되워 16/1).

라²⁾ 그분께서 너희들을 창조하셨고 또 너희 선조들을 창조하셨나니³⁾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되리라

22. 그대들을 위해 대지를 침상으로¹⁾ 하늘을 천정으로 두셨도다 하늘로부터는 비를 내리게하여 생과를²⁾ 맺게하고 이를 그대들의 양식으로 내려 주셨노라 하나님께 우상을 비유하지 말라 그대들은 이를 알지 않느뇨³⁾

23. 만약 너희가 하나님의 종에게 계시한 것에¹⁾ 관하여 의심한다면 그와 같은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가져올 것이며 너희들이 사실이라고 고집한다면 하나님외에 증인들을 대어보라²⁾

24.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¹⁾ 또한 그렇게도 할 수 없다면²⁾ 지옥을 두려워 하라 그곳에는 인간과 돌들이³⁾ 불에 이끌거리고 있으며 불신자들을 위해 준비된 곳이라

وَالَّذِينَ مِنْ قَبْلِكُمْ لَعَنَّكُمْ تَتَّبِعُونَ ﴿٢١﴾

الَّذِي جَعَلَ لَكُمُ الْأَرْضَ فِرَاشًا وَالسَّمَاءَ بِنَاءً وَأَنْزَلَ مِنَ السَّمَاءِ مَاءً فَأَخْرَجَ بِهِ مِنَ الثَّمَرَاتِ رِزْقًا لَكُمْ ۗ فَلَا تَجْعَلُوا لَهُمْ أَسْدَادًا وَأَنْتُمْ تَعْبُدُونَ ﴿٢٢﴾

وَأِنْ كُنْتُمْ فِي رَيْبٍ مِمَّا نَزَّلْنَا عَلَىٰ عَبْدِنَا فَأْتُوا بِسُورَةٍ مِثْلِهِ ۚ وَادْعُوا شُهَدَاءَكُمْ مِنْ دُونِ اللَّهِ إِنْ كُنْتُمْ صَادِقِينَ ﴿٢٣﴾

فَأَنْ كُمْ تَفْعَلُوا وَلَنْ تَفْعَلُوا فَأْذَنُوا بِالنَّارِ الَّتِي وَفُودَهَا النَّاسُ وَالْحِجَابُ عَشِيدَاتٍ لِكُفْرِهِمْ ﴿٢٤﴾

- 2)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 만이 유일신으로 섬기며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라.
3)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수여자로서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시는 창조주로서 홀로 존재 하심을 제시하고 있다.

22-1) 요람과 거주지

2) 아담의 후예를 위한 모든 종류의 양식

3) 즉 우상은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하고 인류에게 양식도 주지못함을 너희 위선자 및 불신자들은 알고 있지 않는가?

23-1)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계시한 꾸란

2) 앞절에서는 만물의 창조주로서의 유일성과 모든 것을 주재하는 주관자로서의 말씀이 있었고, 여기서는 무함마드가 예언자 및 선지자로서 창조주의 선택받음과, 꾸란의 말씀은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말씀을 가져올 수 없는 기적으로써 예증되고 있다.

24-1) 선지자에게 계시된 꾸란과 같은 한 문장이라도 이르게 할 수 없거나

2) 미래에도 그렇게 할 수 없다면

3) 불신자들과 우상들

25.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¹⁾ 기쁘소식을 전하라 그들을 위해 천국이 있고 그 밑에는 강물이 흐르니라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²⁾ 주어질 때면 이것은 이전에 도 저희에게 베풀어졌던 것이옵니다 라고 그들은 말하도다 또한 그들에게는 그와 유사한 것들이 주어지리니 그곳에 순결한 동반자가³⁾ 있어 그 안에서 영생하리라⁴⁾

26. 실로 하나님께서는 모기나 또는 그 이상의 것으로 비유하길 서슴치 아니하시매¹⁾ 믿는자는 그 비유가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임을 믿으나 불신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 비유를 들어 무엇을 원하느뇨 라고 하니 이에 가로되 그것으로 많은 불신자들을 방황케도 하고 또 많은 믿는자들을 인도하시노라 실로 하나님은 이단자들을²⁾ 방황케 하시니라

27. 이들은 하나님의 계율을 어긴자요 하나님이 명령하여 결합하라 하였으나 거역한 자이며 지상

وَبَشِّرِ الَّذِينَ آمَنُوا وَعَمِلُوا الصَّالِحَاتِ أَنَّ لَهُمْ جَنَّاتٍ تَجْرَى مِنْ تَحْتِهَا الْأَنْهَارُ كُلَّمَا رُزِقُوا مِنْهَا مِنْ ثَمَرَةٍ رِزْقًا قَالُوا هَذَا الَّذِي رُزِقْنَا مِنْ قَبْلُ وَأَنُؤَاهُ مِمَّا كَانُوا يَعْمَلُونَ ﴿٢٥﴾

إِنَّ اللَّهَ لَا يَسْتَحْيِي أَنْ يَضْرِبَ مَثَلًا لِمَا بَعُثْنَا قَلِيلًا قَلِيلًا مِنَ الَّذِينَ آمَنُوا يَعْلَمُونَ أَنَّهُ الْحَقُّ مِنْ رَبِّهِمْ وَأَنَّ الَّذِينَ كَفَرُوا أَفْقَرُونَ مَاذَآ أَرَادَ اللَّهُ بِهَذَا مَثَلًا يُضِلُّ بِهِ كَثِيرًا وَيَهْدِي بِهِ كَثِيرًا وَمَا يُضِلُّ بِهِ إِلَّا الْفَاسِقِينَ ﴿٢٦﴾

الَّذِينَ يَنْقُضُونَ عَهْدَ اللَّهِ مِنْ بَعْدِ مِيثَاقِهِ وَيَقْطَعُونَ مَا أَمَرَ اللَّهُ بِهِ أَنْ يُوصَلَ وَيُفْسِدُونَ فِي الْأَرْضِ أُولَٰئِكَ

25-1) 믿음으로 현세에서 선을 행하고 의롭게 생활한 자.

2) 천국에 있는 일용할 양식, 천국에 사는 이들에게 천사들이 일용할 양식을 가져다 그들 앞에 놓으면 이들이 말하길, "이것은 전에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줬던 것이옵니다"라고 말하자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여! 즐겨 먹어라. 색깔은 하나이되 맛은 서로 다르니라"라고 말한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29).

3) 천국에 있는 아내는 '히와르 아인'으로써 피부색이 새하얗고 눈이 크며 아름답기가 그지 없는 순결한 여성.

4) 불신자들에 대한 보상으로 지옥을 언급하신 후 이번에는 믿음이 진실한 신앙인들에 대한 보상으로 천국을 계시하고 있다.

무함마드여! 현세에서 믿음이 진실하고 선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라. 그곳에는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정원과, 온갖 과일이 풍부한 과수원이 있으며, 또한 그곳에는 풍성하고 맑은 물이 흐르도다. 또한 때문지 아니한 순결한 부인이 있으니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영생하리라.

26-1) 하나님은 가장 작은 것이든 가장 큰 것이든 또는 가장 하찮은 것이든 가장 중요한 것이든 간에 그분이 원하실 때는 어느 것으로도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길 서슴치 아니하시도다.

하나님께서서 파리 및 거미 같은 것을 언급하였을 때 불신자들 및 유대인들은, "이것을 언급하여 무엇을 하려 하느뇨?"라고 조롱하자 본질이 계시되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30).

2) 이단자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

에서 해악을 퍼뜨리는 사람들이니 저들은 스스로를 멸망케 하도다¹⁾

28. 생명이 없었던¹⁾ 너희에게 생명을 부여하사²⁾ 다시 생명을 앗아가고³⁾ 또 부활⁴⁾케하여 그분결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한단 말이뇨

29. 또한 그분은 너희들을 위해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어 일곱천을 형성하신 분으로 진실로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노라

30. 주님께서 천사에게¹⁾ 지상에 대리인을 두리라 하시니 천사들이 가로되 이 세상을 해치고 살상을 하려 하십니까 저희들은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을 경배하나이다 이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실로 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노라

31. 아담에게 모든 사물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후 천사들 앞에 제시하며 말씀하시길 만일 너희가 옳다면¹⁾ 너희가 이것들의 이름을

هُمُ الْخٰسِرُونَ ﴿٢٨﴾

كَيْفَ تَكْفُرُونَ بِاللّٰهِ وَكُنْتُمْ اَمْوَانًا قٰلًا حَيًّا اَلَمْ تَكُنْ مِنْ قَبْلِهِ مَيِّتًا ثُمَّ مَحْيٰىكُمْ ثُمَّ اِلَيْهِ تُرْجَعُونَ ﴿٢٩﴾

هُوَ الَّذِي خَلَقَ لَكُمْ فِى الْاَرْضِ جِوِيْنًا ثُمَّ اَسْتَوٰى اِلَى السَّمَآءِ فَسَوَّاهُنَّ سَبْعَ سَمٰوٰتٍ وَهُوَ بِكُلِّ شَيْءٍ عَلِيْمٌ ﴿٣٠﴾

وَإِذْ قَالَ رَبُّكَ لِلْمَلٰٓئِكَةِ اِنِّىْ جَاعِلٌ فِى الْاَرْضِ خَلِيْفَةً قَالُوْا اَجْعَلْ فِىْهَا مَنْ يُّفْسِدُ فِىْهَا وَيَسْفِكُ الدِّمَآءَ وَنَحْنُ نُسَبِّحُ بِحَمْدِكَ وَنُقَدِّسُ لَكَ قَالَ اِنِّىْۤ اَعْلَمُ بِالْاَعْمٰلِ ﴿٣١﴾

وَعَلَّمَ اٰدَمَ الْاَسْمَآءَ كُلَّهَا ثُمَّ عَرَضَهُمْ عَلَى الْمَلٰٓئِكَةِ فَقَالَ اَنْبِئُوْنِىْ بِاَسْمَآءِ هٰۤؤُلَآءِ اِنْ كُنْتُمْ صٰدِقِيْنَ ﴿٣٢﴾

27-1) 이단자들이란 하늘에서 계시된 성서들의 율법과 무함마드의 신앙을 지키지 아니하고, 모든 예언자 및 선지자들간의 계보를 단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듯이, 형제들과 친척들 간의 우의를 명령했으나 이를 거역하며, 현세에서 해악을 퍼뜨리는 사람들로써 이들은 스스로를 파멸로 유혹하는 자들이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31).

28-1)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 그리고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
2) 세상에 태어나는 것
3) 임종
4) 무덤으로부터 나와 부활하는 것

30-1) 무함마드여! 그대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염원하며 그것을 그대 백성들에게 얘기하라. 창조주께서 아담을 창조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수행하도록 지상의 대리자(Khalifa)로 두었음을 상기시키라.

31-1) 만일 너희 천사들이 대리자가 될 자격이 있다면

말해보라하니²⁾

32. 하나님이며 영광을 받으소서 저희는 당신이 가르쳐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나니 실로 당신은 아심과 지혜로 충만 하심이라

33. 하나님이 이르시길 아담아 그들에게¹⁾ 이름들을 일러주라 하시니 그가 그들에게 그 이름들을 일러주매 그분께서 천사들에게 이르시길 내가 천지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과 너희가 드러내거나 감추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너희에게 얘기하지 않겠노

34. 하나님이¹⁾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아담에게 엎드려 절하라 하니²⁾ 모두가 엎드려 절을 하나 이블리스만 거절하며 거만을 부렸으니 그는 불신자들중에 있었노라³⁾

35. 하나님이 말씀하사 아담아 아내와¹⁾ 함께 천국에 거주하며 그대들이 원하는 양식을 먹되 이 나무

قَالُوا سُبْحٰنَكَ لَعَلَّمَهُ لَنَا الْاِمَامَا عَمَّمْنَا اِنَّكَ اَنْتَ الْعَلِيْمُ
الْحَكِيْمُ ﴿٣٢﴾

قَالَ يَا اٰدَمُ اِنۡذِرْهُمْ يَا سَابِغِيْمُ فَلَمَّا اَنۡبَاَهُمْ بِاَسْمَائِهِمْ قَالَ
اَلَمْ اَقُلۡ لَّكُمْ اِنۡيۡ اَعْلَمُ سۡرَاتِ السَّمٰوٰتِ وَالۡاَرْضِ وَاَعْلَمُ
مَا تُبۡدُوْنَ وَمَا كُنۡتُمْ تَكْتُمُوْنَ ﴿٣٣﴾

وَاذۡقُنَا لِلۡمَلٰئِكَةِ اِسۡجُودَ الْاِمَامِ فَسَجَدُوۡا اِلَّا اِلَّاۤىۡسَ اٰبٰى
وَاسۡتَكۡبَرَ وَكَانَ مِنَ الْكٰفِرِيۡنَ ﴿٣٤﴾

وَقُلۡنَا يَا اٰدَمُ اسۡكُنۡ اَنْتَ وَزَوْجُكَ الْجَنَّةَ وَكُلَا مِنْهَا
رَغَدًا حَيْثُ شِئۡتُمَا وَلَا تَقْرَبَا هٰذِهِ الشَّجَرَةَ

- 2) 이 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의 위치를 천사 위에 둬으로써 아담의 후예인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제시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34).

33-1) 천사들

34-1) 꾸란에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로 자주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전 우주와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의 공동체로 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2) 엎드려 절을 하는 것(Sujūd)은 오직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천사들로 하여금 아담에게 엎드려 절하게 한 것은 야곱과 그의 자손이 요셉에게 그랬듯이 인사와 존경의 표시였다.
3) 이블리스의 속성에 관하여 천사라고 말하는 견해가 있으나 이블리스는 천사가 아담이 증명된다(하산 알바스리). 그 증거로써는 :
1-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지 아니하는데 이블리스는 거역할 했으며,
2-천사들은 빛으로부터 창조 되었는데 이블리스는 불에서 창조되었고
3-천사들은 자손이 없는데 이블리스는 자손이 있었으며
4-특히 카호프 장에서 이블리스가 '염마'에서 왔음을 제시하고 있다.

35-1) 이브(하와)

아담과 이브가 거주한 에덴 동산을 사우디 아라비아 메카 아라파트 동산이 아닌가 하는 학자들의 견해로 보아서는 지상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다음 36절에서는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에덴동산으로부터 쫓겨난 것으로 보아서는 지상 아닌 다른 곳에 에덴동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다.

에²⁾ 접근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죄지은자 가운데 있게 되니라.

36. 사탄이 그들을 유혹하여 그곳으로부터 나가게 하매 하나님 말씀하사 서로가 서로의 적이되어 지상에서 얼마 동안 안주하여 살라 했노라¹⁾

37. 이때 아담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으며 하나님은 그를 용서 하였으니 진실로 그분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38.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사 모두 세상으로 내려가 살라 복음을 내려 보낼 것이라 이를 따르는 사람은 두려움도 슬픔도 없을 것이라¹⁾

39.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거역하는 사람은 불지옥의 주인이 되어 그 속에서 영원히 기거할 것이라

40. 이스라엘 자손들이여¹⁾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총을 기억하고 나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라²⁾ 내가 너희와의 약속을 이행하리라³⁾ 그리고 나만을 두려워 하라⁴⁾

فَتَوَاتَا مِنَ الظَّالِمِينَ ﴿٣٦﴾

فَأَزَلَّهُمَا الشَّيْطَانُ عَنْهَا فَأَخْرَجَهُمَا مِمَّا كَانَا فِيهِ وَقُلْنَا اهْبِطُوا بَعْضُكُمْ لِبَعْضٍ عَدَاؤُكُمْ فِي الْأَرْضِ مُسْتَقَرًّا وَمَتَانًا إِلَىٰ حِينٍ ﴿٣٧﴾

فَتَلَقَّىٰ آدَمُ مِنْ رَبِّهِ كَلِمَاتٍ فَتَابَ عَلَيْهِ إِنَّهُ هُوَ التَّوَّابُ الرَّحِيمُ ﴿٣٨﴾

قُلْنَا اهْبِطُوا مِنْهَا جَمِيعًا فَإِنَّا يَا بَنِي آدَمَ تَابَ عَلَيْكُمْ فَهُدَىٰ مَنْ تَبِعَ هُدَاىَ فَلَا خَوْفٌ عَلَيْهِمْ وَلَا هُمْ يَحْزَنُونَ ﴿٣٩﴾

وَالَّذِينَ كَفَرُوا وَكَذَّبُوا بِآيَاتِنَا أُولَٰئِكَ أَصْحَابُ النَّارِ هُمْ فِيهَا خَالِدُونَ ﴿٤٠﴾

يَا بَنِي إِسْرَائِيلَ اذْكُرُوا بِعِمِّي أَنِّي أَنْعَمْتُ عَلَيْكُمْ وَأَوْفُوا بِعَهْدِي وَأَوْفِ بِعَهْدِكُمْ وَأَتَايَ قَارِعُونَ ﴿٤٠﴾

2) 금단의 나무도 에덴동산과 마찬가지로 지상에 있었던 나무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 있었는가? 그 나무는 포도 나무인가? 무화과 나무였는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뿐이다.

36-1) 사탄의 유혹으로 에덴 동산에서 지상으로 내려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함께 쫓겨내러가는 이 블리스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임을 경고하고 있다.

38-1) 아담과 그의 후손이 거주할 곳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지상임을 강조하면서 그들을 위해 선 지자들을 보내고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복음인 성서들이 계시되리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

40-1) 이스라엘은 외래어로서 하나님의 종복(압달라)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예언자 아굽의 자손들을 일컫는다.

2)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약속

3) 훌륭한 보상의 약속

4) 40절부터 142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과 무관에 관하여 언급되고 있다.

41. 내가 계시한 것을 믿고 이전에 내려보낸 계시를 믿으라 이를 불신하는 우두머리가 되지 말 것이며 나의 계시를 어떠한 것라도 교환하지 말고 나만을 두려워하라¹⁾

وَالَّذِينَ آمَنُوا بِمَا نَزَّلْنَا مِنْ كِتَابِنَا غَيْرَ مُمْتَلِينَ ۗ لَنَا الْحُكْمُ قَبْلَ يَوْمِ الْحِسَابِ ۗ
④ كَذِبُهَا وَأَكْبَرُ ۗ وَلَا تَكْفُرْ بِالَّذِي تَمَسَّكَ بِالْأَيْمَانِ مَا قُلْتُمْ

42. 진리를 부정으로 왜곡하지 말고 진리를 숨기지 말라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¹⁾

وَلَا تَتَّبِعُوا الْحَقَّ بِغَيْبَاتٍ ۚ وَكُنتُمْ تَكْفُرُونَ ۗ

43.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받칠 것이며 다같이 고개숙여 하나님을 경배하라¹⁾

⑤ وَأَقِيمُوا الصَّلَاةَ وَآتُوا الزَّكَاةَ وَارْتَضُوا لِمَا رَزَقْنَاكُمْ ۚ الْبُكُورِينَ

44. 선을 행하라 너희 백성들에게 일렀으되 너희 자신들은 망각하고 있느냐 성서를 낭독하면서도 모른단 말이야¹⁾

أَتَأْمُرُونَ النَّاسَ بِالْبِرِّ وَتَنْسَوْنَ أَنْفُسَكُمْ وَأَنْتُمْ تَتْلُونَ الْكِتَابَ ۗ أَفَلَا تَعْقِلُونَ ۗ

45. 인내와 예배로써 구원하라 실로 그것은 겸손한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힘든 일이라¹⁾

وَأَسْتَبِينَ وَالصَّبْرَ وَالصَّلَاةَ وَرَأَيْهَا كَثِيرَةً مِنَ النَّاسِ ۚ إِنَّهَا الْعِصْمَةُ عَلَى الْخُشْيَعِينَ ۗ

46.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주님께로 돌아가니라¹⁾

الَّذِينَ يَتَّبِعُونَ أَمْرَهُمْ مَلْفُوفًا رِيًّا ۗ وَأَمْرُهُمْ إِلَيْهِ رُجُوعُونَ ۗ

꾸란에서는 유대인들의 진상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사악함과 음모와 파괴 등 그들의 잔악함을 묘사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을 창조주의 유일성으로 경배할 것을 인간들에게 경고하면서 그들의 선조인 아담에게 배운 은혜를 기억케 하고 특히 이스라엘 자손인 유대인들에게 진실한 신앙을 촉구하면서 그들의 성서인 구약(Taura)에도 기록된 바 하나님이 최후로 선택한 최후의 예언자이며 선지자인 무함마드를 믿고 따라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 41-1) 무함마드에게 계시한 꾸란과 그 전에 계시된 구약이 창조주에 대한 유일성 및 예언자의 출현을 예시한 것을 믿어 진실한 신앙인이 되고 항상 하나님을 영원하라 하고 훈시하고 있다.
- 42-1) 하나님이 계시한 진리와 구약의 최초 말씀을 조작하지 말며, 구약에 언급된 무함마드에 관하여 숨기지 말라.
- 43-1) 유대인 및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 방황했을 때 고개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계시됨
- 44-1)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선을 행하고 무함마드를 믿으라 말하면서도 자기들 스스로는 이를 망각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힐책과 견책으로써 계시되고 있다. 이 말씀이 계시된 동기도 유대인들의 종교지도자들이 이슬람에 귀의한 그들 친척들로 하여금 무함마드의 신앙이 진실한 것이니 이를 따라라 하면서도 자기들 스스로는 실천하지 아니하자 이 말씀이 계시되었다(사 프와트 타파-써르, 제1권, p.41).
- 45-1) 인내(Sabr)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그것은 예배를 지칭한다.
 - 성급히 서둘지 아니하고 침착하며
 - 어떤 목적을 향한 꾸준한 자세

47.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나의 은총을 기억하라 내가 그대들을 선택 했노라¹⁾

يٰۤاِسْرٰٓءِيْلَ اذْكَرْنَا وَاٰمَنَّا بِرَبِّكَ الَّذِيٰ كَفَرْنَا عَلٰيْكُمْ وَاِنَّا
مُكَلِّمِيْنَكَ عَلَ الْعٰلَمِيْنَ ﴿٤٧﴾

48. 그날을¹⁾ 두려워 하라 그날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며 어떤 중재도 수락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으니 그들은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니라

وَاَتَقْوٰوْا يَوْمَآلَا يُجِزِيْ نَفْسٌ عَنْ نَّفْسٍ شَيْئًا وَّلَا يُقْبَلُ
مِنْهُمْ شَفَاعَةٌ وَّلَا يُؤْخَذُ مِنْهَا عَدْلٌ وَّلَا هُمْ يُنصَرُوْنَ ﴿٤٨﴾

49. 하나님께서 너희를 파라오의 압박으로부터 구하였음을 상기하라 그들은 너희를 구속하고 남성들을 학살 하였으며 여성들은 그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였으니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내리신 시련이라¹⁾

وَاذْ تَحٰثَبُوْنَ مِنَ الْاِلٰهِ فِرْعَوْنَ يَسُوْمُوْنَ كُفْرًا سُوْءِ الْعٰدَابِ
يٰۤاَيُّهَا الَّذِيْنَ اٰمَنُوْا اٰبَاءُكُمْ وَبَنُوْكُمْ وَنِسَاؤُكُمْ فِيْ ذٰلِكُمْ بٰرِكَةٌ مِّنْ
رَّبِّكُمْ عَظِيْمَةٌ ﴿٤٩﴾

50. 바다를 둘로 쪼개어 너희들

وَاذْ فَرَقْنَا بِكُمُ الْبَحْرَ فَاٰتَجَنَّبَكُمْ وَاَغْرَقْنَا الْاِلٰهَ فِرْعَوْنَ

- 감정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이성에 의한 행위
- 회·노·애·락을 조절하는 마음의 정적자세 등으로, 구안에서는 인내하는 자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여러차례 강조되고 있다.

- 46-1) 믿음이 확실한 자는 부활의 날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들의 업적을 심판받게 된다.
- 47-1) 창조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함은 이스라엘 자손 즉 하나님의 종(압달라)들로써,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것은 아니다. 즉 이들 선조들에게 예언자들과 이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서들을 다른 백성에 앞서 보내주었다는 의미다.
- 48-1) 심판의 날 불신자들에게 있을 무서운 응벌의 날(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41)
- 49-1) 애굽인의 속박은 무서운 시련이었다. 남성들은 모조리 학살당하고 부녀자들은 그대로 두어 자기들의 종복으로 이용하였으며(출애굽기. i. 14), 애굽인들은 그들의 생명을 고난으로 속박하였으니 몰타르와 벽돌속에다 넣어 구속하였고, 들판에서는 온갖 노동을 시켰으며, 파오라의 심장은 지푸라기 하나 주지 아니하고 벽돌을 만들라는 등 학대와 학살을 일삼았으며, (출애굽기. V. 5-19), 태어나는 모든 남자는 강에 버리고 여자는 그대로 두라는 파라오의 칙령이 내려졌다(출애굽기. i. 22). 이 시기에 태어난 모세는 3개월 동안 숨겨졌으나 그 이상 숨길 수가 없어 모세를 상자에 넣어 나일강으로 던졌다. 이리하여 모세는 파라오의 딸과 아내에게 발견되어(출애굽기. xxviii. 9) 파라오 가족이 된다. 그리하여 모세는 적에 의해 양육된 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라 그의 백성을 구하게 하고 애굽인의 잔인함으로부터 사랑을 배우도록하여 그의 백성을 인도하게 된다. 이스라엘 자손들 중 남아들을 살해하도록 파라오의 칙령이 내리던 동기는, 어느날 파라오가 그의 꿈속에서 불을 보았는데 이 불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 애굽을 휩싸고 모든 애굽의 콧고도들을 불태웠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다. 이에 놀

을 구하고 너희들의 안면에서 파
라오족을 익사케 했나니¹⁾

وَأَنْتُمْ تَنْظُرُونَ ﴿٥١﴾

51. 모세에게 사십일밤을 명하여
은거하게 하였을 때 그대들은 송
아지를 택하여 우상을 숭배하였으
매 너희들은 우매하였노라¹⁾

وَأَذُوعدًا مُمُوسَى أَنْ يَرَى لَيْلَةً ثُمَّ اتَّخَذْتُمُ الْعِجْلَ
مِنْ بَعْدِهِ وَأَنْتُمْ ظَالِمُونَ ﴿٥٢﴾

52. 그 후에도 하나님은 그대들
을 용서하여 주었나니 이에 감사
하라¹⁾

ثُمَّ عَفَوْنَا عَنْكُمْ مِنْ بَعْدِ ذَلِكَ لَعَلَّكُمْ تَتَّقُونَ ﴿٥٣﴾

53.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서와
식별서¹⁾를 내렸나니 이것으로 너
희가 인도될 것이라

وَأَذُو آتَيْنَا مُوسَى الْكِتَابَ وَالْفُرْقَانَ لَعَلَّكُمْ تَهْتَدُونَ ﴿٥٤﴾

54. 모세가 그의 백성에게 이르
되 백성들이여 송아지¹⁾를 숭배하
여 자신들을 우롱했노라 주님께

وَأَذُو قَالَ مُوسَى لِقَوْمِهِ يَقَوْمِ إِنَّمَا ظَلَمْتُمْ أَنْفُسَكُمْ
بِاتِّخَاذِكُمُ الْعِجْلَ فَتُوبُوا إِلَى بَارِيكُمْ فَانقُصُوا أَنْفُسَكُمْ

란 파라오는 점장이들을 불러 그의 꿈을 해석하라 명하였다. 이때 점장들이 해석 하길,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남아가 탄생하여 당신을 멸망케 하고 당신의 권자를 무너뜨릴 것입니다"라고 하자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가운데 태어나는 어떤 남아도 남기지 말고 살해하라는 칙령을 내렸다.

50-1) 파라오의 학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시도하여 홍해에 이르매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뒤따라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적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히 홍해를 빠져나갔고 뒤를 추격하던 파라오의 군인들은 익사를 한다(출애굽기. xiv 5-31).

51-1) 이것은 십계명과 율법과 계율이 시나이 산상에서 있던 후의 일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로 시나이 산상으로 올라가 40일 동안 있게되자(출애굽기 xxiv. 18) 그의 백성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곳에 제사를 지내며 숭배를 하였다. 이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파라오 학대로부터 구출한 후 40일 동안 시나이 산상에서 기도와 명상을 하게한 후 구약을 계시할 것을 약속하였다.

52-1) 모세가 그의 어리석은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용서하였다(출애굽기. xxxii. 14).

53-1) '알기답'이란 '그 책'이라는 언어적 해석으로 모세에게 계시된 구약을 말하며, '푸르칸'이란 '구별하는 것, 즉 옳고 그름을 식별하는 기준'이란 뜻으로 해석이 되나, 어떤 학자는 기적으로 보는 학자도 있으며 어떤 학자는 '알기답'이나 '푸르칸'이 같은 뜻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다. 이때는 '알기답'은 구약으로써 옳고 그름을 식별하는 것이라고 보면 타당할 것 같다.

54-1) 아랍어의 원어 발음은 '까들'이다. 금송아지를 숭배한 죄의 대가로 '너희 자신들을 살해하라'는 뜻으로 해석되나 학자들간의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다.

- 1) 죄지은 자들은 자기 스스로 자살해야 한다. 2) 서로가 서로를 살해해야 한다.
- 3) 송아지를 섬기지 아니한 자들이 송아지를 섬긴자들을 살해해야 한다는 등 다소간의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여기서의 '까들'은 은유법으로 '회개 또는 속죄'라는 뜻으로 해석함이 뒷뒤에 가깝다.

회개하고 속죄하라 주님의 은총이 있어 너희들을 용서할 것이라 진실로 그분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시니라

ذِكْرِكُمْ خَيْرٌ لَّكُمْ عِنْدَنَا بِرَبِّكُمْ قَتَابَ عَلَيْكُمْ إِذْنَهُ هُوَ التَّوَابُ الرَّحِيمِ ﴿٥٥﴾

55. 모세야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까지는 믿을 수 없도다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라 그때 천등과 번개가 그들을 불태워 버렸음을 너희는 지켜보지 아니했느냐¹⁾

وَإِذْ قُلْتُمْ يَا مُوسَى لَنْ نُؤْمِنَ لَكَ حَتَّى تَرَى الْمَلَأَ جَهَنَّمَ فَأَخَذْتُمْ الضُّعْفَةَ وَأَنْتُمْ تُنظَرُونَ ﴿٥٦﴾

56. 그런데도 너희가 죽은 후 내가 너희를 부활시켰으니 이에 감사하라

ثُمَّ بَعَثْنَاكُم مِّن بَدَأ مَوْتِكُمْ لَعَلَّكُمْ تَشْكُرُونَ ﴿٥٧﴾

57.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들을 만들고 만나와 쌀와를 보내며 그대들에게 준 양식 가운데 좋은 것을 먹으라 했거늘 나를 속이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들을 우매하게 하였을 뿐이라¹⁾

وَظَلَمْنَا عَلَيْكُمُ الْمَسَامَرَةَ وَاتْرَلْنَا عَلَيْكُمُ الْمَنِّ وَالسَّلْوَى كُلُّوْا مِّن طَيِّبَاتِ مَا رَزَقْنَاكُمْ وَمَا ظَلَمُونَا وَلَكِن كَانُوا أَنفُسَهُمْ يَظْلِمُونَ ﴿٥٨﴾

55-1)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를 숭배하여 죄를 지은 후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여 그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정 그로 하여금 그들 백성의 죄를 사과하도록 하였다. 모세로 하여금 70명의 남성들을 선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금식을 하게하고 마음을 청결케 할 것이며 의복을 깨끗이 하라하니 그렇게 하였다. 그런 후 모세는 그들과 함께 시나이 산상으로 가니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길 "모세여!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하여 주시오." 하니 모세가 "그렇게 하리라" 대답하였다. 모세가 산상에 이르렀을 때 구름이 다가와 그 산상 전체를 덮어 버렸다. 그때 그 백성들이 다가와 구름속에 들어가 부족하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얼마후 구름이 모세에게서 사라지자 그들이 모세에게 다가와 말하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까지는 당신을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자 이 계시가 내려지게 되었다. 출애굽기. xxxiii. 20절에서는 이렇게 묘사되고 있다. 그분이 말씀하시, "너희는 나의 얼굴을 볼 수 없나니, 이는 어느 인간도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니라"이로써 하나님의 관용은 무한정하시어 믿음을 부정한 자들까지도 관용을 베푸시나 하나님의 형상을 보겠다는 불신은 용서되지 아니한다.

57-1) 구름으로 뜨거운 태양열을 가리워 안식처처럼 만들어주고 "만나"는 헤브리어로 "만후"라고 하는데 땅에 떨어지는 이슬방울처럼 등글며 아주 작은 것(출애굽기 xvi : 14)으로, 아랍어 해설에서는 꿀과 같은 것이 떨어져 그것을 물과 혼합하여 마시는 액체, 또는 달콤한 음료수 등으로 풀이되고 있으나 하늘로부터 나무위나 돌위에 떨어져 꿀 형태로 있다가 마르면 진과 같은 겼의 형태로 보는 견해가 다수다. "쌀와"는 조류때로 일년중 어느 계절에 동부지중해에 바람을 따라 날아드는 맛이 좋은 조류로 보고 있으며 1914-1918년 대전쟁때 참가했던 인도 장교들이 애급과 팔레스타인 지역 사이에서 목격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한편 후스나인 무함마드 마클루프는 쌀와를 메추라기로 해석하고 있다(꾸란 어휘해설, p.11).

58. 하나님이 말한 것을 상기하라 이 마을로 들어가 그대들이 원하는 대로 먹되 앞뒤려 문으로 들어가 겸손히 회개하라 하나님이 그대들의 죄를 용서하고 선행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증가할 것이라

59. 그러나 그 우매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계시된 말씀을 변조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 우매한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흑사병을 보내도다. 이는 그들이 계속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¹⁾

60. 상기하라 모세가 그의 백성을 위해 물을 구하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지팡이로 그 바위를 때리라 하니 그곳으로부터 열두개의 샘이 솟아나와 각 부족들은¹⁾ 그들이 마실곳을 알았도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마시되 현세에서 해악을 퍼뜨리지 말라

61.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모세여 음식 한가지로만 살 수 없나니 목초와 오이 마늘과 아다스 그리고 양파를 하나님께 구원하여

وَإِذْ قُلْنَا ادْخُلُوا هَذِهِ الْقَرْيَةَ فَكُلُوا مِنْهَا حَيْثُ شِئْتُمْ رَغَدًا إِذْ دَخَلُوا الْبَابَ سَجِدًا اَوْ قُوًا حِطَّةً فَغَفَرْنَا لَكُمْ ذُنُوبَكُمْ وَنَزَّلْنَا مِنَ السَّمَاءِ مَاءً مُنِينًا ﴿٥٨﴾

قَبِيلَ الَّذِينَ ظَلَمُوا قَوْلًا غَيْرَ الَّذِي قِيلَ لَهُمْ فَأَنْزَلْنَا عَلَى الَّذِينَ ظَلَمُوا رَجِيمًا مِنَ السَّمَاءِ بِمَا كَانُوا يَفْسُقُونَ ﴿٥٩﴾

وَإِذْ اسْتَسْقَى مُوسَى لِقَوْمِهِ فَقُلْنَا اضْرِبْ بِعَصَاكَ الْحَجَرَ فَانْفَجَرَتْ مِنْهُ اثْنَا عَشَرَ نَبِئًا قَدْ عَلِمَ كُلُّ أُنثَىٰ مِنْ مَشْرِيبِهِمْ طَلُّؤًا إِشْرًا وَمِنْ زَبْقِ اللَّهِ وَلَا تَعْتَوْنِي الْأَرْضَ مُفْسِدِينَ ﴿٦٠﴾

وَإِذْ قُلْتُمْ يَا مُوسَى لَنْ نُصِيبَكَ بِعَلِيٍّ طَعَامًا فَاذْعُرْنَا رَبِّكَ بِعَجْرٍ لَنَا وَمَا تَنْثِقُ الْأَرْضَ مِنْ بَعْدِهَا وَقِيَامِهَا

59-1) "이 마을"은 요르단 동쪽에 있는 고올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방탕과 우상숭배의 죄를 짓자 (민수기 xxv. 1-2, 8-9) 흑사병으로 24,000명의 생명을 앗아간 무서운 형벌이 내려졌다. "이 마을"을 예루살렘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60-1)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의 부족 형태로 40년동안 아라비아 사막을 행진하다가(민수기 i. ii)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였다.(여호아수기 xiii. xiv). 그 후 야곱의 자손들로부터 열두부족이 유래되는데 야곱은 이스라엘(신의 종복)이라고 불리워졌다.(창세기 xxxii. 28) 이스라엘(야곱)은 레위와 요셉을 포함하여 열두 아들(창세기 xxxv. 22-26)을 두었는데 이 열두 자손들의 후손이 이스라엘 자손들이었다. 레위는 유대 신전에서 사제를 돌보았기 때문에 군복무에서 제외가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인구조사(민수가 I. 47-53)가 시행되어 가나안 땅이 구획정리(여호아수기 xiv. 3)가 되면서 그들은 여러 부족으로 분산이 되었다. 모세와 아론은 레위 가문에 속하게 되었다. 한편 요셉은 애굽에서 자라 파라오 통치하에 제상의 높은 직책으로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을 딴 이프라이(Ephraim)과 미나세(Manasseh) 두 부족의 시조가 되었다. 그리하여 전부 열두 부족이 된 것이다.

주소서 모세 가로되 그것들보다 더 좋은것을¹⁾ 주셨는데 너희는 이 하찮은 것과 바꾸려 하느뇨 아무 곳이나 가 보아라 너희가 구한 것을 얻을지니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잘 것 없고 처량한 족속으로 만들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예언자들을 무차별 살해했으니 이들은 불신자들이라²⁾

62. 꾸란을 믿는 자들이나 구약을 믿는자들이나 그리스도인과 천사들을 믿는 사비안들이나 하나님과 내세를 믿고 선행을 행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보상이 있을 것이며 그대들에게는 두려움도 슬픔도 없을 것이라¹⁾

63. 너희 유대인과 구약성서에 있는대로 약속을 했으며 뚜르산을 너희들 위로 올렸노라 너희에게 내려준 것을 확고히 잡을 것이며 그 안의 뜻을 생각하라 의로운 사람들이 될 것이라¹⁾

وَقَوْمَهَا وَعَدَيْهَا وَبَصَلَهَا قَالِ اسْتَبَيُّ لَوْنَ الَّذِي
هُوَ اَذْنِي يَا الَّذِي هُوَ خَيْرٌ اِهْبِطُوا مَصْرًا قَانَ لَكُمْ مَا
سَأَلْتُمْ وَصُرِّبَتْ عَلَيْهِمُ الذَّلَالَةُ وَالْمَسْكَنَةُ وَبَاءَ وَيَعَصِبُ
مِنَ اللّٰهِ ذٰلِكَ يَأْتِيهِمْ كَا نُوَايِكُمْ لَوْنَ يَا لَيْتَ اللّٰهُ
وَيَقْتُلُونَ النَّبِيِّنَ بِغَيْرِ الْحَقِّ ذٰلِكَ بِمَا عَصَوْا
وَكَانُوا يَعْتَدُونَ ﴿٦٢﴾

إِنَّ الَّذِيْنَ آمَنُوا وَالَّذِيْنَ هَادُوا وَالنَّصَارَى وَالصَّبِيَّانَ
مِنَ اٰمَنَ بِاللّٰهِ وَالْيَوْمِ الْآخِرِ وَعَمِلْ صَالِحًا فَلَهُمْ اَجْرُهُمْ
عِنْدَ رَبِّهِمْ وَلَا خَوْفٌ عَلَيْهِمْ وَلَا هُمْ يَحْزَنُونَ ﴿٦٣﴾

وَاذْخُرْنَا مِثْلَ مَا نَأْتِيَكُمْ وَرَفَعْنَا فَوْقَكُمْ الطُّورَ خُذُوا مَا
اَتَيْنَاكُمْ بِقُوَّةٍ وَاذْكُرُوا مَا فِيْهِ لَعَلَّكُمْ تَتَّقُونَ ﴿٦٣﴾

61-1) 맛나와 쌀와

2) 그들은 약속의 땅을 얻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들은 여러 가지 재앙을 겪었으며, 앗슈리아까지 노예로 끌려갔는가 하면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아랍의 통치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지구상에 뿔뿔히 헤어져 방황을 하였다. 이러한 벌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에도 있었지만 예언자들을 학살한 죄의 대가이기도 하였다. 아벨을 학살함으로써 유대인들의 예언자들에 대한 학살이 시작되었다. 야곱의 장남이 요셉을 살해하려 어린 동생을 우물에 밀어 넣었으며 또 예수를 살해하려 음모하였고 무함마드를 살해하려 하였다.

62-1) "사비인"은 유대교나 기독교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서 천사들을 믿는 신도들을 일컫는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이라크 바스라 지역에 약 2,000여명의 사비인 신도들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63-1)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구약에 있는대로 너희와 약속을 하였고 시나이 산을 너희 안식처가 되게하였으니 너희는 구약의 율법을 따르고 그 말씀을 기억하라. 시나이산(투-르 씨-니)은 홍해에 위치하고 아라비아반도 사막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급한 산이다. 여기서 십계명과 율법이 모세에게 계시되었다. 그 이래로 지금까지 모세의 산(자발무사)이라 불리워지고 있다.

64. 그러나 너희는 이를 불신했나니 하나님은 너희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너희는 명망하는 자 중에 있을 것이라

65. 너희 가운데 안식일을 위반한 자들이 있음을 너희가 알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르길 그대들은 원송이가 되어 저주를 받을 것이라¹⁾

66.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 세대의 백성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벌을 내렸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교훈을 주었노라

67. 모세가 그의 백성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명령했노라 암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바치라고 하니 당신은 우리들을 조롱하는가 라고 그들이 응답하더라 이때 모세 가로되 주여 이같은 뽕매한 자가 되지 않도록하여주소서¹⁾

68. 그들이 말하길 그것이 어떤 소인지 당신의 주님께 간청하여 설명하여 달라 하니 가로되 그 소는 늙지도 않고 어리지도 않는 중간의 것이라 너희들은 명받은대로 행하라

69. 그것은 또 무슨 색깔인지 당신의 주님께 청하여 설명하여 달라¹⁾ 하니 가로되 그 소는 맑고 노란색이며 보는이를 감탄케 하노라

كَمْ تَوَكَّلْتُمْ مِنْ بَعْدِ ذَلِكَ قُلْ لَا فَضْلَ اللَّهُ عَلَيْكُمْ
وَرحمته لکنتم من الخسیرین ﴿۶۴﴾

وَلَقَدْ عَلَّمْتُمُ الَّذِينَ اعْتَدُوا مِنْكُمْ فِي السَّبْتِ فَقُلْنَا لَهُمْ
كُلُوا مِنْ ذُرِّئِهِمْ خَيْرًا ﴿۶۵﴾

فَجَعَلْنَاهَا نَكَالًا لِمَا بَيْنَ يَدَيْهَا وَمَا خَلْفَهَا وَمَوْعِظَةً
لِلْمُتَّقِينَ ﴿۶۶﴾

وَإِذْ قَالَ مُوسَى لِقَوْمِهِ إِنَّ اللَّهَ يَأْمُرُكُمْ أَنْ تَذْبُحُوا بَقَرَةً
قَالُوا أَتَتَّخِذُنَا هُزُوًا قَالَ أَعُوذُ بِاللَّهِ أَنْ أَكُونَ مِنَ
الْجَاهِلِينَ ﴿۶۷﴾

قَالُوا ادْعُ لَنَا رَبَّكَ يُبَيِّنْ لَنَا مَا هِيَ قَالَ إِنَّهُ يَقُولُ
إِنَّهَا بَقَرَةٌ لَا قَارِضَ وَلَا يَكْفُؤُا عَوَانُ بَيْنَ ذَلِكَ
فَاتَّقُوا مَا تَوَمَّرُونَ ﴿۶۸﴾

قَالُوا ادْعُ لَنَا رَبَّكَ يُبَيِّنْ لَنَا مَا لَوْ تُلَّهَا قَالَ إِنَّهُ يَقُولُ
إِنَّهَا بَقَرَةٌ صَفْرَاءُ فَاقِعَةً لُونُهَا تَسْرُ الطَّيْرِينَ ﴿۶۹﴾

65-1) 모세의 율법하에서 '싸바트'를 위반한 죄의 대가는 죽음이었다. 어느 누구든 '싸바트'를 모독하는 자는 분명 사형에 처하게 되며 그날 일을 한자는 그의 백성으로부터 소외되었다(출애굽기. xxxi. 14).

67-1) 이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파라오의 모진 학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인내하였기 때문에 다른 백성에 앞서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셨다.

69-1) 흰 색인지 검은 색인지 아니면 그밖의 다른 색깔인지 물어보았다.

70. 그들이 말하길 그것이 어떤 소인지 당신의 주님께 청하여 설명하여 달라 실로 그 암소들이 우리에게는 닮아보이도다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알게 되리라

71. 가로되 그 소는 땅을 일구고 물을 대도록 길들여지지 아니한 흠이 없는 건전한 것이라 하니 이제 당신은 사실을 설명 하였소 라고 말하며 마지 못하여 그 소를 희생 하였더라

72. 너희가 한 인간을 살인하고서 이 사실을 감추려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숨긴 것을 들추어 내시니라

73. 그 소의 일부를 가지고 그 시체를 때리라¹⁾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소생시켜 그분의 예증을 그처럼 밝히시니 너희는 이해하게 되리라

74. 그런후에도¹⁾ 너희의 마음은 바위처럼 아니 그보다 단단하게

قَالُوا اذْءُكُنَّا رَبِّكَ يَبِينُ لَنَا مَا هِيَ اِنَّ الْبَقَرَ شَبَهُ عَلَيْهَا
وَاِنَّ شَاءَ اللّٰهُ لَهٗمَّا نُوْنٌ ﴿٧٠﴾

قَالَ اِنَّهٗ يَقُوْلُ اِنَّهَا بَقْرَةٌ اَلَا ذٰلِكُمْ تَنْبِئُ الرِّاْءَ وَلَا تَشْفِقُ
الْمَرْءُ مَسْكِيَةً اَلَشَّيْءَ فِيهَا قَالُوا لَنْ جِدْتِ بِالْحَقِّ
فَدَبَّحُوْهَا وَمَا كَاذُوْا يَفْعَلُوْنَ ﴿٧١﴾

وَ اِذْ تَسْتَلْتُمْ نَفْسًا فَاذْرٰهٗمُ فِيْهَا وَا اللّٰهُ مُخْرِجٌ مَا كُنْتُمْ
تَكْتُمُوْنَ ﴿٧٢﴾

فَقُلْنَا اَمْزُؤُوْا بِبَعْضِهَا كَذٰلِكَ يَجْعِي اللّٰهُ الْمَوْتٰى وَيُرِيْكُمْ
اٰيٰتِهٖ لَعَلَّكُمْ تَتَّقُوْنَ ﴿٧٣﴾

ثُمَّ قَسَتْ قُلُوْبُكُمْ مِّنْ بَعْدِ ذٰلِكَ فَاٰلِ جَارًا

73-1)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한 거부가 있었는데 이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재산은 그의 조카가 상속자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이 조카는 거부인 삼촌을 살해한 후 밤 중몰래 그 시체를 어떤 사람의 집 대문에 갖다 놓았다. 이로 인하여 그 주변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밀고하매 큰 싸움이 벌어졌다.

이때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그 고을의 군수가 “왜들 서로가 싸움을 합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예언자가 있지 않습니까?”라고 말하자 그들은 예언자인 모세에게로 갔다.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암송아지 한마리를 잡으라 너희에게 명령했노라)”라고 그들에게 이르니, 이때 이들은 왜 송아지를 잡아야 할 이유에 대해 서로가 논쟁을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암송아지 한마리를 잡도록 하였으니...

그리하여 그들은 암송아지 한마리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한 남자를 발견하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 송아지의 벗긴 가죽에다 금을 가득채워 그 송아지를 구입하도록 하였으니 그들은 그렇게 하고 그 송아지를 도살하여 그 송아지 시체 일부만으로 살해된자의 시체를 때렸더니 그 시체가 살아 일어나도다. 이때 그들이, “누가 당신을 살해하였습니까?” 물으니 그의 조카를 가르키고는 다시 송장이 되어버렸다. 그 후로 살인자에게는 상속이 되지 아니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52-53).

74-1) 그러나 분명한 기적이 있는 후에 초차도

굳어졌노라 바위가 쪼개져 강이 흐르고 그 강이 갈라져 물이 흘러 나오며 하나님이 두려워 바위도 무너지도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75. 너희들은 그들이¹⁾ 너희와 더불어 믿음을 같이 하기를 바라노라 그들의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 하면서도 그 말씀을 왜곡하도다²⁾

76. 보라 그들이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때는 우리도 믿나이다 라고 말하고 그들이 각각 만났을때는 하나님 앞에서 증거가 되도록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계시한 것을 그들에게 얘기해야 되노¹⁾ 너희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니²⁾ 하더라

77. 그들이 숨기는 것과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던 말이노

أَوَلَمْ تَرَ أَنَّ الْبَارِئَةَ لَمَّا تَنَجَّرُ مِنْهُ الْأَنْهَارُ وَرَأَى مِنْهَا الْمَاءَ تَتَّقِي فَيَخْضِرُ مِنْهُ الْمَاءُ وَإِنَّ مِنْهَا لَمَاءً يَنْهَيظُ مِنْ حَشِيَّةِ اللَّهِ وَاللَّهُ بِعَافِي عِبَادِهِ عَلِيمٌ ﴿٧٥﴾

أَفَتَعْظَمُونَ أَنْ يُؤْمِنُوا بِاللَّهِ وَقَدْ كَانَ فَرِيقٌ مِنْهُمْ يَسْمَعُونَ كَلِمَ اللَّهِ ثُمَّ يَلْحِقُونَ بِهِ مِنْ بَعْدِ مَا عَقَلُوا وَهُمْ يَعْلَمُونَ ﴿٧٦﴾

وَإِذْ الْفُلُ الَّذِينَ آمَنُوا قَالُوا آمَنَّا وَإِذَا خَلَا بِضُرَّاهُمْ إِلَى بَعْضٍ قَالُوا أَتُوعَدُونَ لَنَا بِمَا كَفَرَ اللَّهُ عَلَيْكُمْ لِيُحَايِبَكُمْ بِهِ عَدْرَ رَبِّكُمْ أَفَلَا تَعْقِلُونَ ﴿٧٧﴾

أَوَلَا يَعْلَمُونَ أَنَّ اللَّهَ يَعْلَمُ مَا يُسْتَرُونَ وَمَا يُعْلِنُونَ ﴿٧٧﴾

75-1) 유대인들

2) 이절은 메디나 토박이(Ansari) 신앙인들에게 계시된 말씀으로 같이 살아온 이웃 유대인들이 이슬람에 귀의하기를 기대하자 이 말씀이 계시되었다(알바흐르 알무히트 271/1). 본절에서 말씀을 왜곡하였다 함은 유대인이 모세를 통해 계시된 구약 말씀을 왜곡했음을 뜻한다.

76-1) 구약에 묘사된 무함마드에 관한 소식을 무함마드 동료들에게 전해주려 하느뇨 오히려 그것은 내세에 가서 무슬림 신앙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2) 이절은 산재해 있었던 유대인들의 위선을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만일 메디나의 무슬림들이 그들 유대인 성서에 예언된 무함마드를 선택된 예언자로 그곳 유대인들이 받아들여기를 희망했다면 오히려 그것이 잘못이었다. 신명기. xviii. 18 절을 보면 “내가 그대들에게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대(모세)와 같은 한 예언자를 보내리라” 이 절은 그들 박사들에 의해서 무함마드로 풀이되었다. 형제들이라 함은 셈족으로써 아랍백성도 셈족으로 무함마드가 올때까지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출현하지 아니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모세이후 수세기 동안 기록된 신명기 후기에서는, “그 이래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오지 아니했나니”로 묘사되고 있다. 유대인들은 무함마드를 시기 및 질투하면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무슬림 공동사회가 강하게 되던 서부터는 그들도 무슬림들인척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들의 성서 원래의 말씀을 감추어 버렸다.

78. 그들 중에는 글을 알지 못하여 그 성서를 알지 못하매 단지 추측만을 했을 뿐이라¹⁾

وَمِنْهُمْ أُمِّيُونَ لَا يَعْلَمُونَ الْكِتَابَ إِلَّا أَمَانٍ وَلَنْ هُمْ إِلَّا يَظُنُّونَ ﴿٨٠﴾

79. 그들 손으로 그 성서를 써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값싸게 사소서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¹⁾ 재앙이 있을 것이며 그것을 쓴 그들의 손에도 재앙이 올 것이며 그로써 금전을 모으는 자들에게 큰 재앙이 있을 것이라²⁾

قَوْلٍ لِلَّذِينَ يَكْتِيبُونَ الْكِتَابَ بِأَيْدِيهِمْ ثُمَّ يَقُولُونَ هَذَا مِنْ عِنْدِ اللَّهِ لِيُشْرُوا بِهِ ثَمَّ تَأْكِلُهَا قَوْلٍ لَهُمْ مِمَّا كَتَبَتْ أَيْدِيهِمْ وَوَعِيلٌ لَهُمْ مِمَّا يَكْتِيبُونَ ﴿٨١﴾

80. 그들은 불의 재앙이 몇일간을 제외하고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 일러 가로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노 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니 너희는 하나님에 관해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려 하노¹⁾

وَقَالُوا لَنْ نَمَسَّنَا النَّارَ إِلَّا أَيَّامًا مَعْدُودَةً قُلْ أَتَّخَذْتُمْ عِندَ اللَّهِ عَهْدًا أَفَلَنْ يَخْلِفَ اللَّهُ عَهْدَهُ أَفَرْتَقُولُونَ عَلَى اللَّهِ مَا لَا تَعْلَمُونَ ﴿٨٢﴾

81. 사악을 저지르는 자 죄악이 그를 포섭하니 그는 불지옥의 주인이 되어 그곳에서 영원히 거기 하리라

بَلَىٰ مَنْ كَسَبَ سَيِّئَةً وَأَحَاطَتْ بِهِ خَيْرَتُهُ فَأُولَٰئِكَ أَصْحَابُ النَّارِ هُمْ فِيهَا خَالِدُونَ ﴿٨٣﴾

82. 그러나 믿음으로 선행을 행하는자는 천국의 주인이 되어 그곳에서 영생하리라

وَالَّذِينَ آمَنُوا وَعَمِلُوا الصَّالِحَاتِ أُولَٰئِكَ أَصْحَابُ الْجَنَّةِ هُمْ فِيهَا خَالِدُونَ ﴿٨٤﴾

83.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وَأَذًا أَحَدًا تَامِيمًا قَىٰ بَنِي إِسْرَائِيلَ لَا تَعْبُدُونَ

78-1) 글을 알지 못하여 구약의 내용을 읽지 못하고 단지 추측에 의해서만 구약의 진실을 이해하려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관용을 베풀것이라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 씨르. 제1권. p.57).

79-1) 모세에게 계시된 구약의 진리를 변경한 그들위에
2)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 점 하나라도 변경되거나 보완되거나 감소되거나 더하여 저서는 아니된다는 교훈을 계시하고 있으며 아부 알싸우드는 유대인들이 구약성서에 비친 선지자 무함마드에 관한 묘사를 변경하였다고 말하고 있다.(타르씨르 아비 알싸우드 94/1)

80-1)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자기들의 죄는 용서받고, 불지옥의 벌은 다른 백성들에게 있을 것이라며, 불의 재앙을 받더라도 자기들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기간이 칠일동안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58).

하사¹⁾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경배하지 말며 부모와 친척에게 고아와²⁾ 불우한 자들에게³⁾ 자선을 베풀고 사람에게겐 겸손하며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라 했거늘 너희중 소수를 제외하고는 의면하며 등을 돌리도다

84.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약을 하사¹⁾ 너희 백성들의 피를 흘려서도 앗되며 백성들의 일부를 너희 주거지로부터 추방해서도 아니된다 하였거늘 너희는 엄숙히 약속한 증인들이 아니더뇨

85. 그런후에도 서로 살생을 하고 주거지로부터 추방을 하며 죄악과 앙심을 조성하고 포로가 될 때는 보석금을 갈취하도다 실로 그들을 추방하는 것은 불법이며 성서의 일부만 믿고 일부를 불신하는 자¹⁾ 그들을 위한 현세의 보상은 무엇이겠느냐 실로 이생에서 치욕이 있을 뿐이며 심판의 날 엄한 응벌이 있을 것이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이라

86. 그들은 내세를 팔아 현세를 사는 자들이니 그들의 죄는 경감되지 않으며 어떤 도움도 없을 것이라

87.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서를¹⁾ 주었고 그를 이어 예언자들이 오

إِلَّا اللَّهَ سَوَّىٰ الْوَالِدِينَ إِحْسَانًا وَذِي الْقُرْبَىٰ
وَالْيَتَامَىٰ وَالْمَسْكِينِ وَقُولُوا لِلنَّاسِ حُسْنًا
وَأَقِيمُوا الصَّلَاةَ وَآتُوا الزَّكَاةَ ثُمَّ تَوَكَّلُوا
إِلَّا قَلِيلًا مِّنْكُمْ وَأَنتُمْ مُعْرِضُونَ ﴿٨٤﴾

وَإِذْ أَخَذْنَا مِيثَاقَكُمْ لَاسْفِكُونَ دِمَاءَكُمْ وَلَا تُخْرَجُونَ
أَنْفُسَكُمْ مِنْ دِيَارِكُمْ ثُمَّ أَقْرَرْتُمْ وَأَنتُمْ شَاهِدُونَ ﴿٨٥﴾

ثُمَّ أَنْتُمْ هَؤُلَاءِ تَقْتُلُونَ أَنْفُسَكُمْ وَتُخْرَجُونَ مِنْ دِيَارِكُمْ
مِنْ دِيَارِهِمْ تَطْهَرُونَ عَلَيْهِمْ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وَإِن
يَأْتَوْكُمْ سُورَىٰ لُغْوٌ وَهُمْ وَهُوَ مُحَرَّمٌ عَلَيْهِمْ إخراجُهُمْ
أَفْتَوِيهِمْ يَبْغِضُ الْكُتُبَ وَيَتَفَرَّقُونَ بَعْضُهُمْ جَزَاءُ
مَنْ يَفْعَلُ ذَلِكَ مِنكُمْ إِلَّا خِزْيًا فِي الْحَيَاةِ الدُّنْيَا وَيَوْمَ
الْقِيَامَةِ يُرَدُّونَ إِلَىٰ أَشَدِّ الْعَذَابِ وَمَا اللَّهُ بِغَافِلٍ عَمَّا
تَعْمَلُونَ ﴿٨٦﴾

أُولَٰئِكَ الَّذِينَ اشْتَرُوا الْحَيَاةَ الدُّنْيَا بِالْآخِرَةِ فَلَا يَحْقُقُونَ
عَنْهُمْ الْعَذَابُ وَلَا هُمْ يُنصَرُونَ ﴿٨٧﴾

وَلَقَدْ آتَيْنَا مُوسَى الْكِتَابَ وَقَفَّيْنَا مِنْ بَعْدِهِ بِالرُّسُلِ

83-1) 유대인들이여! 우리(하나님)가 너희 선조들과 성약한 것을 상기하라!

2) 야타마: 아버지가 별세한 어린아이

3) 마싸킨: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이 일용할 양식을 얻기 어려운 사람들

84-1) 서로가 서로를 살해하지 말라.

85-1) 구약(타우라)의 일부 규범만 믿고 일부 규범은 불신하는 사람

87-1) 구약성서

게 하였으며 마리아의 아들 예수에게 권능을 주어 성령으로²⁾ 그를 보호케 하였노라 너희들이³⁾ 바라지 않는 한 선지자가 왔을 때 너희들은 자태를 부리고 일부는 그것을 일삼고⁴⁾ 일부는 살인을 행한다 말이요⁵⁾

88. 이때 그들은 저희의 마음이 굳었나이다 라고 대답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함에¹⁾ 저주를 내리시니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라

89.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성서가 도래하였을 때¹⁾ 이는 이미 확증된 것이거늘²⁾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대한 승리라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그분이 왔을 때 그들은 그것을³⁾ 불신하였나니 이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⁴⁾

90. 자기의 영혼을 파는 사람과¹⁾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불신하는 자들에게²⁾ 하나님이 원하는 그분의 종에게 그분의 은혜가 내리지는 것을 시기하는 자들 위에 재앙

وَاتَيْنَا عِيسَى ابْنَ مَرْيَمَ الْبَيْتَ وَأَوَدَيْنَاهُ يَرُورَ الْقُدْسِ
 أَفَكُلَّمَا جَاءَهُمْ رَسُولٌ بِمَا لَا تَهْوَىٰ أَنفُسُكُمْ أَسْتَكْبَرْتُمْ
 فَكُفِّرُوا بِنِعْمِهِمْ وَكُفِّرُوا قَتْلَهُمْ ۗ ۞

وَقَالُوا قُلُوبُنَا غُلْفٌ ۚ بَلْ لَعَنَهُمُ اللَّهُ بِكُفْرِهِمْ
 فَقَالُوا لَا مَتَابُؤُمُونَ ۞

وَلَمَّا جَاءَهُمْ كِتَابٌ مِّنْ عِنْدِ اللَّهِ مُصَدِّقٌ لِّمَا مَعَهُمْ
 وَكَانُوا مِنْ قَبْلُ يَسْتَفْتِحُونَ عَلَى الَّذِينَ كَفَرُوا أَفَلَيَّ
 جَاءَهُمْ مَّا عَرَفُوا كَفَرُوا وَإِنَّ لَهُمْ لَعْنَةً
 اللَّهُ عَلَى الْكَافِرِينَ ۞

يَسْتَسْأَلُونَ شُرَٰهِيَةَ أَنفُسِهِمْ أَن يَكْفُرُوا وَإِنَّمَا أَنْزَلَ اللَّهُ بَيِّنَاتٍ
 أَنْ يُكْفَرَ اللَّهُ مِنْ فَضْلِهِ عَلَىٰ مَنْ يَشَاءُ مِنْ عِبَادِهِ ۗ

- 2) 가브리엘 천사, 신약성서인 인질 또는 살세포와 뼈등 형체가 형성되기 이전 예수의 영혼일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 3) 유대인
- 4) 모세와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 5) 요한이나 자카리아를 살해하였듯이

88-1) "쿠푸르"는 여러가지 뉴앙스를 갖고 있다. 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것, ② 하나님의 계시를 부정하는 것, ③ 하나님의 속성을 모독하는 것.

89-1) 그 성서는 마지막 선지자에게 계시된 꾸란을 말하며,
 2) 마지막 선지자는 구약에 기록되어 확증되고 있다.
 3)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 무함마드를 통해서 계시된 말씀
 4) 하나님은 마지막 선지자를 불신한 죄악으로 유대인들에게 저주를 내렸고 앞으로 그럴 것이
 라.

90-1) 유대인들
 2) 하나님께서 계시한 꾸란을 불신하는 자

이 있을 것이라³⁾ 그들은 분노에 분노를 초래하였으니 불신자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징벌이 있을 것이라

91. 하나님이 내린 계시를 믿으라 했을 때¹⁾ 우리에게 계시된 것을 믿나이다²⁾ 라고 대답하되 그 이후의 것은 그것이 사실임을 확증하면서도 불신하다³⁾ 그들이 믿는 자들이라면 그 이전의 선지자들을 왜 살해 하였는가 그들에게 물어보라

92. 모세가 예증들을 갖고 너희에게 왔으나 그가 없는 동안¹⁾ 너희는 송아지를 숭배했나니 너희는 우매한 자들이라

93. 하나님이 너희와 성약을 한 것과 너희들 위로 시나이 산을 솟게하고 너희에게 내려준 것을 지키며 그 율법에 귀를 기울이라 했을 때 우리는 들었으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거절하다²⁾ 라고 말하니 그들은 자신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속에 암송하지 가루의¹⁾ 물을 마셔야만

مَاءًا وَيَعْصَبُ عَلٰٓ غَضَبٍ ۗ وَالْكٰفِرِيْنَ عَذَابٌ مُّهِينٌ ﴿٩١﴾

وَإِذْ اٰتَيْنَا لَهُمُ الْاِنۡجِيْلَآءَ اَنۡزَلۡنَا اللّٰهَ قَالُوۡا نُوۡمِنُ بِمَاۤ اُنۡزِلَ عَلَیۡنَا وَنَكۡفُرُوۡنَ بِمَا وَرَاۡءَہٗ ۗ وَہُوَ الْحَقُّ مُصَدِّقًا لِّمَا مَعَهُمْ ؕ قُلۡ فَلِمَ تَقۡتُلُوۡنَ اَنْبِيَآءَ اللّٰهِ مِنْ قَبۡلِ ۙ اِنۡ كُنۡتُمْ مُّؤۡمِنِیۡنَ ﴿٩٢﴾

وَلَقَدْ جَاءَکُمۡ مُّوۡسٰی بِالۡبَيِّنٰتِ ثُمَّ اَعۡتَدَۡتُمُ الْعِجۡلَ مِنْۢ بَعۡدِہَا ۗ وَاَنْتُمْ ظٰلِمُوۡنَ ﴿٩٣﴾

وَإِذْ اٰخَذْنَا مِیۡثَاقَکُمۡ وَرَفَعْنَا فَوَاقِکُمُ الطُّوۡرَ ۗ خُذُوۡا مَا اٰتَیۡنَکُمۡ بِقُوۡۡۃٍ وَّاسۡمَعُوۡۤا قَالُوۡا سَمِعۡنَا وَعَصَیۡنَا ۗ وَاۡنۡشَرۡبُوۡۤا فِیۡ قُلُوۡبِہِمُ الْعِجۡلَ یَکۡفُرُوۡہُمۡ ۗ قُلۡ یٰۤاَسۡمَآءُ مَا مَرۡکُمۡ بِہٖۤ اِنۡمَاۤ اُنۡکُمۡ اِنۡ کُنۡتُمْ مُّؤۡمِنِیۡنَ ﴿٩٣﴾

3) 유대인들의 인종적 오만은 하나님 선택한 하나님의 종복을 통해서 계시된 진리를 불신하였다. 유대인들만이 신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보는 오만! 어떻게 한 민족 또는 한 백성만이 신의 선택을 받도록 되어있단 말인가?

91-1) 하나님께서 계시한 꾸란을 믿고 따르라 하니,
2) "우리에게 계시된 구약으로 충축하다"라고 그들은 대답하였도다.
3) 꾸란의 계시가 무함마드를 통하여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그들 성서인 구약에 기록되었음을 그들이 확증하면서.

92-1)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으로 시나이 산상으로 가고 없는 동안.

93-1) 시나이 산상에서 십계명과 율법이 계시된 후 백성들은 엄숙히 지킬 것을 약속하였다. 그런데 모세가 산상으로 간후 그가 없는 동안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였다. 이 모습을 본 모세는 화가났다. "그는 그들이 만든 암송아지를 가져가 그것을 불에 태운후 가루로 만들어 물위에 뿌린다음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그것을 마시도록 했으니"(출애굽기, xxxiii. 20), 이 사건이 꾸란에서 비유하여 묘사되고 있다. 암송아지는 불신과 오만의 상징이

했더라 일러가로되 너희가 어떤 믿음을 가졌다 해도 너희의 믿음에는 저주가 있으리라

94. 일러가로되 하나님 편에 있는 내세의 집이 누구도 들어 갈 수 없는 너희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너희가 진실한 자들이라면 천국으로 이르는 죽음을 동경하라

95. 그러나 그들은 전에 그들의 손으로 저지른 죄의 대가로 결코 죽음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 실로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노라

96. 그대는 그들의¹⁾ 현세 삶에 대한 탐욕과 불신자들의 탐욕을 발견하라! 그들 각자는 천년을 장수하고자 하나 그 장수는 그들을 제앙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라²⁾

97. 일러가로되 가브리엘 천사의¹⁾

قُلْ إِنْ كَانَتْ لَكُمْ الدَّارُ الْآخِرَةُ عِنْدَ اللَّهِ خَالِصَةً مِّنْ دُونِ النَّاسِ فَتَمَتَّعُوا الْمَوْتِ إِنْ كُنْتُمْ صَادِقِينَ ﴿٩٤﴾

وَ لَنْ يَسْتَمْتُوا أَبَدًا إِنَّمَا قَدَّمَ تَأْيِيدِي لَهُمْ وَ اللَّهُ عَلَيْهِمْ يَا ظَالِمِينَ ﴿٩٥﴾

وَ لَتَجِدَنَّ لَهُمْ أَحْرَصَ عَلَى حَيَاتِهِمْ وَ مِنَ الَّذِينَ أَشْرَكُوا يَوْمَئِذٍ أَحَدٌ هُمْ لَوْ يَعْتَرِفُ الْفَسَقَةَ وَ مَا هُوَ بِمَنْزِلِهِ مِنَ الْعَذَابِ إِنْ يُعْتَرَفُ وَ اللَّهُ بَصِيرٌ بِمَا يَعْمَلُونَ ﴿٩٦﴾

قُلْ مَنْ كَانَ عَدُوًّا لِجِبْرِيْلَ فَإِنَّهُ نَزَّلَهُ عَلَى قَلْبِكَ

고 물에 뿌려진 그 암송우지의 가루는 독약과 같은 것이며, 유대인들은 그들이 불신한 죄의 대가로 물에 뿌려진 가루를 마셔야만 했다.

96-1) 유대인

2) 이 말씀이 계시된 동기는 다음과 같이 전하여지고 있다.

유대인들이 선지자에게 말할길, “주님으로부터 천사들 가운데 한 천사가 메시지와 계시를 가져오지 아니하면 예언자가 아닌데 당신의 천사는 누구요? 우리가 따르고자 하오”라고 하니 선지자께서 말씀하시길, “가브리엘” 천사라고 대답했다. 그들이 말하길 “가브리엘은 전쟁과 살인을 일삼은 자로써 우리의 적이다! 만일 당신이 비를 내리게 하고 자비를 가져온 “미카엘” 천사가 당신께 왔다고 했다면 우리는 당신을 따를 것이오”라고 하자 이 말씀이 계시되었다(타프세르 알꾸르투비 36/2).

97-1) 무함마드 시절 일부 유대인들은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을 가지고 무함마드에게 나타났을 때, 무슬림들의 믿음을 조롱하였다. “미카엘 천사는 이스라엘 자손을 대변하는 가장 훌륭한 왕자(다니엘. xii. 1)로 불리웠고, 가브리엘 천사의 출현은 두려움을 자아냈으니”(다니엘. viii. 16-17) 이러한 구실로 미카엘 천사는 그들의 친구였고 가브리엘 천사는 자기들의 적이라는 구실은 단순히 천사들과 예언자들을 불신한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한 것과 다를바 없었다.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한 천사를 믿고 다른 천사를 믿으려 하지 않는 그들의 신앙은 온전히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었다.

적은 하나님의 적이라 말하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그대에게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꾸란을 계시하셨나니 그것은 이전에 확증되었노라 그것은 믿음이 진실한 자의 길이요 복음이니라

98.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과 가브리엘과 미카엘에게의 적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적이거늘 실로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의 대적이시라

99. 하나님이 그대에게 분명한 징표를 보냈으니 이단자들 외에는 이를 불신하지 않으리라

100. 그들이 성약을 할 때마다 그들 가운데 일부가 그것을 불신했으니 그들 대다수는 믿음이 없었더라

101.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한 선지자가¹⁾ 왔을때 구약에서 확증 되었노라 그런데 그 성서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서를 불신하며²⁾ 뒤에서는 모르는 척 하였더라

102. 그들은 사탄들이 솔로몬 왕의 권능에 대항하여 허위 진술한 것을 따랐노라 솔로몬은 이를 불신하였으나 사탄들은 거역하며 백성들에게 요술¹⁾과 또 바벨왕국 시절의 하루트와 마루트 두 천사에

يَاذُنِ اللَّهِ مَصْدَقًا لِمَا بَيْنَ يَدَيْهِ وَهُدًى وَبُشْرَى
لِلْمُؤْمِنِينَ ﴿٩٨﴾

مَنْ كَانَ عَدُوًّا لِلَّهِ وَمَلَائِكَتِهِ وَرُسُلِهِ وَجِبْرِيلَ
وَمِيكَائِيلَ فَإِنَّ اللَّهَ عَدُوٌّ لِلْكَافِرِينَ ﴿٩٩﴾

وَلَقَدْ أَنْزَلْنَا إِلَيْكَ الْكِتَابَ وَالْحِكْمَ وَالْحِكْمَ بِالْكِتَابِ
الْفَيْسُوقِ ﴿١٠٠﴾

أَوْ كَمَا عَاهَدُوا عَهْدًا آتَيْنَاهُمْ مِنْهُم مِّنْ قَبْلُ أَكْثَرَهُمْ
لَا يُؤْمِنُونَ ﴿١٠١﴾

وَلَمَّا جَاءَهُمْ رَسُولٌ مِّنْ عِنْدِ اللَّهِ مُصَدِّقٌ لِّمَا مَعَهُمْ
تَبَدَّلَ قَوْمٌ مِّنَ الَّذِينَ أُوتُوا الْكِتَابَ لِيُكْتَبَ اللَّهُ وَرَاءَهُمْ
ظُهُورُهُمْ كَانَهُمْ لَا يَعْلَمُونَ ﴿١٠٢﴾

وَالشَّجَرَةَ مَا تَتَلَوُا الشَّيْطَانُ عَلَى مَلِكٍ سُلَيْمَانَ
وَمَا كَفَرَ سُلَيْمَانُ وَلَكِنَّ الشَّيْطَانَ كَفَرَ وَالْيَعْلَمُونَ
النَّاسِ السَّحَرَةَ وَمَا أَنْزَلْنَا عَلَى الْمَلِكِينَ بِبَابِلَ

101-1) 선지자 무함마드

2) 이 성서는 꾸란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으나 본 절에서는 구약으로 풀이되고 있다. 즉 구약을 불신하였다 함은 최후의 선지자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된 그 말씀을 불신하였다는 뜻으로 본다.

102-1) 마술의 방법과 관습의 행위

게 내려졌던 것 같은 것을²⁾ 가르쳤으나 천사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그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말하길 우리는 단지 시험에 들었으니 하나님의 인도를 불신하지 말라 이들로로부터 백성들은 남자와 아내를 구별하는 불화의 요소를 배웠으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들은 어느 누구도 해치지 못하노라 그리고 그들은 해치는 것과 그들에게 유용하지 않는 것도 배웠노라 유대인들은 요술을 선택한 자들이 내세에서 행복을 가질 수 없다는 것도 배웠노라 그들의 영혼을 팔아버린 그들위에 저주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으리라³⁾

103. 만일 그들이 믿음을 갖고 악을 멀리하였다면 그들에게는 마술을 배운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보상이 있었을 것이라

104. 믿는자들이여 선지자에게 애매모호한 말을 하지 말며 존칭어로 말하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라 믿음이 없는 자들에겐 고통스러운 벌이 있을 것이라¹⁾

105. 성서의 백성들 가운데 믿음

هَارُونَ وَمَلُؤْتِ وَمَا يَلْمِئِينَ مِنْ آخِذِي حَتَّى يَقُولُوا إِنَّمَا
نَحْنُ فِتْنَةٌ فَلَا تَكْفُرْ فَيَعْلَمُونَ مِنْهَا مَا يَتَذَكَّرُونَ
بِهِ بَيْنَ الْمَرْءِ وَرَوْحِهِ وَمَا هُمْ بِضَارِّينَ بِهِ مِنْ
أَحَدٍ إِلَّا يَأْذِنُ اللَّهُ وَيَعْلَمُونَ مَا يَضُرُّهُمْ
وَلَا يَنْفَعُهُمْ وَلَقَدْ عَلِمُوا لَمَنِ اشْتَرَاهُ مَالَهُ
فِي الْآخِرَةِ مِنْ خَلَاقٍ وَلَوْلَيْ كَيْدٌ مَا شَرَوْا بِهِ
أَنْفُسَهُمْ لَوْ كَانُوا يَعْلَمُونَ ﴿١٠٣﴾

وَلَوْ كَانُوا يَعْلَمُونَ ﴿١٠٣﴾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لَا تَقُولُوا رَاعِنًا وَتَقُولُوا انظُرْنَا
وَاسْمِعُوا وَلْيُكْفِرِينَ عَذَابٌ لِيْمٌ ﴿١٠٤﴾

مَا يَتَذَكَّرُ الَّذِينَ كَفَرُوا مِنْ أَهْلِ الْكِتَابِ وَلَا الْمُشْرِكِينَ

2) 바벨 왕국 쿠파의 땅에 거주 했던 하루트 왕과 마루트를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시 했던것(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69).

3) 이 계시는 선지자 무함마드가 솔로몬을 언급했을 때 유대인의 교구장들은 “다윗의 아들이 예언자였다고 주장하는 무함마드가 이상하지 않는가!? 그는(솔로몬) 마술장이가 아니었는가?”라고 하자. (솔로몬이 마술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탄들이 마술을 가르쳤느니라)라고 계시가 내려졌다.

이 당시는 여러 가지의 마술이 번성하였던 시기로 유대인들은 예언자들을 요술장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 천사 하룬과 마룬을 보내어 백성에게 마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요술과 기적을 구별하도록 하였다(타프씨르 알꾸르두비 41/2).

104-1) “라~이나”를 “애매 모호한”말로 표현하였다. “라~이나”는 “리아~야”에서 유래한 것으로 “인류의 복지를 보살핀다”는 뜻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뜻을 조소하기 위하여 철자를 생략하여 “루우~나”에서 파생되고 있는 “라~이나”로 바꾸어 “어리석음”이란 뜻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 없는 자들이나 불신자들은 그들 주님으로부터 너희들 위에 복음이 계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이 선택하여 자비를 베푸시니 하나님의 은총은 충만하심이라

106. 어떤 말씀도 폐기하지 아니하며 망각케하지 아니하되 보나 나온 혹은 그와 동등한 말씀으로 대체하시나니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심을 너희는 모르느뇨¹⁾

107. 천지가 하나님께 있음을 너희는 알지 않느뇨 그분 외에는 보호자도 원조자도 없노라

108. 모세가 전에 질문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의 선지자에게 질문을 하고자 하느뇨 믿음을 버리며 불신하는 자는 바른 길로부터 방향하노라

109. 많은 성서의 백성들은¹⁾ 너희가 믿음을 가지자 불신하기를 원하도다 이는 진실이 그대들에게 명시되매 그들 스스로가 시기하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أَنْ يُنَزَّلَ عَلَيْكُمْ مِنْ خَيْرٍ مِنْ رَبِّكُمْ وَاللَّهُ يَخْتَسِرُ
بِرَحْمَتِهِ مَنْ يَشَاءُ وَاللَّهُ ذُو الْفَضْلِ الْعَظِيمِ ⑤

مَا تَسْأَلُونَ مِنْ آيَةٍ أَوْ نُنزِّلُهَا عَلَيْكُمْ فَمَنْ يَكْفُرْ بِهَا الْكُفْرَ
تَعْلَمَ أَنَّ اللَّهَ عَلَى كُلِّ شَيْءٍ قَدِيرٌ ⑥

أَلَمْ تَعْلَمُوا أَنَّ اللَّهَ لَهُ مَلَكُ السَّمَوَاتِ وَالْأَرْضِ
وَمَا لَكُمْ مِنْ دُونِ اللَّهِ مِنْ قَوْلٍ وَلَا نَصِيرٍ ⑦

أَمْ رَبُّنَا الَّذِي أُنزِلَ فِيهِ الْقُرْآنُ كَمَا سَأَلَ الْمُؤْمِنِينَ
مِنْ كَثِيرٍ وَمَنْ يَتَّبِعِ الْكُفْرَ بِالْإِيمَانِ فَقَدْ ضَلَّ
سَوَاءَ السَّبِيلِ ⑧

وَذَكِّرْهُمْ أَنْ هَلِ الْكُتُبُ أَوْ يُرِيدُونَ كُفْرًا مِنْ بَعْدِ
إِيمَانِهِمْ كَفَرُوا إِحْسَادًا مِنْ عِنْدِ أَنْفُسِهِمْ مِنْ بَعْدِ
مَا بَيَّنَّ لَهُمُ الْحَقَّ فَاعْتَمُوا وَاصْطَوْأَتْهُ يَأْتِي

106-1) 시대가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모세에게 계시된 말씀이나 예수나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모든 말씀은 그 당시의 필요성과 시대의 요구에 따라 말씀의 표현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하나님 말씀의 율법은 다를 수가 없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 계시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한 획이라도 폐기, 보완되거나 삭제되거나 변조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수차례 경고되고 있다.

한편 꾸란 2장 115절의 말씀이 2장 144절(기블라 : 기도의 방향)의 말씀으로 폐기된 것처럼 보는 것은 큰 잘못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한 장소에만 계시다고 믿지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존재한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보다 나은 또는 동등한 말씀으로 대체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절이 계시된 동기는 다음과 같이 전하여지고 있다. 유대인들이 말하길, “무함마드의 명령이 마음에 드는가? 그와 추종자들에게 명령도 했다가 금지도 하고 또 그들에게 서로 다르게 명령하니, 오늘은 이 말을 하고 내일은 그 말을 취소하니 이것은 꾸란이 아니고 무함마드 자신의 얘기가 아닌가”라고 하자 이 말씀이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사파와트 타파-씨르, 제1권, p.71).

109-1) 유대인과 기독교인

때까지 용서하고 간과 할지니 진실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시니라

110.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라¹⁾ 너희 스스로를 위해 자선을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상 할 것이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

111.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그들은 말하나 그것은 그들의 상상에 불과하다 일러가되 그들이 진실이라면 증거를 제시하라 말하라

112. 그러나 하나님께 귀의하여¹⁾ 자선을 베푼다면 주님으로부터 보상이 있을 것이며 그들에게는 두려움도 슬픔도 없을 것이라

113.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진실이 아닌 것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고¹⁾ 기독교인은 유대인들이 진실이 아닌 것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며²⁾ 성서를 읽고 있도다³⁾ 그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말처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도 그렇게들 말하도다⁴⁾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

اللَّهُ بِأَمْرِهِ إِنَّ اللَّهَ عَلَى كُلِّ شَيْءٍ قَدِيرٌ ﴿١١٠﴾

وَأَقِيمُوا الصَّلَاةَ وَآتُوا الزَّكَاةَ وَمَا تَقَدَّمُوا لَكُمْ مِنَ الْبَنَاتِ حَيْرٌ لَكُمْ وَعَدَدُ اللَّهِ إِنَّ اللَّهَ بِمَا تَعْمَلُونَ بَصِيرٌ ﴿١١١﴾

وَقَالُوا لَنْ نَدْخُلَ الْجَنَّةَ إِنْ أَمْنَ كَانَ هُودًا أَوْ نَصْرًا إِنَّكَ لَمِنَ الْكَاذِبِينَ ﴿١١٢﴾

بَلْ مَنْ أَسْلَمَ وَجْهَهُ لِلَّهِ وَهُوَ مُحْسِنٌ فَلَهُ أَجْرُهُ عِنْدَ رَبِّهِ وَلَا خَوْفٌ عَلَيْهِمْ وَلَا هُمْ يَحْزَنُونَ ﴿١١٣﴾

وَقَالَتِ الْيَهُودُ نَبِيِّنَا عَلَى سَنَى وَقَالَتِ النَّصْرَى لَبِيسَ الْيَهُودِ عَلَى سَنَى وَهُمْ يَتَّبِعُونَ الْكِتَابَ كَذَلِكَ قَالَ الَّذِينَ لَا يَعْلَمُونَ مِثْلَ قَوْلِهِمْ قَالَتْ إِنَّكُمْ يَعْزَمُونَ بِهَذَا يَوْمَ الْقِيَامَةِ فِيهِمَا كَانُوا فِيهِ يَخْتَلِفُونَ ﴿١١٣﴾

110-1) 육체적 신앙의 상징인 예배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쓰여질 재물을 바쳐 실천하는 신앙,

112-1) 하나님을 믿고 선지자를 따르며

113-1) 유대인들은 예수를 불신하고 기독교는 원래의 종교가 변질된 종교라 말하고(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74-75)

2) 기독교인들은 반대로 유대교가 본래의 것이 아닌 것이라 말하고 있다.

3) 유대인은 예수를 불신하면서 그들의 종교를 이교도라 말하고, 기독교들은 모세를 불신하면서 그들의 종교를 불신하였다. "이브누 압바쓰"는 이 말씀이 제시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나즈란 백성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선지자를 찾아 왔을때 유대교의 교구장들은 선지자앞에서 논쟁을 하였다. 이때 "라피오 이븐 하르말라"가 말하길, "너희들은 이교도들이다."라고 하면서 예수와 신약을 불신하며, 기독교인들 중의 한 남자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길, "너희들이야말로 이교도들이다"라고 하면서 모세와 구약을 불신했을때 하나님께서 이 절을 계시하였다(무크타싸르 이브누 까씨르 108/1).

의 날 그들이 달리하는 것에 대해 심판을 하실 것이라

114. 하나님의 사원에서 하나님을 염원하는 것을 막는것 보다 더 우매한 자 누구도 그들의 질투가 그들을 파멸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을 공포로 몰아 넣으며¹⁾ 현세에서는 수치와 내세에서는 큰 응벌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

115. 동쪽과 서쪽이 하나님에게 있나니 너희가 어느 방향에 있던 간에 하나님의 앞에 있노라 진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이라¹⁾

116. 그들은¹⁾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으니 그분께 찬미를 드리라고 말하나 그렇지 않노라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며 이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노라²⁾

117.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나니 어떤 목적을 두시고 있어라 말씀하시니 거기에 있더라

118. 무지한 자들은 이렇게 말하도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 않는가 왜 우리에게 계시

وَمَنْ أَظْلَمُ مِمَّنْ مَنَعَ مَسْجِدَ اللَّهِ أَنْ يُذَكَّرَ فِيهَا اسْمُهُ
وَسَعَى فِي خَرَابِهَا، أُولَئِكَ مَا كَانَ لَهُمْ أَنْ يَدْخُلُوهَا
إِلَّا خَافِيْنَ ۗ لَهُمْ فِي الدُّنْيَا خِزْيٌ وَلَهُمْ فِي الْآخِرَةِ
عَذَابٌ عَظِيمٌ ﴿١١٤﴾

وَاللَّهُ الْمَشْرِقُ وَالْمَغْرِبُ، فَأَيُّ مَآ تُوَفَّقْتُمْ وَجْهَ اللَّهِ إِنَّ
اللَّهَ وَاسِعٌ عَلِيمٌ ﴿١١٥﴾

وَقَالُوا اتَّخَذَ اللَّهُ وِدًّا ۗ وَالَّذِينَ يُمِئُونَ لِلْكَافِرِينَ مَآ فِي السَّمَوَاتِ
وَالْأَرْضِ كُلُّ لَهُ فَنِيَتُونَ ﴿١١٦﴾

يَدْبِعُ السَّمَوَاتِ وَالْأَرْضِ ۗ وَإِذَا قَضَىٰ أَمْرًا فَإِنَّمَا يَقُولُ
لَهُ كُنْ فَيَكُونُ ﴿١١٧﴾

وَقَالَ الَّذِينَ لَا يَعْلَمُونَ لَوْلَا يُكَلِّمُنَا اللَّهُ أَوْ تَأْتِينَا

4) 그 성서의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를 불신했듯이 마찬가지로 아랍인 가운데 불신자들은 무함마드를 불신했었다.

114-1) 사원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는 멸망하니 그것은 로마가 예루살렘에서, 메카 쿠라이쉬족이 카오바 신전에서 무슬림들의 신앙을 막아 그들이 멸망한 것과 다름바 없다.

115-1) 이 말씀은 "끼블라"(예배의 방향)를 잃어버린 자에게 계시된 것으로,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 아니 계시곳이 없기 때문에 여행중이거나 다른 이유로 말미암아 예배의 방향을 알 수 없을 경우에 자기가 서있는 방향을 향해서 예배를 행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116-1) 유대인과 기독교인

2)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천국이 자기들 것이라 주장하면서, 유대인은 "아저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고,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며, 불신자들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서로 주장하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부정하였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76).

를 내리지 않는가 라고 마치 이전의 우매한 자들이 그랬듯이 말하니 그들의 마음이 닳았도다 하나님은 신념을 가진 백성을 위해 계시를 내리셨노라

119. 하나님은 그대를 진리의 복음자로서 그리고 경고자로서 보냈나니 지옥의 동반자들에게 관하여는 책임은 없노라¹⁾

120.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그대를 기꺼이 맞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앙을 따르라 할 것이니 하나님의 복음이 길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라 그대에게 내려준 지혜 이후에도 그들이 그들의 욕망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받지 못할것이라

121. 성서를 받은 그들이¹⁾ 이슬람에 귀의하여 올바르게 성서를 낭송할 때 그들이야말로 믿음을 올바르게 가진 신앙인들이며 이를 불신한자 멸망하니라

122.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너희들에게 베푼 나의 은혜와 너희들을 다른 백성위에 두었던 나의 은혜¹⁾를 기억하라

123. 어느 누구도 서로가 서로에게 유용하지 않고 어떤 보상도 수

اِيَةً كَذَلِكَ قَالَ الَّذِينَ مِنْ قَبْلِهِمْ مِثْلَ قَوْلِهِمْ تَشَابَهَتْ قُلُوبُهُمْ قَدْ بَيَّنَّا الْآيَاتِ لِقَوْمٍ يُوقِنُونَ ﴿١١٩﴾

إِنَّا أَرْسَلْنَاكَ بِالْحَقِّ بَشِيرًا وَنَذِيرًا وَلَا تُسْئَلُ عَنْ أَصْحَابِ الْجَحِيمِ ﴿١٢٠﴾

وَلَنْ تَرْضَى عَنْكَ الْيَهُودُ وَلَا النَّصَارَى حَتَّى تَتَّبِعَ مِلَّتَهُمْ قُلْ إِنْ هَدَى اللَّهُ هُوَ الْهُدَىٰ وَلَئِنْ أَبْعَثَ هَؤُلَاءِ خِطَابًا أُخْرَىٰ جَاءَكَ مِنَ الْعِلْمِ مَا لَكَ مِنَ اللَّهِ مِنْ وَاوٍ لَئِنْ لَمْ يَنْصُرِكُ إِلَّا يَنْصُرِكْ أَلَيْسَ اللَّهُ بِذِي الْفَضْلِ الْعَظِيمِ ﴿١٢١﴾

الَّذِينَ اتَّخَذُوا الْكِتَابَ يَتْلُونَهُ حَقَّ تِلَاوَةٍ أُولَئِكَ يُؤْمِنُونَ بِهِ وَمَنْ يَكْفُرْ بِهِ فَأُولَئِكَ هُمُ الْخَافِرُونَ ﴿١٢٢﴾

يَذِكُرْ إِسْرَائِيلَ إِذْ كَرَّمْنَا نُوْحًا إِذْ كَانَتْ أَقْصَابُ الْكَلْبِ عَلَيْهِمْ وَآتَىٰ فَطَّمَسْنَا عَلَيْهِمُ الْعَيْنَ وَآتَىٰ فَطَّمَسْنَا عَلَيْهِمُ الْعَيْنَ ﴿١٢٣﴾

وَأَنْقَرُوا يَوْمَئِذٍ عَلَىٰ عَجْرِي نَفْسٌ عَنْ نَفْسٍ سَيْنَاءَ وَلَا يُقْبَلُ مِنْهَا

119-1) 믿음이 진실한 신앙인들을 위한 복음으로써, 불신자들을 위한 경고로써 이 진리를 보내며, 그대가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한 후에는 그들이 믿음을 갖든 또는 불신하든 그대의 책임이 아니라.

121-1) 성서의 백성(구약을 믿는 유대인과 신약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인식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역사를 읽어 올바른 신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스라엘(야곱)이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에게만 순종한 교인이었다. 또한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상경의 장소로 "카오바" 신전을 세워 전 인류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중심지로 만들었던 것이다.

122-1) 모세 시대에 있어 하나님을 경배한 이들에게 베푼 은혜

락되지 아니하며 어떤 중재도 효용이 없으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날을 두려워 하라

124. 상기하라¹⁾ 주님이 명령으로써 아브라함을 시험할때 그는²⁾ 그것들을 이행하였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사 보라 내가 너를 인류의 지도자로 임명하도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의 후손으로부터 지도자들이 있을 것입니까 물으니 말씀하사 나의 약속은 우매한 자들을 포함하지 않으리라 하시더라

125. 상기하라 하나님은 그 집을¹⁾ 인류의 안식처 및 성역으로 만들었으니 기도를 드리기 위해 아브라함이 멈춘 그곳을 경배의 장소로 택하라 또한 신전을 도는 사람과²⁾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을 위해 나의 집을 정화할 것을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에게 명령하였노라

126. 아브라함이 기원하였더라 주여 이곳을 평화로운 곳으로 하여 주소서¹⁾ 하나님을 믿고 내세를 믿는 이들에게 풍성한 과실들을 주옵소서²⁾ 이에 하나님이 말씀하

عَدْلٌ وَلَا تَنْفَعُهَا شَفَاعَةٌ وَلَا كُمْ يُبْصِرُونَ ﴿٢٤﴾

وَاذِ ابْتَلَىٰ إِبْرَاهِيمَ رَبُّهُ بِكَلِمَاتٍ فَأَتَمَّتْهُنَّ قَالَ إِنِّي جَاعِلُكَ لِلنَّاسِ إِمَامًا قَالَ وَمِنْ ذُرِّيَّتِي قَالَ لَا يَنْتَابِلُ الْفَالْسِينَ ﴿٢٥﴾

وَأَدْجَعْنَا الْبَيْتَ مَثَابَةً لِّلنَّاسِ وَأَمَّا الْوَالِدُ الْوَالِدُ إِلَىٰ رَبِّهِمْ وَمَنْ يَدْعُنَا إِلَىٰ آلِهِمْ وَاسْمِعِينَ أَنْ يَطَّهَّرُوا بَيْتِي لِلطَّائِبِينَ وَالْعُكَيْبِينَ وَالرُّكُوعِ السُّجُودِ ﴿٢٥﴾

وَإِذْ قَالَ إِبْرَاهِيمُ رَبِّ اجْعَلْ هَذَا الْبَلَدَ آمِنًا وَارْدُ إِلَىٰ أَهْلِهِ مِنِ النَّارِ مَنْ آمَنَ مِنهُمْ بِاللَّهِ وَالْيَوْمِ الْآخِرِ قَالَ وَمَنْ كَفَرَ فَأُمِّدُهُمْ فِيهَا فَاصْطَوْا إِلَىٰ عَذَابِ النَّارِ وَبِئْسَ الْمَصِيرُ ﴿٢٦﴾

124-1)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 되었지만 앞으로 나오는 우리말의 상기하라는 말은 무함마드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라는 뜻이며 "그대"는 모두가 최후의 선지자 무함마드를 가르킨다.

2) 아브라함

125-1) "카오바" 신전의 건축은 아브라함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신전은 다음 몇가지 의의를 갖고 있다.

- ① 그곳은 아랍부족들의 상업 중심지, 시 낭송, 강연장 및 경배하는 중심지였고,
- ② 그곳은 성역이었으므로 어떤 일정한 시기에는 그 성역안에서 싸움이나 무기 반입이 금지되었고 살생도 금지되었다. 그것은 모세 율법시대에 살인자들이 은신 할 수 있었던 은신처와도 같았고(민수기. xxxv. 6), 또는 중세 유럽에서 범인들을 추척할 수 없었던 성역과도 같은 곳이었다.
- ③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였으며 오늘날까지도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던 장소로 보이는 아브라함 신전이 남아있다.

126-1) "이곳은" 맥카를 말하며,

2) "풍성한 과실들"이란, 맥카는 돌산의 계곡에 자리잡은 불모지였으므로 현세의 물질적변영을 추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불신자들을 불지옥으로 보낸다"는 계시로 미루어

사 불신하는 자들을 당분간 만족하게 하다가³⁾ 불지옥으로 비참한 여행이 되게 하리라

127.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그 집의 주춧돌을 세우며 주어 저희들로부터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소서 주어 당신이야 말로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옵니다

128. 주어 저희가 무슬림으로서 당신께로 귀의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 후손들도 무슬림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당신께로 귀의케 하여 주소서 당신을 경배하는 방법을 알려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관용을 베푸소서 당신은 진실로 너그럽고 자비하십니다

129. 주어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성서와 지혜를 가르쳐¹⁾ 그들을 당신께로 인도할 선지자를 보내 주소서 그리고 그들을 청결케하여 주소서 진실로 주님은 위대하시고 지혜로 충만하십니다

130.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반하는 자 곧 자기 자신을 조롱하는 것과 같하니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시 세상에 보냈으니 그는 내세에서 정의의 편에 있을 것이라

131. 주님께서 내게로 귀의하라 고¹⁾ 말씀하사 나는 만유의 주이신 주님께로 귀의했나이다 라고 하더라

وَإِذْ يَرْفَعُ إِبْرَاهِيمُ الْقَوَاعِدَ مِنَ الْبَيْتِ وَإِسْمَاعِيلُ رَبَّنَا تَقَبَّلْ مِنَّا إِنَّكَ أَنْتَ السَّمِيعُ الْعَلِيمُ ﴿١٢٧﴾

رَبَّنَا وَاجْعَلْنَا مُسْلِمِينَ لَكَ وَمِنْ ذُرِّيَّتِنَا أُمَّةً مُسْلِمَةً لَكَ وَأَرِنَا مَنَاسِكَنَا وَتُبْ عَلَيْنَا إِنَّكَ أَنْتَ التَّوَّابُ الرَّحِيمُ ﴿١٢٨﴾

رَبَّنَا وَابْعَثْ فِيهِمْ رَسُولًا مِنْهُمْ يَتْلُو عَلَيْهِمْ آيَاتِكَ وَيُعَلِّمُهُمُ الْكِتَابَ وَالْحِكْمَةَ وَيُزَكِّيهِمْ إِنَّكَ أَنْتَ الْعَزِيزُ الْحَكِيمُ ﴿١٢٩﴾

وَمَنْ يَدْعُبْ عَن قَوْلِ إِبْرَاهِيمَ الْأَمِينِ سَفِهَ نَفْسَهُ وَلَقَدْ اصْطَفَيْنَاهُ فِي الدُّنْيَا وَإِنَّا فِي الْآخِرَةِ لَمِنَ الصَّادِقِينَ ﴿١٣٠﴾

إِذْ قَالَ لَهُ رَبُّهُ أَسْلِمْ قَالَ أَسْلَمْتُ لربِّ الْعَالَمِينَ ﴿١٣١﴾

보아서 “내세의 번영과 행복”을 의미 할 수 있다. 이슬람은 현세의 행복과 내세의 행복을 함께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 3) “당분간 만족케 한다”함은 현세란 내세를 향하여 잠깐 지나가는 곳이므로 현세에서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적 양식을 주나 영원히 사는 내세에서는 불신자들에게 지옥의 벌이 온다는 뜻

129-1) “지혜”는 무함마드의 전통, 신앙에 관한 지식, 이슬람법과 규범을 가르킨다.

132.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들에게 그의 종교를 따르라 했으며 야곱도¹⁾ 그랬도다 실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신앙을 선택하여 주셨나니²⁾ 그 안에서 무슬림으로 일생을 마치라

133. 야곱이 죽음에 이룰때 너희가 지켜보고 있었나니 야곱이 그의 자손들에게 내 다음에 너희는 무엇을 경배할 것인가 라고 물으니 당신의 신이며 당신의 선지자인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의 신인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라 대답하더라

134. 이들은 지나가버린 민족이라 그들의 것은 그들이 얻은 것이요 너희들의 것은 너희들이 얻은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에 관해서 질문을 받지 않을 것이라

135. 그들이 말하길¹⁾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그러하면 너희가 옳은 길로 인도되리라 일러가므로 우리는 가장 올바른 아브라함의 종교를 따르노라 그분은 우상숭배자가 아니었노라²⁾

136. 말하라¹⁾ 우리는 하나님을

وَوَضِيَ بِهَا إِلَهُهُمْ بَيْنَهُ وَيَعْقُوبَ يَبْنِي إِنَّ اللَّهَ اصْطَفَى لَكُمُ الدِّينَ فَلَا تَمُوتُوا إِلَّا وَأَنْتُمْ مُسْلِمُونَ ﴿١٣٢﴾

أَمَرَكُمْ سُوءَ سَهْدٍ إِذْ حَضَرَ يَعْقُوبَ الْمَوْتَ إِذْ قَالَ لِبَنِيهِ مَا تَعْبُدُونَ مِنْ بَعْدِي قَالُوا نَعْبُدُ إِلَهَكَ وَالِاهُ إِلَهُكَ إِلَهُهُمْ وَاسْتَجِيبْ لِقَوْلِهَا وَأُجِبْهَا ﴿١٣٣﴾ وَرَضِّنْ لَهُمْ مَسْئَلَهُمْ ﴿١٣٤﴾

بَلْكَ أُمَّةٌ قَدْ خَلَتْ لَهَا مَا كَسَبَتْ وَلكُمْ مَا كَسَبْتُمْ وَلَا تُسْأَلُونَ عَمَّا كَانُوا يَعْبَدُونَ ﴿١٣٥﴾

وَقَالُوا كُونُوا هُودًا أَوْ نَصَارَى تَهْتَدُوا قُلْ بَلْ مِلَّةَ إِبْرَاهِيمَ حَنِيفًا وَمَا كَانَ مِنَ الْمُشْرِكِينَ ﴿١٣٦﴾

قُولُوا آمَنَّا بِاللَّهِ وَمَا أُنزِلَ إِلَيْنَا وَمَا أُنزِلَ إِلَّا إِلَهُهُمْ

131-1)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헌신하라

132-1) 야곱도 그의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르라 하였다.
2) 아브라함과 야곱이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슬람을 너희 종교로 선택했다는 이야기

135-1) 유대인과 기독교인, 즉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되어야 복을 받을것이라 말하고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되어야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각자의 주장
2) "하니프" : 정교의, 믿음의 온전한, 진실한 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여 통일성을 잃었고 기독교는 삼위일체설로써 유일신 사상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이슬람은 아브라함의 온전한 유일신 사상을 따른다.

136-1) 무슬림들이여

믿고²⁾ 우리에게 계시된 것과 아브라함과 이سم아엘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계시된 것과 모세와 예수가 계시 받은 것과 선지자들이 그들의 주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것을 믿나이다 우리는 그들 어느 누구도 선별치 아니하며 오직 그분에게만 순종할 따름이라

137. 너희가 믿는 것처럼 그들이 믿을 때 그들은 올바른 길로 인도되리라 그러나 그들이 배반 한다면 그들은 지옥에 빠질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그들에 대항하도록 충만하게 할 것이니 그분은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시라

138.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나니 세례함에 하나님보다 나은자가 누구이뇨 우리는 그분에게 경배하는 종들이라¹⁾

139. 일러가로되 너희는 우리의 주님이요 너희의 주님이신 하나님에 관해 논쟁을 하느뇨 우리의 것은 우리의 일이요 너희의 일은 너희의 일이다¹⁾ 우리는 그분만을

وَإِسْمَاعِيلَ وَإِسْحَاقَ وَيَعْقُوبَ وَالْأَسْبَاطَ وَمَا أُوتِيَ مُوسَى
وَعِيسَى وَمَا أُوتِيَ النَّبِيُّونَ مِنْ رَبِّهِمْ أَكُلْفُونُ بَيْنَ أَحَدٍ
مِنْهُمْ وَرَعَىٰ لَهُ مَلِئُونٌ ﴿١٣٧﴾

فَإِنِ امْتَنَّا بِنِعْمَةِ رَبِّهِمْ فَهَدَىٰ وَأَوْلَىٰ كَوْلُوا
فَإِنَّهَا هُمْ فِي شِقَاقٍ كَسِيكَانِيكُمْ اللَّهُ وَهُوَ السَّمِيعُ
الْعَلِيمُ ﴿١٣٨﴾

صِبْغَةَ اللَّهِ وَمَنْ أَحْسَنُ مِنَ اللَّهِ صِبْغَةً وَنَحْنُ لَهُ
عِبَادُونَ ﴿١٣٩﴾

قُلْ أَعْمَأُجُونَنَا إِلَى اللَّهِ وَهُوَ رَبُّنَا وَرَبُّكُمْ وَلَكِنَّا أَعْمَأُنَا
وَلَكُمْ أَعْمَأُكُمْ وَنَحْنُ لَهُ مَخْضُوعُونَ ﴿١٣٩﴾

2) 이 절은 바로 이슬람의 기본교리를 계시하고 있다.

- 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유일신 사상과
- ② 무함마드를 통하여 계시된 말씀, 즉 꾸란을 믿고
- ③ 모든 예언자들에게 계시된 말씀, 즉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수후프”와 모세에게 계시된 구약.
- ④ 모든 예언자들을 믿고 따른다.

138-1) “시브가”는 세례 또는 영세라는 뜻으로 언어적 해석은 염색 또는 색깔을 의미한다. 아랍 기독교인들은 물에다 색깔을 넣어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인생의 새로운 색깔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이슬람에서의 영세 또는 세례 함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영세를 의미하며 “시브가”(색깔)는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시브가”가 “이슬람”으로 풀이 될 수도 있다.

기독교인들이 자손들을 물로써 세례를 하자 하나님께서 “시브가타 알라” 즉 이슬람으로 세례하라는 은유로 계시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편으로는 세례를 함으로써 기독교인이 되는데 반하여 이슬람에 귀의하고자 할 때 “목욕”하는 것으로 “시브가”를 풀이하는 학자도 있다.

139-1)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보상과 책임은 우리가 질 것이며 너희가 행한 것에 대한 보상과 책

경배하노라

140.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유대인 혹은 기독교인들이라 말하느뇨 일리가로되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느뇨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받은 증언을 숨기는 자보다 더 사악한 자가 누구이뇨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는 일을 모르는 분이 아니시라

141. 이들은 지나가버린 한 백성이라 그들은 그들이 행한 것을 얻을 것이요 너희는 너희가 행한 것을 얻을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에 관해서 질문을 받지 않을 것이라

142.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도다 그들이 예배하던 예배의 방향을 무엇이 바꾸었느뇨 일러 가로되 동서가 하나님안에 있으며 그분께서는 믿음의 진실한 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니라¹⁾

143. 그리하여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중용의 한¹⁾ 공동체를 선정했나니 너희는 그 공동체의 증인이 될 것이며 그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한 증인이 되리라 또한 너희가 그 전에 향했던 기도의 방향을²⁾

أَمْ تَقُولُونَ إِنَّ إِبْرَاهِيمَ وَإِسْمَاعِيلَ وَإِسْحَاقَ وَيَعْقُوبَ
وَالْأَسْبَاطَ كَانُوا هُودًا أَوْ نَصَارَى قُلْ أَعْتَبُوا مَا عَلَّمْتُمُ اللَّهُ
وَمَنْ أَظْلَمُ مِمَّنْ كَتَمَ شَهَادَةً عِنْدَ اللَّهِ مِنَ اللَّهِ
وَمَا اللَّهُ بِغَافِلٍ عَمَّا تَعْمَلُونَ ﴿١٤٠﴾

بَنَاتِكُمْ أَتَى قَدْ خَلَّتْ لَهَا مَا كَسَبَتْ وَلَكُمْ مَا كَسَبْتُمْ
وَلَا تُسْأَلُونَ عَمَّا كَانُوا يَعْمَلُونَ ﴿١٤١﴾

سَيَقُولُ الشُّقْقَاءُ مِنَ النَّاسِ مَا وَلَدْتُمُنَّ عَنْ قِبَلِهِمُ الْبَيْتِ
كَانُوا عَلَيْهَا قُلْ لِلَّهِ الْمَشْرِقُ وَالْمَغْرِبُ يَهْدِي مَنْ يَشَاءُ
إِلَى صِرَاطٍ مُسْتَقِيمٍ ﴿١٤٢﴾

وَكَذَلِكَ جَعَلْنَاكُمْ أُمَّةً وَسَطًا لِتَكُونُوا شُهَدَاءَ عَلَى النَّاسِ وَيَكُونَ
الرَّسُولُ عَلَيْكُمْ شَهِيدًا وَمَا جَعَلْنَا الْقِبْلَةَ الَّتِي كُنْتُمْ عَلَيْهَا
إِلَّا لِنَعْلَمَ مَنْ يَتَّبِعُ الرَّسُولَ مِمَّنْ يَنْقَلِبُ عَلَى عَقْبَيْهِ

임은 너희가 책임질 것으로 어느 누구도 타인의 행위를 대신 할 수 없다는 뜻

142-1) “알바라”에 의해 전하여 오길, 선지자께서 메디나에 오셨을 때 약 16개월에서 17개월 가량은 예루살렘을 향해 예배를 하였다. 그후 선지자께서 메카에 있는 카오바 신전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음의 계시를 내렸다. 우리는 그대의 얼굴이 하늘로 향한 것을 보고 있다(2장 144절). 그러자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예배하던 기도의 방향을 무엇이 변경하는가?”라고 하자 이 절이 계시된 것으로 전하여지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87).

143-1) “중용의 공동체”라함은 이슬람의 본질가운데 하나로 중용은 편견과 아집을 배제한다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의 집 카오바 신전은 전세계 모든 인류를 위한 신전이므로 지역적으로도 동, 서, 남, 북의 한 중심지에 있게되어 “중앙”이란 지역적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지정했나니 이는 선지자를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를 구별코자 함이라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자들에게는 커다란 시험이나 하나님께서 너희의 믿음을 좌절시키지 아니했으니 하나님은 실로 온 인류에게 사랑과 자비로 충만한 분이시라³⁾

144. 하나님께서 하늘을 향한 그대의 얼굴을 보고 있었노라 그대가 원하는 기도의 방향을 향하게 하리라¹⁾ 그대의 고개를 영원한 경배의 장소로 향하라 어디에 있는 그 쪽으로 고개를 향할지니 성서를 계시받은 이들은 이 계시가 그들의 주님으로부터 온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²⁾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것에 대해 모르는 분이 아니시라

145. 그대가 성서의 백성들에게 모든 성약을 가져온다 해도 그들은 그대의 기도의 방향을 따르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대도 그들의 기도의 방향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 그들은¹⁾ 서로가 서로의 기도의 방향을 따르지 않도다²⁾ 지혜가 그대에게 온 후에도 만약 그들의 회

وَأَنَّ كَانَتْ كَثِيرَةً أَلْسِنَةُ الَّذِينَ هَدَى اللَّهُ وَمَا كَانَ اللَّهُ لِيُضِلَّ عِبْرَانِيًّا كَثِيرًا إِنَّ اللَّهَ بِالنَّاسِ لَكَرِيمٌ ۝٣٤

قَدْ نَرَى تَقَلُّبَ وَجْهِكَ فِي السَّمَاءِ فَلْتُوَلِّينَاكَ قِبَلَةَ تَرْضَاهَا قَوْلٌ وَمَنْ حَقَّ سَطْرُ الْمَسْجِدِ الْحَرَامِ وَحَيْثُ مَا كُنْتُمْ فَوَلُّوا وُجُوهَكُمْ سَطْرَهُ وَإِنَّ لِكُلِّ أُمَّةٍ لَكَنُوبًا لِيََعْلَمُونَ أَنَّهُ الْحَقُّ مِنْ رَبِّهِمْ ۝٣٥
وَمَا اللَّهُ بِغَافِلٍ عَمَّا يَعْمَلُونَ ۝٣٦

وَلَيْنَ آتَيْتَ الَّذِينَ أُوتُوا الْكِتَابَ بِحُلٍّ آتَيْنَاهُمْ قِبَلَتَكَ وَمَا آتَيْتَ بِتَابِعٍ قِبَلَتَهُمْ وَمَا بَعْضُهُمْ بِتَابِعٍ قِبَلَةَ بَعْضٍ ۝٣٧
وَلَيْنَ اتَّبَعَتِ أُمَّهَاتُهُمْ مِنْ بَعْدِ مَا جَاءَتْكُمُ الْبَيِّنَاتُ لَأَنَّكَ إِذْ لَبِيتَ الْغُلَامِينَ ۝٣٨

2) 예배의 방향이 예루살렘에서 "카오바"로 변경되자 사람들이 묻기를, "이미 고인인 된 선조들은 예배의 방향이 변경되기 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를 했는데 이 선조들은 어떻게 됩니까?"라고 묻자 "실로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사랑과 자비로 충만하시리라"라는 말씀이 계시되었다.

3) 예배의 방향이 메카 카오바 신전으로 옮겨지기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를 근행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로 충만 하심이다"라는 절이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88).

144-1) 무함마드 그대가 원하는 방향을 그대의 선조 아브라함의 기도방향 "카오바"신전으로 향하게 하리라.

2) 예배의 방향을 예루살렘에서 메카 카오바 신전으로 전환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도 의심을 하였다.

145-1) 유대인과 기독교인

2) 기독교인은 유대인의 기도방향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한 유대인은 기독교인의 기도방향을 따르지 아니하며 모두가 이스라엘 자손이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감을 갖는 등 다른 점들이 많았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89).

망에 따른다면 그대 또 한 우매한 자 중의 한 사람이 될 것이라

146. 그 성서의 백성들은 그들의 자손들을 알고 있듯 그들¹⁾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²⁾ 숨기고 있도다

147.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계시된 진리이니 의심하는자 되지말라¹⁾

148. 모든 인간은 그가 지향하는 목적이¹⁾ 있나니 선을 행함에 서로 경쟁하라 너희가 어디에 있던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진실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 하시니라

149. 그대가 어디로 여행을 하던 하람사원으로 고개를 돌리라 이것은 그대 주님으로부터의 진리이며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니라¹⁾

150. 그대가 어느 곳으로 여행을 하던 그대의 얼굴을 하람사원으로 돌릴 것이며 너희가 어디에 있던 얼굴을 그 쪽으로 향할지니¹⁾ 악을 지향하는자 외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이라 그대는 그들을 두려워 말며 나만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나의 은혜가 너희 위에

الَّذِينَ اتَيْنَهُمُ الْكِتَابَ يَعْرِفُونَهُ كَمَا يَعْرِفُونَ آبَاءَهُمْ وَإِنَّ

فَرِيقًا مِنْهُمْ لَيَكْتُمُونَ الْحَقَّ وَهُمْ يَعْلَمُونَ ﴿١٤٦﴾

الْحَقُّ مِنْ رَبِّكَ فَلَا تَكْفُرْ مِنْ الْمُنذَرِينَ ﴿١٤٧﴾

وَلِكُلِّ وُجْهَةٍ هُوَ مُوَلِّئُهَا مَا كَانُوا يَكْفُرُونَ الْخَبْرَاتِ لَئِنْ مَا تَكْفُرُوا

يَأْتِ بِكُمْ اللَّهُ جُنُودًا ۗ إِنَّ اللَّهَ عَلَىٰ كُلِّ شَيْءٍ قَدِيرٌ ﴿١٤٨﴾

وَمَنْ حَيْثُ خَرَجْتَ فَوَلِّ وَجْهَكَ شَطْرَ الْمَسْجِدِ الْحَرَامِ وَإِنَّهُ

لَلْحَقُّ مِنْ رَبِّكَ ۗ وَاللَّهُ يَبْقَاظِلُ مَنَّا مَا تَكْفُرُونَ ﴿١٤٩﴾

وَمَنْ حَيْثُ خَرَجْتَ فَوَلِّ وَجْهَكَ شَطْرَ الْمَسْجِدِ الْحَرَامِ وَحَيْثُ

مَا كُنْتُمْ فَوَلُّوا وُجُوهَكُمْ شَطْرَهُ لِئَلَّا يَكُونَ لِلنَّاسِ عَلَيْكُمْ حُجَّةٌ

إِلَّا الَّذِينَ كَفَرُوا مِنْهُمْ ۚ فَمَا عَسَوْهُمْ وَأَخْشَوْنِي وَلِأَنَّ

رَبِّيَ عَلِيمٌ عَلِيمٌ وَلَعَلَّكُمْ تَهْتَدُونَ ﴿١٥٠﴾

146-1) 무함마드

2) 구약과 신약에 "아호마드"이란 이름으로 최후의 선지자가 온다는 사실

147-1) 하나님이 계시한 기도의 방향과 그 종교가 진리이니 이슬람 공동체는 이를 의심해서는 아니된다는 의미

148-1) "후와"(그것)을 "목적"으로 풀이하는 학자와, "끼블라"(예배의 방향)로 해석하면서 음마(이슬람의 공동체)가 지향할 방향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149-1) 여행자에 대한 예배의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여행자도 거주민과 마찬가지로 예배의 방향은 하람사원으로 메카에 있는 카오바 신전을 가르킨다.

150-1) 예배를 드릴때는 카오바 신전을 향해야 한다는 것은 3번째 언급하고 있다.

충만케하여 옳은 길로 인도되게 하리라

151. 하나님은 너희들 중 한 사람을 한 선지자로 보내어 너희들에게 그분의 말씀¹⁾을 낭송하고 너희들을 성결케하며 율법과 지혜를 가르치니 너희들이 모르는 것을 일깨워 주도다

152. 너희가 나를 염원하매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니 내게 감사하고 거역하지 말라¹⁾

153. 믿는자들이여 인내와 예배로써 구원하라 실로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 편에 있노라¹⁾

154. 순교자들이 죽었다고 말하지 말라 그들은 살아 있으되 너희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을 뿐이라

155. 하나님은 두려움과 기아로써 재산과 가족과 곡식들을 손실케하여 너희들을 시험할 것이라 그러나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있으리라

156. 재앙이 있을때 오 주여 우리는 주안에 있으며 주께로 돌아가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자 있나니

157. 그들위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어 그들은 올바른 길로 인도 되리라

كَمَا أَرْسَلْنَا فِيكُمْ رَسُولًا مِّنكُمْ يَتْلُو عَلَيْكُمْ آيَاتِنَا وَيُزَكِّيكُمْ وَيُعَلِّمُكُمُ الْكِتَابَ وَالْحِكْمَةَ وَيُعَلِّمُكُم مَّا لَمْ تَكُونُوا تَعْلَمُونَ ﴿١٥١﴾

فَاذْكُرُونِي أَنِّي أَذْكُرْكُمْ وَاصْبِرُوا لِي وَلَا تَكْفُرُونَ ﴿١٥٢﴾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اسْعَيْتُوا إِلَى الصَّلَاةِ وَاللَّهُ مَعَ الصَّابِرِينَ ﴿١٥٣﴾

وَلَا تَقُولُوا لِمَن يُقْتَلُ فِي سَبِيلِ اللَّهِ أَمْواتٌ بَلْ أحيَاءٌ وَلَكِن كَرِهْتُمْ لَو ﴿١٥٤﴾

وَلَنَبِّئُكُمْ بِمَا فِي بُطُونِ الغَنَاحِ وَالشَّجَرِ وَتَقْفِرُونَ مِنَ الغَمَالِ وَالنَّاسِ وَالشَّجَرِ وَتَبْسُرُ الظُّبَيْرِينَ ﴿١٥٥﴾

الَّذِينَ إِذَا أَصَابْتُم مَّصِيبَةً قَالُوا إِنَّا لِلَّهِ وَإِنَّا إِلَيْهِ رَاجِعُونَ ﴿١٥٦﴾

وَأُولَئِكَ عَلَيْهِمْ صَلَوَاتٌ مِّن رَّبِّكُمْ وَرَحْمَةٌ وَأُولَئِكَ هُمُ الْمُهْتَدُونَ ﴿١٥٧﴾

151-1) 구란

152-1) 경배하고 순종함으로써 나 하나님을 염원하라. 그리하면 “나”는 보상과 관용으로 너희들을 기억하리라. 모세가, “주여! 제가 당신께 어떻게 감사 드려야 합니까?”라고 질문 했을때, “나만을 염원하되 잊지 아니하며, 나만을 염원 했다면 내게 감사한 것이 될 것이요 나를 망각 했다면 나를 불신한 것이 되느니라”라고 주님께서 대답하였다(이브누 까씨르 알무크 타씨르 142/1).

153-1) 인내는 모든 은혜를 얻으며 예배는 모든 악을 제거하여 준다.

158. 사파와 마르와 동산은 하나님의 징표이나니 하나님의 집을 방문하여 대순례나 소순례를 하는 것은 죄악이 아니거늘 스스로 선을 실천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보상으로 응답하시니라¹⁾

159. 실로 성서¹⁾에서 확증한 말씀과 하나님이 계시한 진리를 감추는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저주할 힘을 가진 자들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²⁾

160. 그러나 속죄하고 수정하며 진리를 밝히는 자들은 제외가 되나니 나¹⁾는 그들 위에 관용을 베풀리라 실로 나는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니라

161. 믿음을 부정하며 불신자로 죽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진실한 사람들의 저주만이 있을 뿐이라

162. 그들은 지옥에서 영주하고 벌이 경감되지 않을 것이며 고통이 잠시도 모면 되지 않을 것이라

إِنَّ الصَّفَا وَالْمَرْوَةَ مِنْ شَعَائِرِ اللَّهِ فَمَنْ حَبَّ الْبَيْتَ أُوَاعْتَصَرَ فَلَا جُنَاحَ عَلَيْهِ أَنْ يَطَّوَّفَ بِهِمَا وَمَنْ تَطَوَّعَ خَيْرًا فَإِنَّ اللَّهَ شَاكِرٌ عَلِيمٌ ﴿١٥٨﴾

إِنَّ الَّذِينَ يَكْتُمُونَ مَا أَنْزَلْنَا مِنَ الْكِتَابِ وَالْمُذَى مِنْ بَعْدِ مَا بَيَّنَّاهُ لِلنَّاسِ فِي الْكِتَابِ أُولَئِكَ يَلْعَنُهُمُ اللَّهُ وَيَلْعَنُهُمُ الْمَلَائِكَةُ ﴿١٥٩﴾

إِنَّ الَّذِينَ تَابُوا وَأَصْلَحُوا وَبَيَّنُّوا فَإِنَّ اللَّهَ أَكْرَمُ عَلَيْكُمْ وَأَنَّ السَّابِقِينَ السَّابِقِينَ ﴿١٦٠﴾

إِنَّ الَّذِينَ كَفَرُوا وَأَمَّاؤُا وَهُمْ كَافِرًا أُولَئِكَ عَلَيْهِمْ لَعْنَةُ اللَّهِ وَالْمَلَائِكَةِ وَالنَّاسِ أَجْمَعِينَ ﴿١٦١﴾

خَالِدِينَ فِيهَا لَا يَخَفُونَ لِعَذَابِ اللَّهِ أَهْلَهُمْ يَنْظُرُونَ ﴿١٦٢﴾

158-1) "사파"와 "마르와"는 조그마한 동산으로써 지금은 메카에 있는 하람사원(마스지드하람)안에 있다. 성지순례(하지 및 우무라)로 이곳을 찾는 신도들은 "싸이"(사파와 마르와 두 동산사이를 7차례 걷다가 뛰다가 하는 것)를 한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부인 하갈이 어린 이스마엘이 사막의 열사와 갈증으로 사경에 이르자 이 두 동산 사이를 뛰면서 하나님께 물을 구원하였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하시 "잠잠"우물을 주었는데 이 두 동산 가까이에 있다.

이절은 그 당시 아랍 이교도들이 남, 여 우상을 이곳에 갖다두고서 초기 무슬림들을 욕되게 하자 "사파와 마르와 동산은 하나님의 상징이나니"라는 말씀이 계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59-1) 무함마드가 예언자로 올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성서(구약)에 기록되어 있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첫째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둘째 천사들의 저주를 받으며 셋째 진실한 신앙인들의 저주를 받게 되리라는 예시이다.

160-1) 본질의 "나"는 하나님을 가르킴

163. 너희들의 하나님은 한분이 사 그분 외에는 신이 없으며 그분은 은혜와 지혜로 충만하시니라

164. 보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밤과 낮을 구별케 하셨으며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바다를 달리는 배들을 두셨고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 죽은 땅을 재생하시며 그곳에 모든 종류의 짐승들을 퍼뜨리셨고 바람을 두시매 구름은 천지에서 하나님을 운운에 순종하니 이것이 바로 이성을 가진 자를 위한 예증이라¹⁾

165. 그러나 무리가운데 하나님 외에 우상들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들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사랑하나 믿음이 있는 자의 신앙은 우상 숭배자보다 강하도다 우매한 자들은 응벌을 맞볼 것이라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있으며 실로 하나님의 벌은 강하니라

166. 추종받던 자들이 그들을 따르던 추종자들을 의절하니 그들은 응벌을 맞볼 것이며 그들 사이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노라

167. 추종자들이 말하도다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들이 우리를 의절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의절하리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들을 그들에게 밝히시니 그들은 불지옥으로부터 피하지 못하니라

وَاللَّهُمَّ إِلَهًا وَاحِدًا لَا إِلَهَ إِلَّا هُوَ الرَّحْمَنُ الرَّحِيمُ ﴿١٦٣﴾

إِنَّ فِي خَلْقِ السَّمَوَاتِ وَالْأَرْضِ وَخَلْقِ اللَّيْلِ وَالنَّهَارِ
وَاللَّيْلِ الَّذِي يَجْرِي فِي الْبَحْرِ مِمَّا يَنْفَعُ النَّاسَ وَمَا أَنْزَلَ اللَّهُ
مِنَ السَّمَاءِ مِنْ مَاءٍ فَأَحْيَا بِهِ الْأَرْضَ بَعْدَ مَوْتِهَا
وَبِكَيْفِيَّهَا مِنْ كُلِّ دَابَّةٍ وَتَصْرِيفِ الرِّيْحِ وَالسَّحَابِ
الْمُسْتَرْسَبِينَ السَّمَاءِ وَالْأَرْضِ لَآيَاتٍ لِقَوْمٍ يَعْقِلُونَ ﴿١٦٤﴾

وَمَنْ كَفَرَ بَعْدَ ذَلِكَ مِنْكُمْ فَقَدْ كَفَرَ بِاللَّهِ الَّذِي أَنْزَلَ الْقُرْآنَ عَلَيْكُمْ وَمَنْ يَكْفُرْ بِاللَّهِ
وَالَّذِينَ آمَنُوا أَشَدُّ حُبًّا لِلَّهِ وَلَوْ يَرَى الَّذِينَ الَّذِينَ ظَلَمُوا إِذْ
يُرَوْنَ الْعَذَابَ أَنَّ الْقُوَّةَ لِلَّهِ جَمِيعًا وَأَنَّ
اللَّهَ شَدِيدُ الْعِقَابِ ﴿١٦٥﴾

إِذْ تَرَ الَّذِينَ الَّذِينَ آمَنُوا مِنَ الَّذِينَ كَفَرُوا وَالَّذِينَ كَفَرُوا
وَتَقَطَّعَتْ بِهِمُ الرِّبَابُ ﴿١٦٦﴾

وَقَالَ الَّذِينَ كَفَرُوا لَوْ أَنَّ لَنَا كَرَّةٌ فَنَتَبَّخَّرُ بِمَا كَانُوا يَدْعُونَ
مِمَّا كَانُوا يَدْعُونَ إِلَهُكُمْ أَلَمْ يَكُنْ لَهُمْ حَرَّتٌ عَلَيْهِمْ
وَأَنَّهُمْ يُخْرِجُونَنَا مِنَ الْكِبَارِ ﴿١٦٧﴾

164-1) 창조주는 그분의 형상을 직접 보이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지혜로써 창조주의 유일성과 창조주의 존재하심과 모든 만물이 창조주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창조주가 한 분이 아니고 둘 이상이라면 서로의 경쟁으로 인하여 우주의 질서와 조화는 파괴 되었을 것이며, 책상이 있는 것은 그것을 만들 목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듯이, 이 우주와 만물이 있는 것은 그것을 창조한 창조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밤과 낮의 구별이 있고, 계절이 있으며, 눈이 오고 비가 오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창조주의 섭리와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모든 만물이 창조주의 섭리에 순종을 알 수 있다.

168. 사람들이여 지상에 있는 허용된 좋은 것을 먹되 사탄의 발자국을 따르지 말라 그는 실로 너희들의 반역자라

169. 실로 사탄은 사악함과 수치스러운 일들을 너희들에게 명령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바를 중상하도다¹⁾

170.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한 길을¹⁾ 따라라 하니 선조의 길을 따르겠다고 말하더라 가로되 그들 선조들은 지혜도 없었으며 안내도 못 받았지 않했더뇨

171. 불신자들을 비유하매 목동이 양떼를 고함질러 부르나 그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소리로 밖엔 들리지 아니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귀머거리요 병어리며 장님이라

172. 믿음을 가진자들이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부여한 양식중 좋은 것을 먹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만을 경배하라

173.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를 먹지말라¹⁾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아니한 고기도 먹지말라²⁾ 그러나 고의가 아니고 어쩔수 없이 먹을 경우는 최악이 아

يَا أَيُّهَا النَّاسُ كُلُوا مِن ثَمَرِ الْأَرْضِ حَلَالًا طَيِّبًا وَلَا تَتَّبِعُوا خُلُوبَ الشَّيْطَانِ إِنَّهُ لَكُمْ عَدُوٌّ مُّبِينٌ ﴿١٦٨﴾

إِنَّمَا يَأْمُرُكُم بِالشُّبُهَاتِ وَالْفَحْشَاءِ وَأَنْ تَقُولُوا عَلَى اللَّهِ مَا لَا تَعْلَمُونَ ﴿١٦٩﴾

وَإِذِ قِيلَ لَهُمُ اسْبِعُوا مِمَّا أُنزِلَ اللَّهُ فَالْوَابِلُونَ أَنَّهُم مُّآلِفٌ عَلَيْهِ آبَاءُهُمْ وَآلُؤُلُوهُمُ كَانَ آبَاءُهُمْ لَا يَعْلَمُونَ شَيْئًا وَلَا يَهْتَدُونَ ﴿١٧٠﴾

وَمَثَلُ الَّذِينَ كَفَرُوا كَمَثَلِ الذَّنْذَابِ اللَّغِيمِ الَّذِي يَنْعَمُ بِمَا لَا يَسْمَعُ إِلَّا دُعَاءَ وَوِدَاءَ صُمٌّ بُكْمٌ عُمْيٌ فَهُمْ لَا يَفْقَهُونَ ﴿١٧١﴾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كُلُوا مِن طَيِّبَاتِ مَا رَزَقْنَاكُمْ وَاشْكُرُوا لِلَّهِ إِنْ كُنْتُمْ تَعْبُدُونَ ﴿١٧٢﴾

إِنَّمَا حَرَّمَ عَلَيْكُمُ الْمَيْتَةَ وَالدَّمَ وَلَحْمَ الْخِنْزِيرِ وَمَا أُهْلَ بِهِ لِغَيْرِ اللَّهِ فَمَن اضْطُرَّ غَيْرَ بَاغٍ وَلَا عَادٍ فَلَا إِثْمَ عَلَيْهِ إِنَّ اللَّهَ غَفُورٌ رَّحِيمٌ ﴿١٧٣﴾

169-1)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금지하고, 금지한 것은 권고하며 인간들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도록 하는 행위.

170-1) 무지와 암흑과 방황속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복음인 구원

173-1) 죽은 고기와 함은 육식동물로써 식용으로 도살된 고기가 아니며 어떤 이유로 인하여 죽은 동물의 고기. 물론 바다의 물고기 또는 바다 동물의 고기는 허용되는 것으로 대다수 학자들은 풀이하고 있으나, 일부 학자들은 육식동물과 유사한 바다 동물의 죽은 고기도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2) 제단에 올리기 위해 도살된 고기,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하지 않고 우상의 이름으로 도살된 고기도 금지되고 있다. 식용으로 짐승을 도살할 때는 "비쓰밀라"(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라후 아크바르(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다)라는 구원 구절을 암송하고서 도살하게

니라 했거늘³⁾ 하나님은 진실로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174. 하나님이 성서에서 계시한 것을 감추고¹⁾ 하잘것 없는 것을 얻고자 하는 자 그들은 그의 복중에 유황불을 삼키는 것과 같으며 부활의 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들을 순화시켜주지도 않으시니 그들에겐 엄한 벌이 있을 뿐이라

175. 그들은 진리를 버리고 방황을 택하였으며 관용을 마다하고 벌을 원하였나니 그들이 유황불 위에서 참을 수 있단 말이노

176. 그것은¹⁾ 하나님께서 그 성서를 진리로 보내셨는데 그 성서에 이의를 제기하여 분열을 초래했기 때문이라

177. 동서로 고개를 돌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거늘¹⁾ 진정한 신앙이란 하나님과 내세와 천사들과 성서들과 선지자들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가까운 친지들에게 고아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비가 떨어진 여행자에게 구걸하는 자와 노예를 해방시켜준 자에게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내며 약속을 했을 때는 약속을 이행하고

إِنَّ الَّذِينَ يَكْتُمُونَ مَا أَنْزَلَ اللَّهُ مِنَ الْكِتَابِ وَيَشْرُونَ بِهِ نَسَاءً قَلِيلًا أَوْ لَيْسًا مَا يَأْكُلُونَ فِي بُطُونِهِمْ إِلَّا النَّارَ وَلَا يُكَلِّمُهُمُ اللَّهُ يَوْمَ الْقِيَامَةِ وَلَا يُزَكِّيهِمْ وَلَهُمْ عَذَابٌ أَلِيمٌ ﴿٤٧﴾

أُولَئِكَ الَّذِينَ اسْتَرَوْا الصَّلَاةَ يَأْتِيهِمُ الْعَذَابُ
يَا الْمُشْرِكِينَ قَدْ صَدَّبْتُمْ عَلَى النَّارِ ﴿٤٨﴾

ذَلِكَ بِأَنَّ اللَّهَ نَزَّلَ الْكِتَابَ بِالْحَقِّ وَإِنَّ الَّذِينَ آخَذُوا فِي الْكِتَابِ لَفِي شِقَاقٍ بَعِيدٍ ﴿٤٩﴾

لَيْسَ الْبِرَّ أَنْ تُوَلُّوا وُجُوهَكُمْ قِبَلَ الْمَشْرِقِ وَالْمَغْرِبِ وَلَكِنَّ الْبِرَّ مَنْ يَأْتِيَهُ مِنَ الْيَوْمِ الْآخِرِ وَالْمَلَائِكَةِ وَالْكِتَابِ وَالنَّبِيِّينَ وَآتَى الْمَالَ عَلَى حُبِّهِ ذَوِي الْقُرْبَىٰ وَالْيَتَامَىٰ وَالْمَسْكِينِ وَابْنَ السَّبِيلِ وَالسَّائِلِينَ وَفِي الرِّقَابِ وَأَقَامَ الصَّلَاةَ وَآتَى الزَّكَاةَ وَالْمُؤْمِنُونَ بَعْضُهُمْ إِذَا عَاهَدُوا وَالظَّالِمِينَ فِي الْبَيْتَاءِ وَالضَّرَّاءِ وَحِينَ

되어있다. 자세한 도상법은 하디쓰 40선(최영길 번역 및 해석 p.74참조)

3) 기아의 상태에서 생명을 위협할 때, 목숨을 구할 때, 또는 알지못하고 무의식 중에 먹었을 때는 허용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174-1) 구약에 예언된 무함마드가 예언자로 온다는 기록을 숨겼던 유대인들의 교구장들에게 계시된 말씀이다(알파르크르 알라-지 28/5).

176-1) 유황불속에서 벌을 받게 된 것은

177-1) 진실한 신앙이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사람으로써 ① 신앙에 진실하고 성실하며, ② 진실과 성실은 자신을 실천 함으로써 행위의 모범이 되며, ③ 어떠한 환경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강건하고 흔들리지 아니한 자세로써, ④ 사회조직에 협조하는 선량한 시민이 될 때 진실한 신앙인으로 묘사되고 있다.

고통과 역경에서는 참고 인내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의 길이며²⁾ 이들 이야말로 진실하게 사는 의로운 사람들이라

178. 믿는자들이여 살인의 경우 자유인 대 자유인 종복 대 종복 여성 대 여성으로 동등한 처벌규정이 기록되어 있노라 그러나 피해자의 형제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는 감사의 보상을 해야 되나니 보호자는 계율을 따른 것이라 이것은 너희 주님으로부터 감형과 자비로다 그후 범행을 범한자는 고통스러운 징벌이 그에게 있을 것이라¹⁾

179. 이 동등한 처벌법은 생명을 보호함에 있나니 현명한 사람들이여 스스로를 자제할 것이라

180. 너희 가운데 죽음이 다가온 자는 재산을 남기게 되나니 그는 부모들과 가까운 친척들에게 글로서 유언을 남기라¹⁾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신앙인의 의무라

الْبَائِسِ أُولَئِكَ الَّذِينَ صَدَقُوا وَأُولَئِكَ هُمُ الْمُتَّقُونَ ﴿٢٠﴾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كُتِبَ عَلَيْكُمُ الْقِصَاصُ فِي الْقَتْلِ الْحُرُّ بِالْحُرِّ وَالْعَبْدُ بِالْعَبْدِ وَالْأُنثَىٰ بِالْأُنثَىٰ لَكُمْ عُقْبَةٌ مِّنْ أَخِيهِ تَمَتُّتْ بِمَا تَعَرَّفُوا بِالْمَعْرُوفِ وَأَذَا لِّيهِ بِإِحْسَانٍ ذَلِكَ تَخْفِيفٌ مِّنْ رَبِّكُمْ وَرَحْمَةٌ مِّنْ أَعْتَدَىٰ بَعْدَ ذَلِكَ فَكُلَّ عَذَابِ الْيَوْمِ ﴿٢١﴾

وَلَكُمْ فِي الْقِصَاصِ حَيَوةٌ يَا أُولِيَ الْأَلْبَابِ لَعَلَّكُمْ تَتَّقُونَ ﴿٢٢﴾

كُتِبَ عَلَيْكُمُ إِذَا حَضَرَ أَحَدَكُمُ الْمَوْتُ إِنْ تَرَكَ خَيْرًا مَّا لَوْ صَبَّهٗ لَوْلَا الَّذِينَ وَالَ الْأَقْرَبِينَ بِالْمَعْرُوفِ حَقَّاقِلِ الْمُتَّقِينَ ﴿٢٣﴾

2) 지금까지는 종교의 원리와 이스라엘 자손의 창조주에 대한 불신에 관한 말씀이 계시되었다. 그러나 본 절부터는 바카라 장의 대다수가 이슬람법에 관한 계시다.

178-1) 이슬람이전 사회에서는 무서운 보복행위가 잦았으나 이슬람이 도래함으로써 경감 및 완화되었다. 보다 나은 정의사회를 구현하는데는 우선 자비와 관용의 축구를 우선으로 하면서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성이 남성용, 여성이 여성을 살해 하였을 경우 그와 동등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동등한 권리로 부유한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 사회의 유명한 사람이 살해 당했다하여 그의 생명이 빈자, 또는 하류계급 사람들의 2-3명의 생명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것 만큼만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해자는 피해를 준 만큼의 처벌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양 당사자는 그 이상의 요구, 그 이상의 처벌은 지위고하를, 빈부의 차이를 막론하고 요구할 수 없으며 요구 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다수의 번역된 무란에서는 “끼싸-쓰”를 보복(Retaliaton)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앞서 풀이된 것으로 보아서는 “동등한 처벌”로 풀이해야함이 원래의 의미에 가까운 것으로 본다. 이 당시 이스라엘 자손 즉 유대인들은 동등한 처벌법(끼싸-쓰)만 있었고 보상제도(디아)가 없었으며, 기독교에서는 그 반대로 동등한 처벌(끼싸-쓰)은 없었고, 보상제도(디아)만 있었으나 이슬람에서는 동등한 처벌(끼싸-쓰), 보상제도(디아), 관용(아프우)의 세가지가 적용되고 있다.

180-1) 공정하게 양도하되 1/3를 넘지 아니하고 부유한 사람에게 양도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181. 그러나 유언을 듣고서 그것을 변조하는 자 있나니 변조하는 것은 죄악이라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아시노라

182. 그러나 유언 작성자의 편견이나 부정으로 죄악스러움을 두려워 한다면 그 두 당사자 사이를 화해시킬 것이니 이는 죄악이 아니라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183. 너희 선민자들에게 단식의 의무화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너희에게도 단식은¹⁾ 의무라 자체 함을 통하여 의로워질 것이라

184. 정하여진 날에 단식을 행하면 되나¹⁾ 병중에 있거나 여행중에 있을 때는 다른 날로 대용하되 불쌍한 자를 배부르게 하여 속죄하라 그러나 스스로 지킬 경우는 더 많은 보상이 있으며 단식을 행함은 너희에게 더욱 좋으니라 실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라²⁾

مَنْ بَدَّلَهُ بَعْدَ مَا سَمِعَهُ فَإِنَّمَا أَثْمَبُ عَلَى الَّذِينَ
يَبْدِلُونَهُ إِنَّ اللَّهَ سَبِيحٌ عَلِيمٌ ﴿١٨١﴾

فَمَنْ خَافَ مِنْ مَوْضِعِ جُنَاحٍ أَوْ آثِمًا فَأَصْلَحَ بَيْنَهُمْ
فَلَا لَئِمَّ عَلَيْهِ إِنَّ اللَّهَ غَفُورٌ رَحِيمٌ ﴿١٨٢﴾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كُتِبَ عَلَيْكُمُ الصِّيَامُ كَمَا كُتِبَ
عَلَى الَّذِينَ مِن قَبْلِكُمْ لَعَلَّكُمْ تَتَّقُونَ ﴿١٨٣﴾

يَا أَيُّهَا مِمَّا مَعَدُّوهُ قَدْ كُنَّا كَمَا مَنَّا مِنْكُمْ مَرِيضًا وَوَعَلَى سَفِيرٍ
فَعِدَّةٌ مِّنْ أَيَّامٍ أُخَرَ وَعَلَى الَّذِينَ يُطِيقُونَهُ فِدْيَةٌ
طَعَامُ مَسْكِينٍ مَّنْ تَطَوَّعَ خَيْرًا فَهُوَ خَيْرٌ لَهُ وَأَن
صُومُوا خَيْرٌ لَّكُمْ إِن كُنتُمْ تَعْلَمُونَ ﴿١٨٤﴾

사람들에게 양도되는 것이다. 본질이 계시될 때까지의 유산 분배법이었으나 후에 재산분배법에 관한 다른 말씀이 계시되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105).

183-1) 라마단 달의 단식의 언어적 의미는, 무엇을 정지 또는 중단 하는 것으로 아무 우베이다는 음식이나 대화 또는 활동하는 것을 중지하는 모든 행위로 풀이하고 있다. 한편 이슬람에서의 단식은 단식을 하는 의도와 더불어 낮에 음식과 음료수와 부부생활을 중단하는 것을 가르킨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106-107).

184-1) 하나님께서는 라마단 달에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에게도 단식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런데 유대인은 한달 동안은 지키지 아니하고 일년중 하루, 즉 그들이 말하는 파라오가 역사한 그날 하루만 단식 하였으며, 기독교인들은 라마단 달 단식을 실천하고 있었는데 열사의 무더위가 그들을 엄습하자 기후 변화가 없는 다른 기간으로 바꾸었다. 그대신 10일을 더 추가했다. 그후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그들의 왕이 병을 앓게되자 7일동안 더 단식할 것을 명세하였다. 그후 다른 왕이 군림하여 말하길, 3일을 더 추가하는 것이 어떤가? 라고 말하자 3일을 추가하여 50일이 되었다.
(하산에 의해서 전하여 지고 있음 : 알타프씨르 알카비르 76/5)

2) 어려움을 무릅쓰고 단식을 실천하는 자에게 보상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즉 나이가 많은 노인들, 또는 특수 환경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단식을 했을때 보상이 있음을 의미한다. 사피 법학자는 임신중이거나 어린이에게 젖을 먹이는 유모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나, 사피를 제외한 다른 학자들은 임신중이거나 젖을 먹이는 유모가 단식을 할 수 있더라도 단식을 연기하는 것이 더 낫다는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185. 사람을 위한 복음으로 그리고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라마단 달에 꾸란이 계시되었나니 그달에 임하는 너희 모두는 단식을 하라 그러나 병중이거나 여행중일 경우는 다른 날로 대체하면 되니라 하나님은 너희로 하여금 고충을 원치 않으시니 그 일정을¹⁾ 채우고 너희로 하여금 편의를 원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하라

186. 나의 종복들이 그대에게 나에 관해 물을때 나는 너희들 가까이서 내게 예배하는 자들의 소원에 응답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부름에 따르라 나를 믿는 자들은 올바른 길로 인도되리라¹⁾

187. 단식날 밤 너희 아내에게 다가가는 것을 허락하노라 그녀들은 너희들을 위한 의상이니 너희들은 그녀들을 위한 의상이니라¹⁾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을 알고 계시나²⁾ 너희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셨노라 그러나 지금은 그녀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추구하고 하얀실이 검은실과 구별되는 아침 새벽까지 먹고 마시라 그런다음 밤이 올때까지 단식

شَهْرٍ مَّصَانِ النَّبِيِّ أَنْزَلَ فِيهِ الْقُرْآنَ هُدًى لِّلنَّاسِ
وَيَذِّبَ تِرَاسَ الْهُدَى وَالْقُرْآنَ قَانَ قَمَنَ شَهْدًا مِنْكُمْ
الْبَهْرَ قَلِيصُهُ وَمَنْ كَانَ مَرِيضًا وَعَلَى سَفَرٍ فَعِدَّةٌ
مِّنْ أَيَّامٍ أُخَرَ يُرِيدُ اللَّهُ بِكُمُ الْيُسْرَ وَلَا يُرِيدُ بِكُمُ الْعُسْرَ
وَلِيَذِّبُوا الْعِدَّةَ وَيُذَكِّرُوا اللَّهَ عَلَى مَا هَدَاكُمْ
وَلَعَلَّكُمْ تَشْكُرُونَ ﴿١٨٥﴾

وَرَادَا سَأَلَكَ عِبَادِي عَنِّي فَإِنِّي قَرِيبٌ الْمُجِيبُ دَعْوَةَ
الدَّاعِ إِذَا دَعَا فَكَلِمَاتٍ يُجِيبُوا إِلَىٰ وَلِيُؤْمِنُوا بِمَا لَعَنَهُم
يُرِيدُونَ ﴿١٨٦﴾

أَحَلَّ لَكُمْ لَيْلَةَ الصِّيَامِ الرَّفَقَ إِلَىٰ نِسَائِكُمْ هُنَّ
لِبَاسٌ لَّكُمْ وَأَنْتُمْ لِبَاسٌ لَهُنَّ عَلِمَ اللَّهُ أَنَّكُمْ كُنْتُمْ
تَخْتَلُونَ أَنْفُسَكُمْ فَتَابَ عَلَيْكُمْ وَعَقَاكُمْ قَالَتِ
بِأَشْرُوهُنَّ وَابْتِغُوا مَا كَتَبَ اللَّهُ لَكُمْ وَكُلُوا وَاشْرَبُوا حَتَّىٰ
يَبْتَلِينَ لَكُمْ الْحَيْضَ الْأَبْيَضَ مِنَ الْحَيْضِ الْأَسْوَدِ مِنَ الْفَجْرِ
ثُمَّ ارْتَمُوا الصِّيَامَ إِلَى الْبَيْتِ وَلَا تَبَاشِرُوهُنَّ وَأَنْتُمْ
عَافُونَ فِي الْمَسْجِدِ تِلْكَ حُدُودُ اللَّهِ فَلَا تَقْرَبُوهَا

185-1) 라마단 달의 일수대로 단식해야 한다는 뜻.

186-1) 한 무리의 아랍인들이 선지자에게 물기를, 무함마드여! 우리들의 주님은 가까이 계시는가? 아니면 멀리 계시는가? 가까이 계시면 그분께 속삭여 보고 멀리 계시면 불러보자 라고 하자 "나는 그대들 가까이 있어 내게 예배하는 자들의 소원에 응답하도다"라는 말씀이 계시된 것으로 전해여지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107).

187-1) 의복이 인간의 몸을 감싸주고 덮어주며 보호하여 주듯 남편은 부인을, 부인은 남편을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은유법으로 묘사하고 있다. 성 생활도 상부상조함을 내포하고 있다.

2) 이슬람초기 라마단 달에는 밤이나 낮이나 라마단 기간이 끝날때까지 부부생활이 금지되었다. 이로인해 남성들은 여성들을 기만하거나 배신한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을 알고 있느니라"라는 계시가 내린 것으로 "부카리"가 전하고 있다.

을 지키고³⁾ 그녀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말 것이며 사원에서 경건한 신앙 생활을 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한한 것이니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듯 하나님은 인간들이 자제함을 배울 수 있도록 계시 하였노라

188. 너희 가운데 너희의 재산을 무익하게 삼키지 말 것이며¹⁾ 또 타인의 재산을 탐내어²⁾ 교만스럽게 재판의 미끼로서 사용치 말라 너희는 다 알고 있지 않느냐

189. 그들이 그대에게 초생달에 관해 질문 할때¹⁾ 그것은 인간과 순례를 위한 시간이라²⁾ 말하여라 너희가 뒤 편으로 집에 오는 것은 옳지 아니하며³⁾ 의로운 사람은 정문으로 오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하리라

190. 너희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적들에게 도전하되 그러나 먼

كَذَلِكَ يُبَيِّنُ اللَّهُ لِلنَّاسِ لَعَلَّكُمْ تَتَّقُونَ ﴿١٨٨﴾

وَلَا تَأْكُلُوا أَمْوَالَكُمْ بَيْنَكُمْ بِالْبَاطِلِ وَتَذُنُوا بِهَا إِلَى الْحُكَّامِ لِتُنكَلُوا فَرِيقًا تَنْ أَمْوَالِ النَّاسِ بِالْإِثْمِ وَأَنْتُمْ تَعْمَلُونَ ﴿١٨٩﴾

يَسْأَلُونَكَ عَنِ الْأَهْلِ قُلْ مِنْ مَوَاقِيتِ لِلنَّاسِ وَالْحَجَّةِ وَلَيْسَ الْبِرُّ بِأَنْ تَأْتُوا الْبُيُوتَ مِنْ ظُهُورِهَا وَلَكِنَّ الْبِرَّ مِنَ الشَّعْرِ وَأَنْتُمْ الْبُيُوتَ مِنْ أَبْوَابِهَا وَأَتُوا اللَّهَ لَعَلَّكُمْ تُفْلِحُونَ ﴿١٩٠﴾

وَقَاتِلُوا فِي سَبِيلِ اللَّهِ الَّذِينَ يَرِيبُ قِيَاتِلُونَكُمْ

3) 샤리프 리다에 따르면 하얀실이라 함은 아침 동녘을, 검은실이라 함은 어두운 저녁을 은유법으로 묘사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시간에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부부생활 등 모든 일상생활이 허락되나 낮동안(아침 동녘부터 저녁해가 서산에 질 때까지)은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부부생활을 금지하고 있다.

188-1) 인간의 기본적 욕망은 먹는것과 마시는 것 그리고 성생활의에도 부와 재산에 대한 욕망이 있다. 그래서 단식의 궁극적 목적은 언급한 3가지를 지키는 것은 말할것도 없지만 부와 재산에 대한 욕망을 자제함으로써 단식이 추구하는 목적이 실현된다고 본다. 본절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의 재산을 무익하게 삼키지 말 것이며-"의 의도는 자기 재산을 가지고 권력을 매수하여 자기 재산을 더욱 증식하려는 것과 돈으로써 타인들을 타락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 나의 재산과 단체 및 국가의 공익재산의 부정축재 금지

189-1) 선지자의 일부 추종자들이 선지자에게 질문하길, 실처럼 가늘었다가 점점커져 온달이 되고 다시 줄어들드는 저 초생달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변함이 없는 태양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자 이 말씀이 계시된 것으로 전하여지고 있다(타프씨르 알라지 132/5).

2) 단식과 성지순례 그리고 축제(이들 피트르와 이돌아드하) 및 이슬람세의 지불시기 등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시간을 초생달을 통해서 알 수 있다.

3) 아랍인들은 옛풍습과 미신에 따라 성지순례 기간이나 순례직후에 사람들이 자기집을 들어올때 뒷문으로 들어오도록 하였다. 이것은 하나의 미신이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정문으로 들어오도록 계시를 내림으로써 미신을 타파하였다.

저 공격하지 말라 하나님은 공격하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시니라¹⁾

191. 그들을 발견한 곳에서 그들에게 투쟁하고 그들이 너희들을 추방한 곳으로부터 그들을 추방하라 박해는 살해보다 더 가혹하니라¹⁾ 그들이 하람사원에서 너희들을 살해하지 않는한 그들을 살해하지 말라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살해할 때는 살해하라 이것은 불신자들에 대한 보상이라

192. 만약 그들이 싸움을 단념한다면¹⁾ 하나님은 그들을 관용과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니라

193. 박해가 사라질 때까지 그들에게 대항하라¹⁾ 이는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니라 그들이 박해를 단념한다면²⁾ 우매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적대시 하지 말라

194. 살생이 금지된 달은 성스러운 달이거늘 살생을 금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공격할 때는 그들이 공격했던 것처럼 그들을 공격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신앙인들과 함께 하시니라¹⁾

وَلَا تَعْتَدُوا إِنَّ اللَّهَ لَا يُحِبُّ الْمُعْتَدِينَ ④

وَأَقْتُلُواهُمْ حَيْثُ تَقْتُلُوهُمْ وَأُخْرِجُوهُمْ مِنْ حَيْثُ أَخْرَجُوكُمْ وَالْفِتْنَةُ أَشَدُّ مِنَ الْقَتْلِ وَلَا تَقْتُلُواهُمْ عِنْدَ الْمَسْجِدِ الْحَرَامِ حَتَّى يُفْتَلُواكُمْ فِيهِ ⑤
فَتَلُوكُمْ فَأَقْتُلُواهُمْ كَذَلِكَ جَزَاءُ الْكٰفِرِينَ ⑥

إِنِ انْتَهَوْا فَإِنَّ اللَّهَ غَفُورٌ رَحِيمٌ ⑦

وَقَاتِلُواهُمْ حَتَّى لَا تَكُونُوا فِتْنَةً وَيَكُونَ الدِّينُ بِلَهُ قَاتِلِينَ ⑧
فَتَلُوكُمْ فَأَقْتُلُوا قَلَاعِدًا وَإِنِ الْأَعْمَى الظَّالِمِينَ ⑨

الشَّهْرُ الْحَرَامُ بِالشَّهْرِ الْحَرَامِ وَالْحُرُمَتُ قِصَاصٌ فَمَنْ اعْتَدَى عَلَيْكُمْ فَاعْتَدُوا عَلَيْهِمْ بِنُحْلٍ مَا اعْتَدَى عَلَيْكُمْ وَالْقَوْلُ لِلَّهِ وَالْعَمَلُ لِلَّهِ مَعَ الْمُتَّقِينَ ⑩

190-1) 이슬람에서는 먼저 공격하는 것은 배제되어 있으나 적이 선제 공격을 했을 경우는 자체 방어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적의 여성, 어린이, 노인, 허약자 그리고 나무나 곡식등에는 피해를 주지 말라고 하였다.

191-1) 헤즈라 6년 "후데이비야"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가 있었다. 이 당시 이슬람이 번성하기 시작함으로써 영향력을 가진 무슬림 공동사회가 조성되자 많은 불신자 및 이교도들이 맥카로부터 추방을 당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이들은 무슬림들을 학살하고 우무라 및 성지 순례를 방해하는 등 무슬림들과의 휴전조약을 깨뜨리고 그곳의 무슬림에 대한 박해가 심하여지자 이 계시가 내려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192-1) 불신을 버리고 회개하여 믿음을 갖게 될 때

193-1) 지상에서 불신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종교가 다른 종교들을 지배 할 때까지
2) 불신을 버리고 회개하여 믿음을 가질 때까지

195. 하나님을 위해서 재산을 사 용하되 너희 스스로 파괴를 초래 하지 말라 자선을 행하라 하나님 은 자선을 행하는 그들을 사랑하 시니라

196. 하나님을 위해 대순례와 소 순례를 행하라¹⁾ 할 수 없을 경우 는 네가 할 수 있는 제물을 바칠 것이요²⁾ 그 제물이 제단에 오를때 까지는 머리를 깎지 말것이며 너 희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머리에 상처가 있을때는 머리를 깎아도 되나 단식으로써 또는 가난한 자 들에게 음식을 주거나 혹은 제물 로 바쳐 보상토록 하라³⁾ 너희가 평안할 때 희망하는 자는 소순례 로부터 대순례까지 계속하고 할 수 있는 제물을 바쳐야 되며 만일 그렇게 할 수 없을 경우는 순례기 간 중 삼일간을 단식하고 집에 돌아와 일곱날을 단식하여 열흘을 채워야 하니 이것은 성역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벌이 엄하심을 알라

197. 대순례는 명시된 달에 행하 되¹⁾ 순례를 행하는 자는 성욕과

وَأَنْفِقُوا فِي سَبِيلِ اللَّهِ وَلَا تَقُولُوا يَتَكَلَّمُ إِلَهِ الْمَلَائِكَةِ
وَاحِسُونَ إِنَّ اللَّهَ يُحِبُّ الْمُحْسِنِينَ ﴿١٩٥﴾

وَاتِمُّوا الْحَجَّ وَالْعُمْرَةَ لِلَّهِ فَإِنْ أُحْصِرْتُمْ فَمَا اسْتَيْسَرَ
مِنَ الْهَدْيِ وَلَا تَحْلِقُوا رُءُوسَكُمْ حَتَّىٰ يَبْلُغَ الْهَدْيُ مَحَلَّهُ
فَمَنْ كَانَ مِنْكُمْ مَرِيضًا أَوْ بِهِ آذَىٰ مِنْ رَأْسِهِ فَجِدْيَةٌ
مِنَ صِبَاغِ الْوَسَدِاقَةِ أَوْ سُنْدُكٌ ۖ فَأَذَّآءُكُمْ فَمَنْ تَمَتَّعَ
بِالْعُمْرَةِ إِلَى الْحَجِّ فَمَا اسْتَيْسَرَ مِنَ الْهَدْيِ فَمَنْ لَمْ يَجِدْ
فَصِيَامًا ثَلَاثَةَ أَيَّامٍ ۖ وَسَبْعَةٌ إِذَا رَجَعْتُمْ إِلَيْكُمْ عَشْرًا
كُلَّمَا ذَكَرْتُمُ اللَّهَ فَقِيلَ لَكُمْ لَمْ يَكُنْ أَمَلُهُ فَاصْرُفُوا السَّجِدَ الْغَرَامِ
وَأَقْرَبُوا اللَّهَ وَأَعْلَمُوا أَنَّ اللَّهَ شَدِيدُ الْعِقَابِ ﴿١٩٦﴾

الْحَجَّ أَشْهُرًا مَعْلُومَاتٍ ۖ فَمَنْ قَرَضَ فِيهِمْ الْحَجَّ فَلَا رَفْعَ

194-1) "하람"이란 "금지된" 또는 "성스러운"이란 뜻이다. 성지순례 달(둘хват지)은 성스러운 달로 아랍관습에 의하여 모든 전쟁행위가 금지되었다. 역시 헤즈라역 11월(둘 까우다)과 1월(무 하르람)도 성스러운 달로 전쟁행위 및 살생 행위가 금지되었다.

헤즈라역 7월 "라잠"월에도 전쟁은 금지되었다. 그러나 이 기간이라 할지라도 적이 공격을 했거나 휴전 및 평화조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적이 공격한 만큼은 공격을 할 수 있다.

196-1) 이슬람의 다섯가지 실천사항(이슬람의 5행 이라고도 함) 중의 5번째 사항으로 능력이 있는자는 일생에 한번 이상은 하나님의 집(바이투 알라)을 순례하게 되어있다. 소순례는 성지순례(하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일년중 아무때나 할 수 있는 소순례이지만, 성지순례(하지)는 성지순례 달(둘хват지) 첫 10일 동안에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자세한 것은 "우무라 및 성지순례"(최영길 번역) 참조바람.

2) 몸이 아프거나 적의 공격이 있거나 어떤 사정으로 우무라나 성지순례를 완전히 마칠 수 없을 경우에 소나 양을 잡아 희생제를 지내면 된다.

3) 3일간 단식을 하거나 60명의 불쌍한 자들을 배불리 먹이거나 양 한 마리씩을 잡으면 된다.

197-1) 성지순례기간은 사왈(헤즈라 10월), 둘까우다(11월), 둘хват(12월) 첫 10일간이다.

간사하고 사악한 마음을 갖지 말 것이며 언쟁도 하지 말라 그리고 선행을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라 내세를 위한 양식을 마련하되 가장 좋은 양식은 이성이 있는 자들의 정직한 품행이라 그러므로 현명한 자들아 나²⁾를 두려워 하라

198. 순례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는 것은¹⁾ 죄가 아니니 아라파트로부터 군집하여 나올때 성비²⁾에서 하나님을 염원하고 비록 이전에 우매한 자들 가운데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분을 염원하라

199. 그런후 사람들이 서두르는 곳으로부터 서둘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시니라

200. 순례의 의식을 행하면서 너희 선조들이 그랬듯이 더욱 염원하라 무리중에는 하나님이여 현세의 축복을 주소서¹⁾ 라고만 구하

وَلَا تُسۡوۡقَ وَلَا يَدۡبَلُ فِي الْحَجِّ وَأَنْتُمْ عَلٰۤىٰ حٰجِرٍ يٰۤاَيُّهَا الَّذِيۡنَ اٰمَنُوۡا اَتُوا اللّٰهَ تَوَّٰبِيۡنَ وَاذْكُرُوۡا اللّٰهَ عِنۡدَ الشَّجَرِ الْمُنۡوَرِ وَاذْكُرُوۡا كَمَا هَدٰۤىۡكُمْ وَاِنۡ كُنۡتُمْ مِّنۡ قَبۡلِهِۦ لَمِنَ الضّٰلِّيۡنَ ﴿١٩٨﴾

لَيْسَ عَلَيْكُمۡ جُنَاحٌ اَنۡ تَتَّبِعُوۡا اَفۡصَلًا مِّنۡ رِّبٰكُمۡۗ وَاِذَا اَقۡصٰتُمۡ مِّنۡ عَرۡفَاتٍ فَاذْكُرُوۡا اللّٰهَ عِنۡدَ الشَّجَرِ الْمُنۡوَرِ وَاذْكُرُوۡا كَمَا هَدٰۤىۡكُمْ وَاِنۡ كُنۡتُمْ مِّنۡ قَبۡلِهِۦ لَمِنَ الضّٰلِّيۡنَ ﴿١٩٩﴾

ثُمَّ اٰفِضُوۡا مِمَّنۡ حَيۡثُ اَفۡصَحَ النَّاسُ وَاَسۡتَعۡفِرُوۡا اللّٰهَ ۗ اِنَّ اللّٰهَ غَفُوۡرٌ رَّحِيۡمٌ ﴿٢٠٠﴾

وَاِذَا اَقۡصٰتُمۡ مِّنۡ سَاكِمِكُمۡ فَاذْكُرُوۡا اللّٰهَ كَذِكۡرِكُمۡ اٰبَآءَكُمۡ اَوۡ اَسۡدَدۡ ذِكۡرًا فَمِنَ النَّاسِ مَنۡ يَّعۡقُوۡلٌ رَّيۡبًا اِيۡتٰى فِي الدُّنْيَا وَمَا لَهُ فِي

- 첫 순례예식은 사월 초부터 시작되나 주요 의식은 다음과 같다.
- ① 순례복(이흐람)은 메카로 이르는 지정된 장소(마와 끼뜨)에서 입고,
- ② 메카에 있는 하람사원외로가 카오바 신전을 7차례 돈후(따와프), 카오바 신전에 있는 검은 돌(하자르 알아쓰와드)에 입을 맞춘다.
- ③ 아브라함 신전에서 기도를 드리고(2장 125절), 사파와 마르와 동산 사이를 왕복 싸이하고(2장 158절),
- ④ 돌히자 7일날 대설교에 참석하여 설교를 들으며,
- ⑤ 8일째는 미나계곡을 방문하여 그곳에 머무르면서 밤을 세운다. 9일째 계속해서 아라파트에 있는 조그마한 동산(자발 라흐만 : 자비의 산)에 올라 아담과 하와의 재회를 기념한 후
- ⑥ 10일째는 "이들아드하"로 미나 계곡에서 양이나 소를 잡아 희생제를 지내면서 사탄에 7개의 조약들을 그 다음날까지 연이어 던진다. 물론 이런 의식들은 아브라함의 행적에 따른 것이다. 여기까지의 의식을 마침으로써 대순례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으나 2-3일간 더 체류하면 더 복이 있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우무와 성지순례(최영길 번역) 참조.

2) 하나님

- 198-1) 성지 순례기간 중에 장사 및 무역 등의 거래행위
- 200-1) 내세에서 있을 행복보다는 현세에서 많은 행복만을 추구하는 자.

는자 있으나 그들에게는 내세에서 몹이 없을 것이라

201. 또 이렇게 말하는 무리가 있나니 주여 현세에서 축복하여 주시고 내세에서도 축복하여 주시며¹⁾ 불지옥의 고통으로부터 구하여 주소서

202. 이들에게는 그들이 노력한 만큼 몹이 할당 되리니 하나님은 계산하심에 빠르시니라

203. 지정된 날¹⁾ 하나님을 염원하라 이틀전에 서둘러 떠났어도 잘못이 아니며 뒤늦게 떠났어도 잘못이²⁾ 아니거늘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너희가 그분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204. 현세의 기쁜 말로 그대를 놀라게 할 무리가 있으리라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드러나니 그는 논쟁을 일삼는 위선자라¹⁾

205. 그가 그대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은 농작물과 가축에 피해를 입혀 재앙을 가져오려하나 하나님은 어떤 재해도 좋아하지 아니하시니라

الْآخِرَةَ مِنْ خَلْقٍ ۝

وَمِنْهُمْ مَنْ يَقُولُ رَبَّنَا آتِنَا فِي الدُّنْيَا حَسَنَةً
وَفِي الْآخِرَةِ حَسَنَةً وَقِنَا عَذَابَ النَّارِ ۝

أُولَئِكَ لَهُمْ نَصِيبٌ مِمَّا كَسَبُوا وَاللَّهُ سَرِيعُ
الْحِسَابِ ۝

وَأذْكُرُوا اللَّهَ فِي أَيَّامٍ مَعْدُودَاتٍ فَمَنْ تَعَجَّلَ
فِي يَوْمَيْنِ فَلَا إِثْمَ عَلَيْهِ وَمَنْ تَأَخَّرَ فَلَا
إِثْمَ عَلَيْهِ لِمَنِ اسْتَفَى وَالْعُقُوبَةُ وَأَعْلَوْا
الْكَلِمَ إِلَيْهِ يُحْشَرُونَ ۝

وَمِنَ النَّاسِ مَنْ يُعْجِبُ قَوْلَهُ فِي الْحَيَاةِ الدُّنْيَا وَيُشْهَدُ
اللَّهُ عَلَى مَآئِ قَلْبِهِ وَهُوَ كَذَّابٌ ۝

وَأَذَاتُوا لِي سَعَى فِي الْأَرْضِ لِيُفْسِدَ فِيهَا وَيُهْلِكَ
الْحَرْثَ وَالنَّسْلَ وَاللَّهُ لَا يُحِبُّ الْمُسَآءَةَ ۝

201-1) 현세와 내세의 행복을 동시에 기원하는 자가 지혜있는 신앙인이라 풀이되고 있다(사프와 트 타파-씨르, 제1권, p.116).

203-1) 희생제 자내는 날(야우무 안나흐르) 이후 3일(아이야맘 앗타스리-끄)간 사탄에 조약돌을 던지는 그 기간

2) 미나에서 완전 이틀을 보낸 후 서둘러 떠나거나 3일째 조약돌을 던질때까지 남아 있는 것.

204-1) “알아크나쓰 이븐 샤리-끄”가 선지자에게 찾아와 이슬람을 믿는척 이슬람을 좋아한다고 맹세하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거짓으로 가득찼으니 위선자(무나 피크) 임에는 틀림없었다. 얼마후 선지자로부터 나와 한 무슬림 형제의 농작물과 당나귀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면서 그 농작물에 불을 지르고 그 당나귀들을 죽어버렸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내린 것으로 전하여지고 있다(알파크르 알라지 215/5).

206. 하나님을 공경하라 일렀거늘 거만으로 죄악을 낳았으니 악마의 휴식처인 지옥에서 기거할 것이라

وَأَذِيقْ لَهُ النَّارَ اللَّهُ أَحَدَتْهُ الْعِزَّةَ بِالْإِثْمِ
فَحَسْبُهُ جَهَنَّمُ وَلَيْسَ الْبِهَادُ ﴿٢٠٦﴾

207. 자기의 생명을 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무리가 있나니 하나님은 그 종을 사량하시니라

وَمِنَ النَّاسِ مَن يَبِيعُ نَفْسَهُ ابْتِغَاءَ مَرْضَاتِ اللَّهِ وَاللَّهُ رَءُوفٌ بِالْعِبَادِ ﴿٢٠٧﴾

208. 믿음을 가진자들이여 이슬람으로 온전히 귀의하라¹⁾ 그리고 사탄의 발자국을 따르지 말라 그야말로 사악한 너희의 분명한 적이라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ادْخُلُوا فِي السِّلْمِ كَآثِمَةٌ وَلَا تَتَّبِعُوا خُطُوبَ الشَّيْطَانِ إِنَّهُ لَكُمْ عَدُوٌّ مُّبِينٌ ﴿٢٠٨﴾

209. 너희에게 말씀이 있었는데도 이슬람에 귀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을 너희는 알게 되리라¹⁾

فَإِن رَّكِبْتُمْ مِّنْ بَعْدِ مَا جَاءَتْكُمْ الْبَيِّنَاتُ فَاعْلَمُوا أَنَّ اللَّهَ عَزِيزٌ حَكِيمٌ ﴿٢٠٩﴾

210. 그들은 하나님이 구름의 그림자를 타고 천사들과 함께 너희들에게 강림함을 기다리며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니라¹⁾

هَلْ يَنْظُرُونَ إِلَّا أَنْ يَأْتِيَهُمُ اللَّهُ فِي ظُلْمٍ مِّنَ الْعَمَاءِ وَالْمَلَكَةِ وَتُفْوَى الْأَمْرُ
وَالِى اللَّهِ تُرْجَعُ الْأُمُورُ ﴿٢١٠﴾

211.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물어 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분명한 예증을 그들에게 주었더뇨¹⁾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불신하니 실로 하나님의 벌이 엄할 것이라

سَلِّ بِنِي إِسْرَائِيلَ كَمْ آتَيْنَاهُم مِّن آيَاتِنَا بَيِّنَاتٍ
وَمَنْ يَبْذُلْ رِيعَةً لِّلَّهِ مِنْ بَعْدِ مَا جَاءَتْهُ
فَإِنَّ اللَّهَ شَدِيدُ الْعِقَابِ ﴿٢١١﴾

212. 속세의 삶이 불신자들을 유

زِينَ لِلَّذِينَ كَفَرُوا الْحَيَاةَ الدُّنْيَا وَيَسْرَحُونَ مِنَ الَّذِينَ

208-1) 이슬람에 귀의한 후 모든 이슬람 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뜻이다.

209-1)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벌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

210-1)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은 여러 가지 변명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려 한다. "만일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반하고 우리에게 나타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노라" 또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부정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한다.

211-1) 모세에게 계시된 복음과 기적들

혹하니 그들은 믿음이 진실한 신앙인들을 조롱하도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는 믿음이 진실한 자들이 그들 위에 있으며 하나님은 그분의 의지에 따라 풍성한 양식을 주시니라¹⁾

213. 인류는 하나의 공동체였으며 이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복음의 전달자로서 경고자로서 그곳에 보내셨도다¹⁾ 또한 그들과 함께 진리의 성서를 보내어 이로 하여금 그들이 달리하는 사람들을 다스리도록 하였더라 그리하매 그 성서의 백성들은 분명한 예증이 있는 후 그들 사이에 아무 이견이 없었으나 불신자들의 증오는 그렇지 아니했더라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그들이 달리했던것에 대하여 진리로 믿는 자들을 인도하였나니 하나님은 그분의 뜻으로 옳은 길을 가고자 하는 자를 인도하심이라

214. 너희 이전에 떠난 선조들에게 있었던 그러한 시련없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생각하느뇨 그들에게 고통과 역경과 정신적 진통이 있었으니 선지자 그리고 그분과 함께했던 믿음이 진실한 자들도 언제 하나님의 승리가 오느냐고 묻더라 실로 하나님의 승리는 가까이 있노라

215. 그들이 그대에게 어떻게¹⁾ 자선을 베풀어야 합니까 라고 할

اٰمَنُوْا وَالَّذِيْنَ اٰتَقُوْا فَاَوْقَهُمْ يَوْمَ الْقِيٰمَةِ وَاللّٰهُ يَرْزُقُ
مَنْ يَّشَاءُ بِعَدْرِ جَسَابٍ ﴿٢١٣﴾

كَانَ النَّاسُ اُمَّةً وَّاحِدَةً فَفَعَلَتِ اللّٰهُ التَّحِيْمَ
مُبَشِّرِيْنَ وَمُنذِرِيْنَ وَاَنْزَلَ مَعَهُمُ الْكِتٰبَ بِالْحَقِّ
لِيَحْكُمَ بَيْنَ النَّاسِ فِيْ مَا اَخْتَلَفُوْا فِيْهِ وَاِذَا
اَخْتَلَفْتُمْ فِيْ شَيْءٍ مِنَ الدِّيْنِ اَوْ تُوْهُ مِنْۢ بَعْدِ مَا
جَاءَتْهُمْ الْبَيِّنٰتُ بِذِيْۤ اٰبِيْنَهُمْ فَهَدٰى اللّٰهُ
الَّذِيْنَ اٰمَنُوْا لِمَا اَخْتَلَفُوْا فِيْهِ مِنَ الْحَقِّ بِاٰذْنِ
وَاللّٰهُ يَهْدِيْ مَنْ يَّشَاءُ اِلٰى صِرٰطٍ مُّسْتَقِيْمٍ ﴿٢١٤﴾

اَمْحَسِبْتُمْ اَنْ تَدْخُلُوْا الْجَنَّةَ وَ لَبٰٓئِۤا يٰۤاَكْفُمُ مٰكُلُ الَّذِيْنَ
خَلَقُوْا مِنْ قَبْلِكُمْ مَسْتَهْمُ الْبٰٓسِۤاءِ وَالصَّٰغِرٰٓءِ
وَرَزَّلُوْا حٰثِيْ يَقُوْلُ الرَّسُوْلُ وَالَّذِيْنَ اٰمَنُوْا
مَعَهُ مَتٰى نَصَرَ اللّٰهُ الْاِكْرٰٓهَ نَصَرَ اللّٰهُ قَرِيْبٍ ﴿٢١٥﴾

يَسْئَلُوْنَكَ مَاذَا يُنْفِقُوْنَ ۗ قُلْ مَا اَنْفَقْتُمْ مِنْ شَيْۤءٍ

212-1) 비록 현세에서는 가난하지만 믿음이 진실하면 내세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위에 있다는 말씀

213-1) 믿음이 진실한 신앙인들에게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불신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지옥이 있음을 경고하기 위해 예언자들을 보내셨다.

215-1) (1) 무엇을 (2) 누구에게 (3) 어떻게 자선을 베풀 것인가? 라고 선지자의 추종자들이 질문을 하자 이 계시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서르, 제1권, p.123).

때 대답하여 가로되 부모를 위해서 친척과 고아와 구걸하는 자와 여행자들을 위해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자선을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라

216. 비록 싫어하는 것이지만 너희에게 성전이 허락되었노라 그러나 너희가 싫어해서 복이 되는 것이 있고 너희가 좋아해서 너희에게 악이 되는 것이 있나니 하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니라

217. 그들은 성스러운 달 동안에 살생에 관하여 그대에게 물을지니 그 기간에 살생은 죄악이라 하되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하람사원에 가까이 있는 것을 방해하는 것과 그곳으로부터 그의 주민들을 추방하는 것은 더 큰 죄악이며 교사하고 박해하는 것은 살생 보다 더 나쁜 죄악이라 그들은 너희가 너희의 종교를 배반할 때까지 너희들과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배반자가 되고 믿음을 갖지 않고 죽는다면 그들의 일은 현세와 내세에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불지옥의 거주자가 되어 그곳에서 영원히 기거할 것이라¹⁾

218. 믿음을 가진자 이주를 한자 하나님의 길에서 투쟁한자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나니 하나님은 관용과 은혜로 충만하시니라

قَالُوا الَّذِينَ وَالْأَقْرَبِينَ وَالْبَنِي وَالْمَسْكِينِ وَالْيَتَامَى
 التَّيْبِلِ وَمَا تَقَعُوا مِنْ خَيْرٍ فَإِنَّ اللَّهَ بِهِ عَلَيْهِمْ ﴿٢١٦﴾

كُتِبَ عَلَيْكُمُ الْقِتَالُ وَهُوَ كَرْهٌ لَكُمْ وَعَسَى أَنْ تَكْرَهُوا شَيْئًا
 وَهُوَ خَيْرٌ لَكُمْ وَعَسَى أَنْ تُحِبُّوا شَيْئًا وَهُوَ شَرٌّ لَكُمْ وَاللَّهُ
 يَعْلَمُ وَأَنْتُمْ لَا تَعْلَمُونَ ﴿٢١٧﴾

يَسْأَلُونَكَ عَنِ الشَّهْرِ الْحَرَامِ وَالْقَالِ فِيهِ قُلْ قِتَالٌ فِيهِ
 كَيْفٌ وَصَدٌّ عَنِ سَبِيلِ اللَّهِ وَكُفْرٌ بِاللَّهِ وَالْمَسْجِدِ الْحَرَامِ
 وَالْحُرَّامِ أَهْلِهِ مِنْهُ الْكَبِيرُ وَالْقِتَالُ وَالْفِتْنَةُ الْكُبْرَى
 الْقِتَالُ وَلَا يَزَالُ الَّذِينَ يِقَاتِلُونَكُمْ حَتَّى يَرُدُّوكُمْ عَنْ
 دِينِكُمْ إِنِ اسْتَطَاعُوا وَمَنْ يَرْتَدِدْ مِنْكُمْ عَنْ دِينِهِ
 فَيَسُبَّتْ وَهُوَ كَافِرٌ فَأُولَئِكَ حَبِطَتْ أَعْمَالُهُمْ فِي
 الدُّنْيَا وَالْآخِرَةِ وَأُولَئِكَ أَصْحَابُ النَّارِ هُمْ فِيهَا
 خَالِدُونَ ﴿٢١٨﴾

إِنَّ الَّذِينَ آمَنُوا وَالَّذِينَ هَاجَرُوا وَجَاهَدُوا فِي سَبِيلِ
 اللَّهِ أُولَئِكَ يَرْجُونَ رَحْمَتَ اللَّهِ وَاللَّهُ غَفُورٌ رَحِيمٌ ﴿٢١٨﴾

217-1) 선지자께서 “압둘라 이븐 자하쉬”를 분대로 하여 꾸라이쉬족의 대상을 관측하도록 하였다. 꾸라이쉬족의 대상은 “아브루 이븐 알하뜨라미”를 포함 3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1명을 살해하고 2명은 포로로 생포하였으며 그들의 상품은 노획물로 가져갔다. 이때의 날짜는 “라잡”달 첫째 날이었는데 그들은 이 날이 “주마다 아~키라”달 마지막 날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꾸라이쉬족이 말하길 “무함마드는 살생이 금지된 성스러운 달에 살생을 하고 전리품은 합법화 했도다”라고 하자(그들은 성스러운 달 동안에 살생에 관하여 그대에게 물을지니...)라고 계시가 내렸다.

219. 술과 도박에 관하여 그대에 게 물을때 일러가로되¹⁾ 그 두 곳 에는 큰 죄악과 인간에 유용한 것이²⁾ 있으나 그것의 죄악은 효용보다 크다 이르되 또 그것이 무엇으로 자선을 베풀어야 되느냐고 물을때 일러가로되 그것은 여분이라 일러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너희에게 계명을 주신 후 너희로 하여금 숙고하도록 하였노라

220. 현세와 내세에서 그들이 고아들에 대해 그대에게 물을지니 일러가로되 그들을 위한 복지는 자선이며 너희가 그들과 함께 할 때는 그들은 너희들의 형제들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선행을 행하는 척 하는자들 가운데 해악을 의도하는 자를 알고 계시나니¹⁾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주리라 하나님은 실로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221. 믿음이 없는 여성과 결혼하지 말라 믿음을 가진 여자 노예가 믿음이 없는 유혹하는 매혹의 여자보다 나으니라 또한 믿음이 없는 남성들이 믿음을 가질때까지 딸들을 결혼시키지 말라 믿음을 가진 노예가 믿음이 없는 유혹하

يَسْأَلُونَكَ عَنِ الْخَمْرِ وَالْمَيْسِرِ قُلْ فِيهِمَا إِثْمٌ كَبِيرٌ وَمَنَافِعُ لِلنَّاسِ وَإِثْمُهُمَا أَكْبَرُ مِن نَّفْعِهِمَا وَيَسْأَلُونَكَ مَاذَا يُنْفِقُونَ قُلِ الْغَفْوَةُ كَذَلِكَ يُبَيِّنُ اللَّهُ لَكُمُ الْآيَاتِ لَعَلَّكُمْ تَتَفَكَّرُونَ ﴿٢١٩﴾

فِي الدُّنْيَا وَالْآخِرَةِ وَيَسْأَلُونَكَ عَنِ الْيَتَامَى قُلْ إِصْلَاحٌ لَّهُمْ خَيْرٌ وَإِنْ عَدَلْتُمْ لَهُمْ فَخَيْرٌ لَّهُمْ وَاللَّهُ يَعْلَمُ الْمُفْسِدَ مِنَ الْمُصْلِحِ وَلَوْ شَاءَ اللَّهُ لَأَعَمَّتَكُمْ إِبْرَاقَ اللَّهِ عَوْرَةً حَكِيمٌ ﴿٢٢٠﴾

وَلَا تَنْكِحُوا الْمُشْرِكَةَ حَتَّىٰ تُؤْمِنَ وَلَكُم مِّنْهُم مَّؤْمِنَةٌ خَيْرٌ مِّنْ مُّشْرِكَةٍ وَلَا تُؤْتُوا الْمُشْرِكِينَ حَتَّىٰ يُؤْمِنُوا وَلَعَبْدٌ مُّؤْمِنٌ خَيْرٌ مِّنْ مُّشْرِكٍ وَلَا يُؤْتَىٰ بِالْجَنَّةِ وَالْمَعْفِرَةِ

219-1) 메디나에 거주하던 “안사리”(메카에서 메디나로 도움을 옮기어 이주하여 온 메카 주민들을 도와주었던 메디나 주민들)의 단체가 “우마르 이븐 알카탐”과 선지자에게 찾아와 말하길 술과 도박이 우리의 이성을 잃게하였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이성을 흐리게 하였고 우리의 재산을 탕진케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자 이 계시가 내려졌다.

2) 판매에서 오는 금전적 소득으로 이슬람 율법에서는 음주가 금지되고 있다. “술은 모든 악의 모체”라고 하디스에서 묘사되고 있으며 따라서 인간의 육체, 건강, 정신, 재산 등은 물론 공동사회의 윤리를 해치는 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말리키, 샤피, 아흐말 학파는 술 자체는 물론 원로 자체가 발효되어서 알콜의 효능을 발효할 때 술로 간주하며, 아부 하니파 학파는 그것을 마셔서 취할 경우 술로 간주하고 있다.

220-1) 고아를 돌본다는 핑계로 영리를 생각하는 것은 더 큰 죄악이니 이를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다는 뜻.

는 매혹의 남성보다 나오니라 이들은 지옥으로 유혹하도다¹⁾ 그러나 하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관용을 베푸시며 사람들에게 그분의 계시를 설명하시니 이를 기억하고 찬양하라

222. 사람들이 그대에게 여성의 생리에 관해 묻거든 이는 깨끗한 것이 아니라 일러가도되 생리중에 있는 여성과 멀리하고 생리가 끝날 때까지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나 생리가 끝났을 때는 가까이 하라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니라 하나님은 항상 회개하는 자와 함께 있으며 청결을 기뻐하시니라

223. 여성들은 너희들이 가꾸어야 할 경작지와 같으니 너희가 원할때 경작지로 가까이 가라 그리하여 씨를 뿌리되 너희 스스로를 위해 조심스러워야 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것이며 언젠가 그분을 영접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믿음을 가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224. 선행이거나 정의의 일이거나 사람 사이에 화해시키는 일이 아닌 맹세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변명치 말라 하나님은 들으심과 아심으로 충만하시니라

225. 너희의 맹세속에 비의도적인 것에 대해서는 책망 하시지 아니하시나 너의 심중에 있는 의도적 맹세는 책망하시니라 하나님은 관용과 은혜로우심으로 충만하심이라

يَا ذِي الْقُرْبَىٰ وَبَيْنَ يَدَيْهِ لِلنَّاسِ لَعْنُهُمْ يَتَذَكَّرُونَ ﴿٢٢١﴾

وَيَسْتَأْذِنُكَ عَنِ الْمَجْزِيِّ قُلْ هُوَ أَذَىٰ فَأَعْتَزِلُوا النِّسَاءَ فِي الْمَجْزِيِّ وَلَا تَقْرُبُوهُنَّ حَتَّىٰ يَطْهَرْنَ فَإِذَا تَطَهَّرْنَ فَأْتُوهُنَّ مِنْ حَيْثُ أَمَرَكُمُ اللَّهُ إِنَّ اللَّهَ يُحِبُّ التَّوَّابِينَ وَيُحِبُّ الْمُتَطَهِّرِينَ ﴿٢٢٢﴾

نِسَاءً وَأَمْ حُرَّتْ لَكُمْ فَاتُوا حُرَّتَكُمْ أَنْ تَشْتُمُوا وَقَدْ مَوَّأَ لَأَنْفُسِكُمْ وَأَنْفُوا اللَّهَ وَاعْلَمُوا أَنَّكُمْ مُلْقَوَةٌ وَبَشِيرِ الْمُؤْمِنِينَ ﴿٢٢٣﴾

وَلَا تَجْعَلُوا لِلَّهِ عُرْضَةً لِأَيْمَانِكُمْ أَنْ تَبَرُّوا وَتَتَّقُوا وَتُصَدِّقُوا بَيْنَ النَّاسِ وَاللَّهُ سَمِيمٌ عَلِيمٌ ﴿٢٢٤﴾

لَا يُؤَاخِذُكُمُ اللَّهُ بِالْفِعْرِ فِي أَيْمَانِكُمْ وَلَكِنْ يُؤَاخِذُكُمْ بِمَا كَسَبْتُمْ قُلُوبَكُمْ وَاللَّهُ غَفُورٌ رَحِيمٌ ﴿٢٢٥﴾

221-1)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형제들간의 결혼을 우선적으로 한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경배하는 무슬림 형제들간의 결혼이 이상적이나 무슬림형제가 없을 경우는 기독교나 유대교 형제들과의 결혼은 허락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한 무신론자들과는 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226. 아내와 멀리하고자 하는 자는 사개월을 기다려야 되니라¹⁾ 만일 그간에 다시 돌아온다면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

227. 만일 이혼을 하고자 맹세했다면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라¹⁾

228. 이혼한 여성은 삼개월을 기다리게 되나니¹⁾ 이는 하나님이 태내에 창조한 것을 숨기는 것을 막고자 함이라 만일 그들이 하나님과 내세를 믿어 남편이 돌아올 의사가 있을 때는 남편은 이 기간에 돌아올 권리가 있으며 또한 여성과 남성이 똑같은 권리가 있으나 남성이 여성보다 위에 있나니 하나님은 만사형통 하심이라²⁾

229. 화해를 통한 두 번의 이혼은 허락되나 그후의 두 당사자는 동등한 조건으로 재결합을 하던지 아니면 이혼을 해야되며 너희가 그녀들에게 주었던 지참금을 되돌려 가져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두 당사자가 하나님의 율법

الَّذِينَ يُؤْلُونَ مِنْ نِسَائِهِمْ ثَرْغٌ أَرْبَعَةَ أَشْهُرٍ وَإِنْ قَامُوا فَإِنَّ اللَّهَ غَفُورٌ رَحِيمٌ ﴿٢٢٦﴾

وَإِنْ عَزَمُوا الطَّلَاقَ فَإِنَّ اللَّهَ سَمِيعٌ عَلِيمٌ ﴿٢٢٧﴾

وَالْمُطَلَّقَاتُ يَتَرَبَّصْنَ بِأَنْفُسِهِنَّ ثَلَاثَةَ شُحُورٍ وَلَا يُحِلُّ لَهُنَّ أَنْ يَكْتُمْنَ مَا خَلَقَ اللَّهُ فِي أَرْحَامِهِنَّ إِنْ كُنَّ يُؤْمِنُ بِاللَّهِ وَالْيَوْمِ الْآخِرِ وَيُعْلِتْنَهُنَّ أَحَقُّ بِرَدِّهِنَّ فِي ذَلِكَ إِنْ أَرَادُوا إِصْلَاحًا وَلَهُنَّ مِثْلُ الَّذِي عَلَيْهِنَّ بِالْمَعْرُوفِ وَلِلرِّجَالِ عَلَيْهِنَّ دَرَجَةٌ ۗ وَاللَّهُ عَزِيزٌ حَكِيمٌ ﴿٢٢٨﴾

الطَّلَاقُ مَرَّتَيْنِ ۖ فَمَا سَأَلْتَ بِمَعْرُوفٍ أَوْ تَسْرِيَةٍ بِإِحْسَانٍ وَلَا يَحِلُّ لَكُمْ أَنْ تَأْخُذُوا مِمَّا آتَيْتُمُوهُنَّ شَيْئًا إِلَّا أَنْ يَخَافَا أَلَّا يُعْيِمَا حُدَّ وَدَّ اللَّهُ فَإِنْ حَفَفْتُمَا أَلَّا يُعْيِمَا حُدَّ وَدَّ اللَّهُ فَلَا جُنَاحَ عَلَيْهِمَا

226-1) 부부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 맹세할 경우

227-1) 만일 이혼할 마음으로 그런 맹세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를 모를리가 없다는 뜻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할 때 부인이 4개월을 기다리며, 만일 이 기간에 남편이 아내에게 가까이 한다면 그것은 복이되며 남편의 의도적 맹세는 무효가 되고 그에게는 보상이 있으나 그 기간에 부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을 경우 그것은 이별과 이혼을 의미한다.(아부 하니파) 한편 4개월 동안 남편이 부부생활을 회피할 경우 법관에게 이 문제를 상정하여 재결합을 하던지 아니면 이혼을 조정하도록 하면되나 만일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는 이혼으로 간주된다(샤 피).

228-1)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저주받을 일은 이혼하는 것이라고 이슬람은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어쩔수 없는 사유로 이혼을 했을 경우 여성은 이혼한 날로부터 3개월이 넘어야 재혼이 허락된다. 그 이유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임신이 되어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 "남성이 여성위에 있다"함은 신체의 구조상 여성보다 강하고 통솔력과 지도력이 감성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냉철하며 양식은 대부분 남성의 노동력으로 얻어진다든 점에서 남성이 여성위에 있다는 뜻이다.

수행을 두려워 할 경우는 제외라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수행치 못할까 두려워하여 그녀가 그녀의 자유를 위해 되돌려 주었다 하더라도 두 당사자에게는 죄악이 아니며¹⁾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라 그러나 그 이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하나님의 율법을 초월하는 자는 우매한 자들이라

230. 만일 한 남편이 세번째로 이혼을 했다면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 다시 그 남편이 그녀와 결혼 할 때까지는 그녀와 결혼 할 수 없노라 그 경우에 그들이 재 결합을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나니 그것이 바로 지혜를 가진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율법이라

231. 아내와 이혼을 하고 법정기간을 채웠을 때¹⁾ 그녀들에게 돌아오거나 또는 그녀들을 자유롭게하여 줄 것이며 그녀들을 괴롭히기 위해 또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그녀들에게 돌아오지 말라 그것을 위반하는 자는 곧 자기 자기 자신을 우롱한 것이라 그리고

فِيمَا امْتَدَّتْ بِهٖ تِلْكَ حُدُودُ اللّٰهِ فَلَا تَعْتَدُوْهَا
وَمَنْ يَتَعَدَّ حُدُودَ اللّٰهِ فَاُولٰٓئِكَ هُمُ الظّٰلِمُوْنَ ﴿٢٣٠﴾

فَاِنْ طَلَّقَهَا فَلَا تَحِلُّ لَهٗ مِنْۢ بَعْدِ حَتّٰى تَنْكِحَ
رَوْحًا غَيْرَهَا فَاِنْ طَلَّقَهَا فَلَا جُنَآحَ عَلَيْهِمَا اَنْ
يَتَرَاجَعَا اِنْ ظَنَّا اَنْ يُقِيمَا حُدُودَ اللّٰهِ وَتِلْكَ
حُدُودُ اللّٰهِ يُبَيِّنُهَا لِقَوْمٍ يَعْلَمُوْنَ ﴿٢٣١﴾

وَإِذَا طَلَّقْتُمُ النِّسَاءَ فَبَلَغْنَ أَجَلَهُنَّ
فَامْسِكُوهُنَّ بِمَعْرُوفٍ أَوْ سَرِّحُوهُنَّ بِمَعْرُوفٍ
وَلَا تُمْسِكُوهُنَّ ضَرَارًا لِّتَعْتَدُوا وَمَنْ يَفْعَلْ
ذٰلِكَ فَقَدْ ظَلَمَ نَفْسَهُ، وَلَا تَتَّخِذُوا الٰيَاتِ اللّٰهِ
هُزُوًا وَإِذْكُرُوا نِعْمَتَ اللّٰهِ عَلَيْكُمْ وَمَا أَنْزَلَ

229-1) 여성의 경제적 또는 어떤 이익을 위해 이혼을 거절하는 남편이 횡포와 폭행 및 비행으로 여성을 괴롭힘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권리와 그녀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할 경우 여성은 그녀가 받은 지참금이나 또는 일정한 금액의 물질을 남편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허락되어 있다. 그러나 여성이 그것을 주어야 하는 필요성과 공평성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 그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 이 종류의 이혼을 "쿨라오"이혼이라 한다.

이슬람 이전 암흑시대에는 한 남성이 이혼 후에도 부인이 기다리는 법정기간 만료 전에 자기 마음대로 천번 이상이라도 부인과 이혼했다가 또 재혼할 수 있었다. 어느날 이 남자는 자기 부인에게 와서 말하길, "나는 당신을 가정에 들어오게 할 수 없소. 그러나 당신을 버리지는 않겠소"라고 하자 부인이,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말하길, "당신과 이혼하기 전에 다시 당신께로 돌아가겠소"라고 대답하였다. 이때 부인은 이 사실을 선지자께서 상정하였다. 이에 하나님께서(이혼은 두 번이거늘...)이라는 계시를 내리게 되었다.

231-1)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될 경우 또는 이혼을 한 여성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 임신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정기간을 기다린 다음에야 재혼할 수 있는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지 말며 너희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서와 지혜를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를 권고하시니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알고 계시니라

232. 아내와 이혼하고 법정기간을 채웠을 때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의해 합당한 조건하에 그녀들이 전 남편들과 재혼하고자 한다면 이를 방해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내세를 믿는 신앙인들을 위한 교훈이며 그것은 또한 너희들을 위해 보다 고결하고 청결케 하기 위한 과정이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계시니라¹⁾

233. 어머니들은 아버지가 원할 때 자녀들을 이년 동안 젖을 먹어야 되나니²⁾ 이때 아버지는 그녀들의 양식과 의복의 비용을 부담해야 되노라 그의 능력이 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어머니는 그녀의 자녀로 인해서 고생을 해서는 아니되며 아버지도 그의 자녀로 인해 고생을 해서는 아니되나니 상속인에게도 그와 마찬가지로 젖을 떼고 싶을 경우는 상호

عَلَيْكُمْ مِنَ الْكِتَابِ وَالْحِكْمَةِ يَعِظُكُمْ بِهِ وَاتَّقُوا اللَّهَ وَاعْلَمُوا أَنَّ اللَّهَ بِكُلِّ شَيْءٍ عَلِيمٌ ﴿٢٣٢﴾

وَإِذَا طَلَقْتُمْ النِّسَاءَ فَمَلَعْنِ أَجَلَهُنَّ فَلَا تَعْضُلُوهُنَّ أَنْ يَنْكِحْنَ أَزْوَاجَهُنَّ إِذَا تَرَكَوْا بَيْنَهُمْ بِالْمَعْرُوفِ ذَلِكَ يُوعِظُ بِهِ مَنْ كَانَ مِنْكُمْ يُؤْمِنُ بِاللَّهِ وَالْيَوْمِ الْآخِرِ ذَلِكَُمْ أَزْكَى لَكُمْ وَأَطْهَرُ وَاللَّهُ يَعْلَمُ وَأَنْتُمْ لَا تَعْلَمُونَ ﴿٢٣٣﴾

وَالْوَالِدَاتُ يُرْضِعْنَ أَوْلَادَهُنَّ حَوْلَيْنِ كَامِلَيْنِ لِمَنْ أَرَادَ أَنْ يُنْفِقَ الرِّضَاعَةَ وَعَلَى الْمَوْلُودِ لَهُ رِزْقُهُنَّ وَكِسْوَتُهُنَّ بِالْمَعْرُوفِ لَا تُكَلِّفُ نَفْسٌ إِلَّا رِزْقَهَا وَالْوَالِدُ لِأَبْوَالِدِهِمَا وَالْمَوْلُودُ لَهُ يَوْلَايَةٌ وَعَلَى الْوَارِثِ مِثْلُ ذَلِكَ فَإِنْ أَرَادَا فِصَالًا عَنْ تَرَاضٍ مِنْهُمَا وَتَشَاوُرٍ فَلَا جُنَاحَ عَلَيْهِمَا وَإِنْ أَرَدْتُمْ أَنْ تَسْرِضُوا أَوْلَادَكُمْ فَلَا جُنَاحَ عَلَيْكُمْ إِذَا اسْتَأْذَنْتُمْ مِنْهُمَا

232-1) 선지자 무함마드 시절에 “무으갈 이븐 야샤르”는 그의 여동생을 한 무슬림 청년에게 결혼시켰다. 얼마의 기간이 지난후 그 청년은 부인과 별거하였다. 기다리는 법정기간이 지났다. 그런데 두 사람은 다시 서로 사랑하게 되어 그 남자는 재결합을 원했다. 이때 “무으갈”이 그 남자에게 말하길, “나쁜 사람아! 내가 자네를 존경하고 사랑하여 자네에게 여동생을 결혼시켰는데 자네는 별거를 했던 말인가! 내가 맹세하던대로 절대로 자네에게 여동생을 돌려보내지 않겠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남자는 그녀를 필요로 하고 그녀도 역시 남편을 필요로 함을 아시고 계셨으므로, (아내와 이혼을 하고 합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의해 합당한 조건하에 그녀들이 전 남편과 재혼하고자 한다면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되나니...)라고 계시를 내리자 이 말씀을 들은 “무으갈”은 “주여! 들었나이다. 그리고 순종하나이다”라고 말하고 그를 불러 재혼을 시켰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134).

233-1) 2년동안 자녀를 양육 할 어머니의 의무

동의를 얻을 것이니 이는 당사자에게 최악이 아니라 너희가 유모에게 너희의 자녀를 양육할 경우도 정당한 사례만 지불하였다면 너희에게 아무런 최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너희는 알라

234. 남편이 죽어 과부를 남길때 그 과부는 사개월 십일을 기다려야 하노라¹⁾ 만약 법정기간에 이르렀을때 과부가 자신들을 위해서 행하는 것에는 죄가 없나니 하나님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235. 과부 여성과 약혼을 하거나 마음에 뜻을 두는 것은 죄가 아니거늘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마음에 새기고 있음을 알고 계심이라 그러나 기다리는 법정기간 동안에 비밀이 약혼을 해서는 안되며 그 법정기간이 끝날 때까지 결혼을 해서도 아니 되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나니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은 관용과 은혜로 충만하심이라

236. 여성과 동침하기전 또는 여성에게 지침금을 결정하기 전에는 이혼을 하여도 최악이 아니나 그녀들에게 합당한 선물을 하라 부유한 자는 부유한대로 가난한 자

بِالْمَعْرُوفِ وَأَقْبَلِ اللَّهُ وَأَعْلَمُوا أَنَّ اللَّهَ بِمَا تَعْمَلُونَ بَصِيرٌ ﴿٢٣٤﴾

وَالَّذِينَ يَتَّبِعُونَ مِنْكُمْ ذُرِّيَّتَهُمْ إِنْ كَانُوا آبَاءَكُمْ بِأَنْفُسِهِمْ أَرْبَعَةَ أَشْهُرٍ وَعَشْرًا فَإِذَا بَلَغُوا أَجَلَهمْ فَلَا جُنَاحَ عَلَيْكُمْ فِيمَا تَعْمَلُونَ فِي أَنْفُسِهِمْ بِالْمَعْرُوفِ وَاللَّهُ بِمَا تَعْمَلُونَ خَبِيرٌ ﴿٢٣٥﴾

وَلَا جُنَاحَ عَلَيْكُمْ فِيمَا عَزَمْتُمْ بِهِ مِنْ خُطْبَةِ النِّسَاءِ أَوْ أَنْتُمْ فِي أَنْفُسِكُمْ عَلِمَ اللَّهُ أَنَّكُمْ سَتَذُرُّوهُنَّ وَلَكِنْ لَا تَأْوِيْنَهُنَّ سِرًّا أَلَّا أَنْ تَقُولُوا فَوَ لَمَعْرُوفًا وَلَا تَعْرُومُوا عِدَّةَ النِّكَاحِ حَتَّى يَبْلُغَ الْكِتَابُ أَجَلَهُ وَأَعْلَمُوا أَنَّ اللَّهَ يَعْلَمُ مَا فِي أَنْفُسِكُمْ فَاحْذَرُوهُ وَأَعْلَمُوا أَنَّ اللَّهَ عَفُوٌّ رَحِيمٌ ﴿٢٣٦﴾

لَا جُنَاحَ عَلَيْكُمْ إِنْ طَلَقْتُمْ النِّسَاءَ مَا لَمْ تَمْسُوهُنَّ أَوْ تَفْرِضُوا لَهُنَّ فَرِيضَةً مِمَّا مَتَّعُوهُنَّ عَلَى التُّبُوعِ قَدْرَهُ وَعَلَى الْمُقْتَرِ قَدْرَهُ مِمَّا عَلَا بِالْمَعْرُوفِ حَقًّا عَلَى الْمُحْسِنِينَ ﴿٢٣٦﴾

234-1) 이혼을 한 여성은 3개월의 법정기간을 기다려야 하나(2장 228절), 남편이 사망하여 홀로된 과부는 4달 10일의 법정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과부가 이혼한 여성보다 10일을 더 많이 기다리는 이유는
 첫째, 남편과의 사이에 임신의 여부를 알아야 하고
 둘째, 남편이 사망함으로써 오는 부인의 슬픔과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며,
 셋째, 남편이 남긴 유언이나 재산 등의 관리를 위해서는 이혼을 한 여성보다는 시일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는 가난한 대로 자기의 능력에 따르되 합당한 선물은 의로운 자들에 대한 의무라¹⁾

237. 만일 너희가 그녀들과 동침하지 아니하고 지참금을 결정한 후 이혼을 했다면 결정된 지참금의 절반을 지불해야 되거늘¹⁾ 그러나 여성이나 보호자가²⁾ 용서한다면 제외라 또한 그 용서는 정의에 가장 가까운 것이거늘 양자 사이에 서로가 관대 할 것을 잊지말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이라

238. 예배를 잘 지키고 중간에 예배를¹⁾ 지킬 것이며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라²⁾

239. 만일 적의 두려움이 있을 때는 선 자세에서 또는 승마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되 안전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르친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는 너희가 알지 못했던 것이니라

240. 너희들 중에 아내를 남기고 임종하는 자는 아내를 위해 유언을 하고¹⁾ 일년간 아내를 나가지 아니하고 부양을 받노라²⁾ 만일 그

وَأَنْ طَلَقْتُمْوهُنَّ مِنْ قَبْلِ أَنْ تَمْسُوهُنَّ وَقَدْ فَرَضْتُمْ لَهُنَّ فَرِيضَةً فَرْصَفْ مَا فَرَضْتُمْ إِلَّا أَنْ يُعْفُونَ أَوْ يُعْفُوا إِلَيْهِمْ بِبَيْدِهِ عَقْدَةَ الْبَيْكَاثِ وَأَنْ تَعْفُوا أَقْرَبُ لِلتَّقْوَىٰ وَ لَاتَسْأُوا الْفَضْلَ بَيْنَكُمْ إِنَّ اللَّهَ بِمَا تَعْمَلُونَ بَصِيرٌ ﴿٢٣٧﴾

حَافِظُوا عَلَى الصَّلَوَاتِ وَالصَّلَاةِ الْوُسْطَىٰ وَقُومُوا لِلَّهِ خَشْيَةً ﴿٢٣٨﴾

فَإِنْ خِفْتُمْ فَرَجَلًا أَوْ كَبَاءً فَأِدَّابِئْتُمْ فَاذْكُرُوا اللَّهَ كَمَا عَلَّمَكُمْ مَا لَمْ تَكُونُوا تَعْلَمُونَ ﴿٢٣٩﴾

وَالَّذِينَ يَتَّقُونَ مِنكُمْ وَيَدْرُونَ أَرْوَاجًا وَصِيَّةً لِأَرْوَاجِهِمْ مَتَاعًا إِلَى الْحَوْلِ غَيْرَ إِخْرَاجٍ فَإِنْ خَرَجْنَ

236-1) “안사-리” 출신의 한 남자가 “하니파” 자손가운데 한 여성과 아직 지참금도 지불하지 않고 결혼한 후 그녀와 동침하기전 이혼 하였다. 이에(여성과 동침하기전 또는 여성에게 지참금을 결정하기 전에는 이혼을 하여도 죄악이 아니거늘...)라고 말씀이 계시된 것으로 전하여지고 있다(타파씨르 알푸르투비 202/3).

237-1) 동침 하기전 이혼이므로 약속된 지참금(마흐르)의 절반을 지불하는 것이 남성의 의무다.
2) 동침하기 전의 여성과 그 여성의 보호자

238-1) 아스르 예배
2) 사람이 가장 게을리 하기 쉬운 예배시간이 “아스르” 시간이며 또한 이 “아스르” 예배시간에는 천사들이 예배를 지켜보는 시간이므로 예배에 게을리 하지 말라는 교훈이다.

240-1) 임종하기 전에 유언을 하고
2) 초기 이슬람에서는 남편이 사망한 부인은 가정에서 1년을 기다렸으나 후에 4개월 10일로 되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140).

녀들이 스스로 떠나거나 또는 스스로를 위해 도덕에 어긋나지 않는 일을 한다 해도 죄악이 아니거늘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241. 이혼한 여성들에게도 능력에 따라 부양금을 주어야 하거늘 이것은 의로운 신앙인들의 의무라

242. 이와같이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말씀을 밝히셨나니 너희는 이해할 것이라

243. 수천이나 되면서 죽음이 두려워 그들의 집을 떠난 이들을 보지 아니했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교하라 그리하면 다시 소생케 하리라¹⁾ 하셨노라 실로 하나님은 인류에 은혜를 주시나 많은 백성이 감사할 줄 모르더라

244. 하나님의 길에서 성전하라¹⁾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

245. 하나님을 위해 대부¹⁾하여 준 그에게 수십 배의 보상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궁핍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니 너희는 그분에게로 귀의 하니라

246. 모세 이후 이스라엘 자손들의 얘기가 그대에게 이르지 아니

فَلَا جُنَاحَ عَلَيْكُمْ فِي مَا فَعَلْتُمْ فِي أَنْفُسِهِنَّ مِنْ مَعْرُوفٍ
وَاللَّهُ عَزِيزٌ حَكِيمٌ ﴿٢٤١﴾

وَالْمَطْلُوقَاتِ مِمَّا عَرِفْنَ حَقَّ عَلَى الْمُتَّقِينَ ﴿٢٤٢﴾

كَذَلِكَ بَيَّنَّ اللَّهُ لَكُمْ آيَاتِهِ لَعَلَّكُمْ تَعْقِلُونَ ﴿٢٤٣﴾

أَلَمْ تَرَ إِلَى الَّذِينَ خَرَجُوا مِنْ دِيَارِهِمْ وَهُمْ أُلُوفٌ حَذَّاءُمُوتًا
فَقَالَ لَهُمْ اللَّهُ مُوتُوا ثُمَّ أَحْيَاهُمْ إِنَّ اللَّهَ لَذُو فَضْلٍ عَلَى
النَّاسِ وَلَكِنَّ أَكْثَر النَّاسِ لَا يَشْكُرُونَ ﴿٢٤٤﴾

وَقَاتِلُوا فِي سَبِيلِ اللَّهِ وَعِلْمُوا أَنَّ اللَّهَ سَمِيعٌ عَلِيمٌ ﴿٢٤٥﴾

مَنْ ذَا الَّذِي يُقْرِضُ اللَّهَ قَرْضًا حَسَنًا فَيُضْعِفُهُ لَهُ أضعافًا
كَبِيرَةً وَاللَّهُ يَقْبِضُ وَيَبْطِئُ وَإِلَيْهِ تُرْجَعُونَ ﴿٢٤٦﴾

أَلَمْ تَرَ إِلَى الْمَلَائِكَةِ مِنْ بَنِي إِسْرَائِيلَ مِنْ بَعْدِ مُوسَى إِذْ

243-1)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성전하라 호소했을 때 그들은 죽음이 두려워 도주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8일 동안 그들의 생명을 앗아갔다가 다시 그들의 예언자 “자즈킬”을 보내어 그들을 소생케 한후 100년을 평화롭게 살았다고 전하여지고 있으며, “이브누 카씨르”는 후사병이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즉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하나님의 계시로 해석된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142).

244-1) 하나님의 적인 불신자들에게 대항하여 투쟁하라.

245-1) 하나님 사업을 위해 마치는 재산

했느냐 그때 그들은 예언자에게¹⁾ 우리에게 한분의 통치자를 보내 주소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길에서 적에 대항하여 성전하리라 하더라 예언자 가로되 성전하라는 명령을 받을 때 너희는 성전하지 아니하려 했더라 그들이 말하길 우리의 가정과 가족으로부터 추방된 우리가 왜 성전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성전을 명령 받았을 때는 도주하고 그들 가운데 소수만 남았더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알고 계시노라

247. 그들의 예언자가 그들에게 말하더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사울을 왕으로 보냈노라 그들이 말하길 우리가 그보다 탁월한데 그가 우리의 왕이 되어 어떻게 우리를 통치한단 말이요 그에게는 재산도 넉넉하지 못하오 그분이¹⁾ 이르되 너희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으니 그에게 풍만한 지혜와 신체를 주셨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권능을 주시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248. 또 그들의 예언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의 권능의 한 예증으로 너희에게 계약의 상자가 오니¹⁾ 그 안에는 너희 주님으로부터의

قَالُوا الَّذِي لَهُمْ اِبْعَثْ لَنَا مَلِكًا نُقَاتِلَ فِي سَبِيلِ اللَّهِ قَالَ
هَلْ عَسَيْتُمْ اِنْ كُتِبَ عَلَيْكُمُ الْقِتَالُ اَلَا تَقَاتِلُوْا قَالُوا
وَالَّذِي اَلْقَيْنَا فِي سَبِيلِ اللَّهِ وَقَدْ اُخْرِجْنَا مِنْ
دِيَارِنَا وَاٰبَاتِنَا فَمَا كُنَّا كُنَّا نَكْتُمُ عَلَيْهِمُ الْقِيَالَ تَوَلَّوْا اِلَّا قَلِيْلًا
مِّنْهُمْ وَاللَّهُ عَلِيْمٌ بِالظَّٰلِمِيْنَ ۝

وَقَالَ لَهُمْ رَبُّهُمْ اِنَّ اللَّهَ قَدْ اِبْعَثَ لَكُمْ طَالُوتًا مَلِكًا
قَالُوا اِنَّا يَكُوْنُ لَهُ الْمُلْكُ عَلَيْنَا وَنَحْنُ اَحَقُّ بِالْمُلْكِ
مِنْهُ وَلَمْ يُوْتِ سَعَةً مِنَ الْمَالِ قَالَ اِنَّ اللَّهَ اَصْطَفٰهُ
عَلَيْكُمْ وَاَزَادَ لَهٗ بَسْطَةً فِي الْعِلْمِ وَالْجِسْمِ وَاللَّهُ يُؤْتِي
مُلْكًا مَّن يَشَاءُ وَاللَّهُ وَاَسِعٌ عَلِيْمٌ ۝

وَقَالَ لَهُمْ رَبُّهُمْ اِنَّ اِيَةَ مَلِكَةٍ اَنْ يَّاتِيَكُمْ الْكَاوُثُ فِيْهِ
سِكِّينَةٌ مِنْ رَبِّكُمْ وَبَيْتَةٌ مِّمَّا تَرَكَ اَلْ مُوسَىٰ وَاَلْ هَارُونَ

246-1) 모세와 아론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요르단을 건너 팔레스타인에 정착하였다. 그는 그곳에서 25년을 통치하였고, 그 뒤 320년 동안은 메디안족과 아미리크족과 팔레스타인 부족에 의해 여러 차례의 고난과 수난을 당하였다. 또한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부터 공동사회의 혼란과 분열과 부패는 계속되어 그의 백성들은 아론의 혈통인 사무엘 예언자로 하여금 한 통치자를 임명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247-1) 그들의 예언자

248-1) "타-부뜨" : 하나님의 증언과 십계명이 새겨진 석판과 함께 모세와 아론의 성물이 들어있는 순금무늬가 새겨진 5ft×3ft×3ft 크기의 아카시아 나무상자(출애굽기 xxv. 10-22),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남겨진 성물의 재산으로써 초기 사무엘 통치기간중에 적에게 잃었다가 그것을 다시 찾아 어느 시골에 20년을 간직 한 후 왕권이 확립되면서 다시 그것을 수도로 옮김으로써 단결과 전능의 한 예증이 되었다.

평안과 모세의 가문과 아론의 가문이 남긴 천사들이 운반한 성물이 예증으로 있더라 너희가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될 때 너희들을 위한 상징이 그 안에 있을 것이라

249. 사울이 군대를 지휘하여 나가며 이르길 하나님이 강에서¹⁾ 너희를 시험하사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맛보지 아니한 자만이 나와 함께 동행하리라 그러나 한줌의 물을 뜨는 것은 제외라 그런데 소수를 제외한 무리가 그것을 마셔 버리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강을 건널때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 함께하니 그들이 말하길 오늘 우리는 골리앗과 그의 군대에 대항할 힘이 없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리라 확신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때 소수가 대부대를 정복한 적이 있지 않더뇨 하나님은 인내한 자와 항상 함께 하시니라

250. 그들이 골리앗과 그의 군대에 대항하여 진격 했을 때 그들은 기도하였나니¹⁾ 주여 저희들에게 인내를 주시고 거점을 확보하여 주시며 불신자들로부터 승리케하여 주소서 라고 기도하니

251. 하나님의 의지로 그들을 패배시키고 다윗은 골리앗을 살해했

تَحْمِلُهُ الْمَلَائِكَةُ إِنَّ فِي ذَلِكَ لَآيَةً لِّكُلِّ كَوْمٍ كُنْتُمْ مُؤْمِنِينَ ﴿٢٤٩﴾

فَلَمَّا قَضَىٰ طَالُوتُ بِالنَّجْوَىٰ قَالَ إِنَّ اللَّهَ مُبْتَلِيكُمْ بِنَهَرٍ ۚ فَمَنْ شَرِبَ مِنْهُ فَلَيْسَ مِنِّي وَمَنْ لَمْ يَطْعَمْهُ فَإِنَّهُ مِنِّي إِلَّا مَنِ اغْتَرَفَ غُرْفَةً بِيَدِهِ ۚ فَشَرِبُوا مِنْهُ إِلَّا قَلِيلًا مِّنْهُمْ فَلَمَّا جَاوَزَا هُوَ الَّذِي بَرَأَ السَّمَاوَاتِ قَالَ آلُ الْكَافَّةِ لَأَنَّا لَبِينَا الْيَوْمَ بِصَالِحٍ وَنَجْوَاهُ ۖ قَالَ الَّذِينَ يَتَّبِعُونَ آلَهُمْ سَأَلْتُمُو اللَّهَ فَكَيْفَ يُكْرِمُكُم مِّنْ فَتْنَةٍ قَلِيلَةً ۖ عَلِمْتُمْ فِتْنَةً كَثِيرَةً لَّا يَأْذِنُ اللَّهُ وَاللَّهُ مَعَ الصَّابِرِينَ ﴿٢٥٠﴾

وَلَمَّا بَرَزُوا لِجَالُوتَ وَجُنُودِهِ قَالُوا رَبَّنَا أَخْرِجْنَا مِنْ هَٰذَا ۖ إِنَّا وَجَدْنَاهَا مُدًّا مُّخْتَلِفًا ۖ وَسَكَنَتْ فِيهَا آفَاقُ الْمَلَائِكَةِ ۖ وَالَّذِينَ آمَنُوا وَعَصَوْا وَعَمِلُوا الصَّالِحَاتِ لَا يَأْذِنُ اللَّهُ وَاللَّهُ مَعَ الصَّابِرِينَ ﴿٢٥١﴾

فَهَزَمُوهُم بِإِذْنِ اللَّهِ وَقَتَلَ دَاوُدُ جَالُوتَ وَانْتَصَرَ لَهُ اللَّهُ الْمَلِكُ

249-1) 사울이 80,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요르단과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리파 강을 건널면서 그들의 신앙과 지도자를 따르는 그들의 자세에 대한 시험을 받게 되었다. 사막의 열사로 갈 중에 지친 군인들에게 물을 마시지 말라 하였으나 76,000명이 그 명령을 어기고 물을 마시므로써 불신자가 되어 적이 되었으나 명령에 따라 물을 마시지 아니한 군인은 비록 4,000명에 불과했으나 승리는 믿음을 갖고 명령에 따른 소수에게로 돌아갔다(사프와트 타파씨 르. 제1권. p.144).

250-1) 다음 3가지를 하나님께 기원 하였다. 첫째는 인내하도록 하여주시고, 둘째는 전쟁에서 거점을 확보하는 것과, 셋째는 불신자들을 제압하여 승리하도록 하여 달라는 기도였다.

으며¹⁾ 하나님은 그에게 권능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더라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토록하여 인류를 보호하지 아니했다면 이 지구는 멸망했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한 은혜를 베푸는 분이시라

252. 이것이 그대에게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는 선지자들 중의 한 사람이라

253. 이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달리하였나니 어떤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¹⁾ 계시고 다른 선지자들은 지휘를 올렸나니²⁾ 하나님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에게 예증³⁾을 주어 그를 성령⁴⁾으로 강하게 하였노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그들에게 말씀이 있을 후 다음 세대들은 서로 싸우지 아니했으리라 그런데 그들은 달리했으니 그들 가운데는 믿는자와 믿지 아니한 자가 있었노라 또 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그들은 싸우지 아니했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주관하시니라⁵⁾

وَالْحِكْمَةَ وَعَلَّمَهُ مِمَّا يَشَاءُ وَلَوْلَا دَفْعُ اللَّهِ النَّاسَ بَعْضَهُمْ بِبَعْضٍ لَفَسَدَتِ الْأَرْضُ وَلَكِنَّ اللَّهَ ذُو فَضْلٍ عَلَى الْعَالَمِينَ ﴿٢٥٢﴾

تِلْكَ آيَاتُ اللَّهِ تَنْزَّلُهَا عَلَيْكَ يَا مُحَمَّدُ وَأَنَّكَ لَبِئْسَ الْمُرْسَلِينَ ﴿٢٥٣﴾

تِلْكَ الرُّسُلُ فَضَّلْنَا بَعْضَهُمْ عَلَى بَعْضٍ وَمِنْهُمْ مَن كَلَّمَ اللَّهُ وَرَفَعَ بَعْضَهُمْ ذُرِّيَّتَ وَإِنَّا عِيسَى ابْنَ مَرْيَمَ الْبَيْتِ وَإِنَّا لَهُ بَرُّوهُ الْعَالَمِينَ وَلَوْ شَاءَ اللَّهُ مَا أَفْتَلْنَا الَّذِينَ مِنْ بَعْدِهِمْ مِنْ بَعْدِ مَا جَاءَهُمُ الْبَيِّنَاتُ وَلَكِنْ اخْتَلَفُوا فَيَهُمُّ مَن أَمِنَ وَمِنْهُمْ مَن كَفَرَ وَلَوْ شَاءَ اللَّهُ مَا أَفْتَلَوْا وَلَكِنَّ اللَّهَ يَفْعَلُ مَا يُرِيدُ ﴿٢٥٤﴾

251-1) 다윗은 어떤 무기나 투구로 무장을 해본적도 없었고 양을 치는데도 경험이 미숙한 한 청년이었다. 그는 이스라엘 진영에도 알려지지 아니한 무명의 청년이었으므로 거인 골리앗은 다윗을 비웃고 조롱할 뿐이었다. 게다가 다윗의 큰 형까지도 양을 잘 돌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윗을 꾸짖고 나무랄뿐... 그러나 다윗은 외형적으로 초라한 목동으로 밖에 보이지 아니했으나 그의 깊은 신앙은 유대인의 강적이었던 팔레스타인 상대자로써 대적하는 지혜를 준 것이다. 사울 왕이 그의 투구와 무기를 다윗에게 주었을 때 그는 그 투구와 무기를 다루어 본 경험이 없었으므로 그것을 거절하고 강가에서 5개의 조약돌을 주어 목동의 기술인 돌팔매질로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렸다. 그리고는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 그것으로 골리앗을 살해하였다.

253-1) 모세에게 어떤 중개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구름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

- 2) 선지자 무함마드는 최후의 선지자로써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게 되었으며
- 3) 여러가지 기적, 즉 죽은자를 살리고 나병환자를 치료하고 장님으로 하여금 앞을 보게 하였으며,
- 4) 성령이라 함은 가브리엘 천사를 가르킴

254. 믿는자들이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 양식으로 자선을 베풀라 심판의 날이 오면 그때는 거래도 우정도 중재도 효용이 없나니 이를 배반한자 진실로 우매한 자들이라

255.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나니 그분은 살아계시사 영원하시며 모든 것을 주권 하시도다 졸음도 잠도 그분을 엄습하지 못하도다¹⁾ 천지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니 그분의 허락없이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중재할 수 있으랴 그분은 그들의 안중과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그들은 그분에 대하여 그분이 허락한 것 외에는 그분의 지식을 아무것도 모르니라²⁾ 권자가 천지위에 펼쳐져 있어 그것을 보호하는데 피곤하지 아니하시니 그분은 가장 위에 계시며 장엄하시노라

256. 종교에는 강요가 없나니¹⁾ 진리는 암흑속으로부터 구별 되니라 사탄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أَنْفِقُوا مِمَّا رَزَقْنَاكُمْ مِنْ قَبْلِ أَنْ يَأْتِيَنِي يَوْمَ لَا بَدْعُ فِيهِ وَلَا خَلَّةٌ وَلَا شَفَاعَةٌ وَالْكَافِرُونَ هُمُ الظَّالِمُونَ ﴿٢٥٤﴾

اللَّهُ لَا إِلَهَ إِلَّا هُوَ الْحَيُّ الْقَيُّومُ لَا تَأْخُذُهُ سِنَّةٌ وَلَا نَوْمٌ لَهُ مَا فِي السَّمَوَاتِ وَمَا فِي الْأَرْضِ مَنْ ذَا الَّذِي يَشْفَعُ عِنْدَهُ إِلَّا بِإِذْنِهِ يَعْلَمُ مَا بَيْنَ أَيْدِيهِمْ وَمَا خَلْفَهُمْ وَلَا يُحِيطُونَ بِشَيْءٍ مِنْ عِلْمِهِ إِلَّا بِمَا شَاءَ وَسِعَ كُرْسِيُّهُ السَّمَوَاتِ وَالْأَرْضَ وَلَا يَئُودُهُ حِفْظُهُمَا وَهُوَ الْعَلِيُّ الْعَظِيمُ ﴿٢٥٥﴾

لَا كَرْهَ فِي الدِّينِ قَدْ تَبَيَّنَ الرُّشْدُ مِنَ الْغَيِّ فَمَنْ يَكْفُرْ بِالطَّاغُوتِ وَيُؤْمِنْ بِاللَّهِ فَقَدِ اسْتَمْسَكَ بِالْعُرْوَةِ

5) 하나님이 구름속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니 모세는 황야에서 40년동안 그의 백성을 인도하였고, 다윗에게는 돌팔매로써 대적을 무찌르는 은혜를 주었다. 또한 마리아의 아들 예수에게는 죽은자를 살게하고, 장님이 눈을 뜨게하고 문둥병 환자를 낫게 하는 등 많은 기적을 낳는 지혜를 주었으며, 선지자 무함마드에게는 최후의 예언자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최후의 복음서 꾸란을 주어 인류를 구원하는 등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에게 서로 다른 형태의 은혜를 베풀었다.

255-1) 하나님은 잠을자지 아니하며 눈한번 깜박할 필요조차도 없으신 분이라고 하디스는 전하고 있다.

2) 예언자들을 통하여 가르쳐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며,

256-1) 한 안사리 가족 가운데 두 아들을 가진 남자가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때는 무함마드가 선지자로 오기 이전이다. 이들 두 사람은 장사를 하기 위해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메디나로 왔는데 이때 두 아들의 아버지께서 두 아들에게 말하길 "너희가 이슬람에 귀의 할 때까지 너희를 그대로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자(종교에는 강요가 없나니 진리는 암흑속으로부터 구별되노라...)라고 계시가 있었다.

신앙은 강요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강요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이슬람의 원리다. 그 이유는 첫째 종교란 자기 신앙과 의지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강제에 의한 유인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둘째 진리와 죄악은 하나님에 의해 분명히 선별되며, 셋째는 하나님의 보호가 영속하므로 하나님은 항상 인간을 암흑에서 광명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자 끊기지 않는 단단한 동아줄을
잡았노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
으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257. 하나님은 신앙인의 보호자
이사 그들을 암흑에서 광명으로
인도하시노라 그러나 신앙이 없는
자들의 보호자는 사탄들이니 이들
은 광명에서 암흑으로 유혹하매
그들은 불지옥의 주인이 되어 그
곳에서 영주하노라

258.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능을
주었다 해서 그의 주님에 관하여
아브라함과 논쟁을 하려 하느뇨
이때 아브라함 가로되 나의 주님
은 생명을 부여하고 또 생명을 앗
아가는 분이시라 하니 이에 그가
대답하길 내가 생명을 부여하고
생명을 빼앗아 가노라 이에 아브
라함 가로되 그분은 동에서 태양
을 뜨게하시니 당신은 서쪽에서
태양이 뜨도록 하라 하니 믿음을
불신한 그들은 당황하였노라 이처
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인도
하지 아니 하시니라¹⁾

259. 황폐한 촌락을 지나는 사람
을 비유하여 말하길¹⁾ 어떻게 하나
님께서 이 마을을 소생시킬 것인
가²⁾ 라고 물으니 백년전 하나님께
서 그를 죽게하여 그를 다시 소생

الْوَشْيَ لَا انْفِصَامَ لَهَا وَاللَّهُ سَمِيعٌ عَلِيمٌ ﴿٢٥٧﴾

اللَّهُ وَلِيُّ الَّذِينَ آمَنُوا يُخْرِجُهُم مِّنَ الظُّلُمَاتِ إِلَى النُّورِ
وَالَّذِينَ كَفَرُوا أَوْلِيَهُمُ الطَّاغُوتُ يُخْرِجُونَهُم مِّنَ النُّورِ
إِلَى الظُّلُمَاتِ أُولَئِكَ أَصْحَابُ النَّارِ هُمْ فِيهَا خَالِدُونَ ﴿٢٥٨﴾

أَلَمْ تَرَ إِلَى الَّذِي حَاجَبْنَا بِرُحْمِ فِي رَبِّهِ أَنْ أَتَاهُ اللَّهُ
الْمَلَكُ إِذْ قَالَ إِبْرَاهِيمَ رَبِّ الْقَدِي يَجِي وَبَيَّتْ قَالَ آتَا
أُنْجِي وَأُمَيْتْ قَالَ إِبْرَاهِيمُ فَإِنَّ اللَّهَ يَأْتِي بِالسَّمْسِ مِنَ
الشَّرْقِ قَاتٍ يَأْتِي مِنَ الْمَغْرِبِ قَبَّهَتْ الْقَدِي كَفَرَ وَاللَّهُ
لَا يَهْدِي الْقَوْمَ الظَّالِمِينَ ﴿٢٥٩﴾

أَوْ كَالَّذِي مَرَّ عَلَى قَرْيَةٍ وَهِيَ خَاوِيَةٌ عَلَى عُرُوسِهَا
قَالَ أَنَّى يُجِي هَذَا وَاللَّهُ بَعْدَ مَوْتِهَا قَامَتَهُ اللَّهُ
مِائَةً عَامٍ ثُمَّ بَعَثَهُ قَالَ كَمْ لَبِثْتُ قَالَ لَبِثْتُ يَوْمًا

258-1) 가나안의 자손 니모로데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하여 아브라함에게 논쟁 하였다. 그 당시 국가가 번성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부터 창조주의 존재와 모든 만물의 창조성을 부인하려 함으로써 수세기를 지난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을 부정하려는 불신자들이 있음을 예시하고 있다.

259-1) 벽들이 넘어지고 지붕들이 무너져 황폐된 예루살렘의 한 촌락을 당나귀를 타고 지나던 아지-르의 질문으로 이 사건은 유대인 예언자였던 에스겔의 말라버린 뼈의 환상의 얘기거나 (에스겔 xxxvii, 1-10), 기원전 5세기의 히브리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아가 황폐된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그 도시를 다시 재건하는 얘기거나(느헤미아, i, 12-20), 유대인의 바빌론 유수 이후 페르시아왕이 예루살렘으로 보낸 우케이르 또는 에스라에 관한 얘기라고도 전하여지고 있다.

2) 어떻게 그리고 언제 소생시킬 것인가?

시킨 후 주님께서 너는 얼마동안 체류했느냐 라고 물으니 그 사람 말하되 하루나 반낮쯤 체류하였습니 다 라고 대답하니 주님께서 이르시길³⁾ 너는 백년을 체류하였노라 하시며 너의 음식과 음료수를 바로 보라 이는 변하지 아니하였으며 너의 당나귀를 보아라 이렇듯 하나님은 그대로 하여금 인류를 위한 예증으로 하였노라 뼈들을 보라 어떻게 그 뼈들을 맞추어 그 위에 살을 부합시켰는가 라고 말씀 하시자 그는 말하길 실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 하시니 다 라고 하더라

260. 이때 아브라함이 강구하길 주여 죽은 자를 어떻게 소생시키나이까 이에 가로되 네가 믿지 못하겠단 말이뇨 아닙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가로되 네 마리의 새를 잡아 그들을 길들여 각 언덕위에 두고서 그들을 다시 불러보라 그 새들이 서둘러 너에게로 오리라 그리하여 권능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 을 알게 되리라¹⁾

261. 하나님을 위해 재물을 바치는 사람은 한 알의 밀알과 같으니 이 낱알이 일곱 개의 이삭으로 번식할 것이요 매 이삭마다 백여개의 낱알로 풍성하게하여 주리라 하나님은 그 분이 원하는 자에게 몇배의 보상을 주나니 하나님은

أَوْبَعَضَ يَوْمٍ قَالَ بَلْ كَذَّبْتَ مَائَةً عَلَيْهِ فَأَنْظُرْ إِلَى طَعَامِكَ وَشَرَابِكَ لَمْ يَتَسَنَّهْ وَأَنْظُرْ إِلَى حِمَارِكَ وَيَنْجَعَلُكَ آيَةً لِلنَّاسِ وَأَنْظُرْ إِلَى الْعِظَامِ كَيْفَ نُنشِزُهَا ثُمَّ نَكْسُوهَا الْعِظَامَ فَلَمَّا تَبَيَّنَ لَهُ قَالَ أَعْلَمُ أَنَّ اللَّهَ عَلَى كُلِّ شَيْءٍ قَدِيرٌ ﴿٥٥﴾

وَإِذْ قَالَ إِبْرَاهِيمُ رَبِّ أَرِنِي كَيْفَ تُحْيِي الْمَوْتَى قَالَ أُولَئِكَ نَفْسٌ مَاتَ بَلْ وَلَكِنْ لِيُقَاسِبَ قَلْبِي قَالَ فَخَذْنَا مِنْهُ مِنَ الطَّيْرِ قَصْرًا مِمَّا يَبْتَغِي خَلْقًا يَدْعُونَ يَدْعُوكَ سَعْيًا وَأَعْلَمُ أَنَّ اللَّهَ عَزِيزٌ حَكِيمٌ ﴿٥٦﴾

مَثَلُ الَّذِينَ يُنْفِقُونَ أَمْوَالَهُمْ فِي سَبِيلِ اللَّهِ كَمَثَلِ حَبَّةٍ أَنْبَتَتْ سَبْعَ سَنَابِلٍ فِي كُلِّ سَنَابِلَةٍ مِائَةٌ حَبَّةٌ وَاللَّهُ يُضِعِفُ لِمَنْ يَشَاءُ وَاللَّهُ وَاسِعٌ عَلِيمٌ ﴿٥٧﴾

3)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길.

260-1) 다른 학자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다. : 새들을 죽여 여러 갈래로 자른 다음 머리만 손에 쥐고 있으면서 다른 낱개며 쌀, 살등 다른 부분은 뒤섞어 각각 다른 산꼭대기에 갖다 두고서 하나님이 명령하였듯이 그것들을 부르면 낱개는 날아와 낱개가 되고, 피는 피가되고, 살은 살이 되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백성들이 지켜봄으로써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소생시키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이브누 까씨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¹⁾

262. 하나님을 위해서 재산을 바치되 그 재산을 뒤따르지 아니하며 모욕을 가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보상이 있으며 그들에게는 두려움도 슬픔도 없노라

263. 겸손한 말 한마디와 관용은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회사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며 관대하시니라

264. 믿음을 가진 자들이여 네가 바치는 회사를 상기시키거나 모욕하여 이를 헛되게 하지 말라 이는 곧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사를 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하나님과 심판의 날을 믿지 않는 것과 같노라 또한 그들은 매끄러운 돌과 같나니 그 위에 한줌의 흙이 덮여 있으나 폭우가 내려 그것을 쓸어가 버리고 별거벗은 돌만 남은 것과 다를바 없도다 그리하여 그들이 얻은 것은 아무런 효용이 없으니 하나님은 믿음을 배반한 자들을 인도하지 않으시니라

265.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 재산을 바치고 그들의 마음이 강직함은¹⁾ 기름진 파수원과 같아 많은 비가 내려 굵절의 수확을 가져오도다 만일 비가 내리지 않으면

الَّذِينَ يَنْفِقُونَ أَمْوَالَهُمْ فِي سَبِيلِ اللَّهِ ثُمَّ لَا يُتَّبِعُونَ
مَا أَنْفَقُوا مَتًّا وَلَا أَدَىٰ لَهُمْ أَجْرُهُمْ عِنْدَ رَبِّهِمْ
وَلَا هُمْ يَحْزَنُونَ ﴿٢٦٢﴾

قَوْلَ مَعْرُوفٍ وَمَعْرِفًا خَيْرٌ مِنْ صَدَقَةٍ يَتَّبِعَهَا آدَىٰ
وَاللَّهُ عَزِيزٌ حَلِيمٌ ﴿٢٦٣﴾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لَا تَبْطُلُوا صَدَقَاتِكُمْ بِالْمَنِّ وَالْأَذَىٰ
كَالَّذِي يُنْفِقُ مَالَهُ رِثَاءَ النَّاسِ وَلَا يُؤْمِنُ بِاللَّهِ
وَالْيَوْمِ الْآخِرِ فَمَا كَانَ كَمَثَلِ صَعْوَانَ عَلَيْهِ تَرَابٌ فَأَصَابَهُ
وَابِنُ تَرْتُفَةً صَلَدَ الْآرِيدُونَ عَلَىٰ سَيْمِ مِمَّا كَسَبُوا وَاللَّهُ
لَكَافٍ بِلِقَوْمِ الْكَافِرِينَ ﴿٢٦٤﴾

وَمَثَلِ الَّذِينَ يَنْفِقُونَ أَمْوَالَهُمْ ابْتِغَاءَ مَرْضَاتِ اللَّهِ
وَتَشْيِئَاتِ مَنْ أَنفُسَهُمْ كَمَثَلِ جَذْوَةِ رِبْوَةٍ أَصَابَهَا وَابِلٌ
فَأَتَتْ أَكْطَافَهَا وَضَعْفَتِمْ فَإِن كَرِهْتَ صَبَّهَا وَابِلٌ كَطَلٍّ وَاللَّهُ

261-1) 이것은 타복전제시 “우스만 이븐 아판”과 “압두 라흐만 이븐 아우프”에 관하여 계시된 말 씀이다. 그곳에서 우스만은 1,000 마리의 낙타와 1,000 디나르의 돈을 선지자 양손에 놓아 드렸다. 그러자 선지자께서 거기에 입을 맞추시고 갈씀하시길, “우스만이 행한 것은 오늘 이후 우스만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으리”라고 하셨다. 또 “압두 라흐만 이븐 아우프”가 선 지자에게 4,000 디르함을 가지고 와서 말하길, “선지자여, 저에게 8,000디르함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저와 저의 가족을 위해서 4,000 디르함을 제가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4,000 디르함은 저의 주님을 위해서 빌려 주었습니다”라고 하자, 선지자께서는 그에게 말하길, “네가 가진것과 내가 빌려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있을지이다”라고 말씀하시 지(하나님의 길을 위해 재물을 희사한자는 한알의 밀알과 같으니...)라고 계시가 내려졌다 (사프와트 타파서르, 제1권 p.154).

265-1) 자선을 베풀 때 그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을 때.

면 가벼운 습기로 흠족시켜 주시니 하나님은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것도 알고 계시니라

266. 너희 가운데 종려나무와 포도나무가 있고 그 밑으로 물이 흐르며 모든 종류의 열매가 열리는 과수원을 갖고 있으나 인생이 늙고 자식들이 어려 돌보지 못해 강한 폭풍우속에 휩싸여 유향불의 밥이 될 희망자가 있겠느냐 그처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징후를 밝혀 너희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니라¹⁾

267. 믿는자들이여 너희가 얻는 좋은 양식 가운데서¹⁾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땅으로부터 거두워 준 것 가운데 좋은 것들로 회사를 할 것이며 너희가 눈을 감지 않고는 받지 아니하는 나쁜 것들로 회사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풍요하시고 모든 찬미를 홀로 받으심을 알라

268. 사탄은 빈곤으로써 너희를 위협하여 악을 행하도록 명령하나 하나님은 너희에게 용서와 은혜를 약속하였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269. 그분은 그분의 뜻이 있는 자에게 그리고 지혜를 받을 자에게 지혜를 주시니라 진실로 은혜가 넘쳐 흐르도다 그러나 이성을 가진 자 외에는 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도다

بِمَا نَعْمَلُونَ بِصَيْرٍ ﴿٢٦٦﴾

يَوْمَذُحَّاكُمُ أَنْ تَكُونَ لَهُ جَبَّةٌ مِمَّنْ تَحْتَلِي وَاعْتَابَ
تَجْرِي مِنْ تَحْتِهَا الْأَنْهَارُ لَهُ فِيهَا مِنْ كُلِّ الثَّمَرَاتِ
وَاصَابَهُ الْكِبَرُ وَلَهُ ذُرِّيَةٌ ضَعُفَاءٌ فَأَصَابَهَا
إِعْصَابٌ مِنْهُ تَارًا فَاحْتَرَفَتْ كَذَلِكَ يَسِيرُ اللَّهُ
لَكُمْ الْآيَاتِ لَعَلَّكُمْ تَتَفَكَّرُونَ ﴿٢٦٧﴾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اتَّقُوا مِنْ طَيِّبَاتِ مَا كَسَبْتُمْ وَمِمَّا
أَخْرَجْنَا لَكُمْ مِنَ الْأَرْضِ وَلَا تَتَّبِعُوا الْهَيْبَةَ مِنْهُ
تَنْفِقُونَ وَلَسْتُمْ بِأَخِيَارٍ إِلَّا أَنْ تَعْبُدُوا
فِيهِ وَعَلَّمُوا أَنَّ اللَّهَ عَزِيزٌ حَمِيدٌ ﴿٢٦٨﴾

الشَّيْطَانُ يَعِدُكُمُ الْفَقْرَ وَيَأْمُرُكُمْ بِالْفَحْشَاءِ وَاللَّهُ
يَعِدُكُمُ الْمَغْفِرَةَ مِنْهُ وَفَضْلًا وَاللَّهُ وَاسِعٌ عَلِيمٌ ﴿٢٦٩﴾

يُؤْتِي الْحِكْمَةَ مَنْ يَشَاءُ وَمَنْ يُؤْتَ الْحِكْمَةَ فَقَدْ
أُوتِيَ خَيْرًا كَثِيرًا وَمَا يَذَّكَّرُ إِلَّا الْأُولِيَاءُ ﴿٢٧٠﴾

266-1) 제2장 216, 264, 265절에 이어 4번째로 언급되는 자선으로 자선은 일생을 통하여 해야 할 의무임을 제시하고 있다.

267-1) 허락된 좋은 양식 가운데서 해야 한다는 뜻으로 다음 3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좋고 유용하고 가치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고, 둘째는 정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셋째는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에서 생산된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270. 너희가 자선으로 베풀었던 모든 것과 너희가 결심한 신앙심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 우매한 자 도움을 받을 길이 없도다

271. 너희가 자선을 공개하는 것도 좋으나¹⁾ 남몰래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선이 더 나오니라 이는 너희의 죄를 속죄하여 주나니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272.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가 아니거늘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시니라¹⁾ 너희가 베푸는 선행은 너희 스스로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선이라 너희가 베푸는 선행은 너희에게 충만하여 돌아오나니 너희는 불공평한 대접을 받지 않을 것이라

273. 자선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있으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의 여행에 제한을 받아 일을 찾아 지상에서 움직일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있거늘 지각이 없는 사람은 그들이¹⁾ 궁핍하지 아니하다 생각하나 이는 그들의 겸손 때문이라 너희들은 표적으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은 집요한 구걸을 하지 않노

وَمَا أَنْفَعْتُمْ مِنْ نَفَقَةٍ أَوْ نَذَرْتُمْ مِنْ شَيْءٍ
فَإِنَّ اللَّهَ يَعْلَمُهُ وَاللَّهُ بِظَالِمِيْنَ مِنْ أَنْصَارِهِ ۝۲۷۰

إِنْ تَبَدَّلَ الْوَعْدَ لَبِ فَبِعَيْنَاهُمْ وَإِنْ تَخَفْتُمْ
وَتَوْتُوا الْفُقَرَاءَ فَهُوَ خَيْرٌ لَكُمْ وَيَكْفُرْ عَنْكُمْ
مِنْ سَيِّئَاتِكُمْ وَاللَّهُ بِمَا تَعْمَلُونَ خَبِيرٌ ۝۲۷۱

لَيْسَ عَلَيْكَ هُدَاهُمْ وَلَكِنَّ اللَّهَ يَهْدِي مَنْ يَشَاءُ
وَمَا تُنْفِقُوا مِنْ خَيْرٍ فَلَا تُنْفِكُمْ وَمَا تُنْفِقُونَ
إِلَّا لِنَفْسِكُمْ وَسَجَّهَ اللَّهُ وَمَا تُنْفِقُوا مِنْ خَيْرٍ يُوَفِّ
بِهِ عَلَيْكُمْ وَأَنْتُمْ لَا تظَلُمُونَ ۝۲۷۲

لِلْفُقَرَاءِ الَّذِينَ أُحْصِرُوا فِي سَبِيلِ اللَّهِ
لَا يَسْتَطِيعُونَ صَرْفًا فِي الْأَرْضِ يَحْسَبُهُمُ الْجَاهِلُ
أَغْنِيَاءَ مِنَ الْعَفْفِ تَعْرِفُهُمْ بِسِيمَاهُمْ لَا يَسْأَلُونَ
النَّاسَ الْإِحْقَاقًا وَمَا تُنْفِقُوا مِنْ خَيْرٍ فَإِنَّ اللَّهَ
بِهِ عَلِيمٌ ۝۲۷۳

271-1) 오른 손으로 자선을 베풀되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했듯이 남몰래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이 더 나오나 베푸는 자선을 공개하여도 된다. 이때는 그 사람의 자선을 공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선을 베풀 수 있는 동기를 일깨워 줄 경우이다.

272-1) “싸이드 이븐 주베이르”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전하여지고 있다. 무슬림들은 “아흘루 디마”(기독교인 및 유대인들)에게 자선(사다카)을 베풀었다. 그런데 무슬림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자 선지자께서(너희들의 종교를 가진 형제들 외에는 자선을 베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자, (무함마드여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가 아니거늘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하시니라..., 라고 계시가 내려짐으로써 이 슬랍 종교외의 타종교인에게도 자선(사다카)이 허락되고 있다(2장 256절 해설참조).

273-1) 궁핍한 이들

라 너희가 베푸는 어떤 자선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라²⁾

274. 언제나 밤낮으로 알게 모르게 자선을 베푸는 자들에게는 주님으로부터 보상이 있으며 두려움도 슬픔도 없노라

275. 고리대금을 취하는 자들은 악마가 스치므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어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며 말하길 장사는 고리대금과 같도다라고 그들은 말하나 하나님께서 장사는 허락 하였으며 고리대금은 금지하셨노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리업을 단념한 자는 지난 그의 과거가 용서될 것이며 그의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하니라 그러나 고리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 그들은 불 지옥의 동반자로서 그곳에서 영주하리라¹⁾

276. 하나님은 이자의 폭리로부터 모든 축복을 앗아가 자선의 행위에 더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모든 불신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니라

277.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며

الَّذِينَ يُنْفِقُونَ أَمْوَالَهُمْ بِالسَّيْلِ وَاللَّهَارِ سِرًّا
وَعَلَانِيَةً فَلَهُمْ أَجْرُهُمْ عِنْدَ رَبِّهِمْ وَلَا خَوْفٌ
عَلَيْهِمْ وَلَا هُمْ حَزُونَ ﴿٢٧٤﴾

الَّذِينَ يَأْكُلُونَ الرِّبَا أَلَّا يَقُومُونَ إِلَّا كَمَا يَقُومُ الَّذِي
يَتَخَبَّطُهُ الشَّيْطَانُ مِنَ الْمَسِّ ذَلِكَ بِأَنَّهُمْ قَالُوا إِنَّمَا الْبَيْعُ
مِثْلُ الرِّبَا وَأَحَلَّ اللَّهُ الْبَيْعَ وَحَرَّمَ الرِّبَا فَمَنْ جَاءَهُ
مَوْعِظَةٌ مِنْ رَبِّهِ فَاتَّبَعَهَا فَلَهُ مَا سَلَفَ وَأَمْرُهُ إِلَى اللَّهِ
وَمَنْ عَادَ فَأُولَئِكَ أَصْحَابُ النَّارِ هُمْ فِيهَا خَالِدُونَ ﴿٢٧٥﴾

يَسَّرَ اللَّهُ الرِّبَا وَيُسِّرُ الْمَصَدَقَاتِ وَاللَّهُ كُحِّبَ كُلَّ
كَقَارِ أَشْيُو ﴿٢٧٦﴾

إِنَّ الَّذِينَ آمَنُوا وَعَمِلُوا الصَّالِحَاتِ وَأَقَامُوا الصَّلَاةَ

2) 소위 분별없는 자선은 오히려 악을 초래함으로써 비난을 받는다(2장 262절 참조). 진실한 자선이란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어져야 한다고 본질은 묘사하고 있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란 성전으로 전쟁에 나가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며 전달하는 사람, 진실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등이 다른 부류의 사람들보다 필요하지만 그들의 결손과 진실과 신앙 때문에 이집 저집 문전구걸을 하지 않는다. 도움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자신이 베풀어질 때 진실한 자선임을 묘사하고 있다.

275-1) 리바는 중역이란 언어적 뜻에서 고리대금, 부당이익 또는 사기성 상행위 등으로 풀이된다. 대출된 원금 외에 그 이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이자 행위도 포함된다. "리바"란 불법적인 거래 행위이다. 고리대금이 초래하는 빈익빈 부익부를 이슬람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고리대금 행위는 나태한 습성을 조장해 주며 이기적인 자기 본위로 서로 잡히게 됨으로써 공동사회의 윤리와 도덕의 질서를 문란케 하기 때문이다.(민는자들이여, 2배 3배의 이자를 탐내지 않으며,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진실로 번성하리라 : 3장 130절) 이 계시는 이슬람이 오기 이전에는 아랍인들의 관례에 따라 복식 이자로 행하여 지고 있을 때 계시된 것으로 사려된다.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보상이 있으며 그들에게는 두려움도 슬픔도 없노라

278. 믿는자들이여 하나님을 공경하라 만일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추구하는 이자를 포기하라

279. 만일 너희가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선지자께서 너희에게 경고할 것이며 너희가 회개한다면 원금을 가질 것이니 부정을 저지르지 말 것이며 부정을 당해서도 아니 되니라¹⁾

280. 채무자가 어려운 환경에 있다면 형편이 나아질때까지 지불을 연기하여 줄 것이며 더욱 좋은 것은 너희가 알고 있다면 그 부채를 자선으로 베풀어 주는 것이라

281. 하나님 곁으로 돌아갈 어느 날을 두려워 하라 모든 인간은 자기가 얻은 것으로 대가를 받게 되나니 어느 누구도 부정하게 대접받지 않을 것이라

282. 믿는자들이여 일정한 기간 채무를 계약할 때는 서식으로 기록하되¹⁾ 양자 사이에 서기로 하여금

وَأَتُوا الزَّكَاةَ لَهُمْ أَجْرُهُمْ عِنْدَ رَبِّهِمْ وَلَا خَوْفٌ عَلَيْهِمْ وَلَا هُمْ يَحْزَنُونَ ﴿٢٧٨﴾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اتَّقُوا اللَّهَ وَذَرُوا مَا بَقِيَ مِنَ الرِّبَا إِن كُنْتُمْ مُؤْمِنِينَ ﴿٢٧٩﴾

قَدْ كَانَ لَكُمْ فِتْنَةٌ أَفَآذْتُمْ بِهِ حَرْبًا مِّنَ اللَّهِ وَرَسُولِهِ وَإِن تُبْتِغُوا فَتَنُكُمْ بِرُءُوسِ أَمْوَالِكُمْ لَا تَنْظِلُونَهَا وَلَا تَنْظِلُونَهَا ﴿٢٨٠﴾

وَإِن كَانَ ذُو عُسْرَةٍ فَنَظِرَةٌ إِلَىٰ مَسَرَّةٍ وَأَن تَصَدَّقُوا خَيْرٌ لَّكُمْ إِن كُنْتُمْ تَعْلَمُونَ ﴿٢٨١﴾

وَأَعِدُّوا أَيُّومًا تُرْجَعُونَ فِيهَا إِلَى اللَّهِ تُدْعَوُكُمُ كُلُّ نَفْسٍ بِمَا كَسَبَتْ وَهُمْ لَا يُظْلَمُونَ ﴿٢٨٢﴾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إِذَا تَمَّ إِلَيْكُمْ بِدِينٍ إِلَىٰ أَجَلٍ مُّسَمًّى

279-1) "아루 이븐 싸끼프"는 "무기라"에게 이자를 받기로 하고 빌려준 대여금이 있었다.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 "싸끼프"가 원금과 이자를 받으려 하자 : (믿음을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을 공경하라, 만일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추구하는 이자를 포기할 지어다. 만일 너희가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선지자께서 너희에게 경고할 것이며, 너희가 회개한다면 자본금을 가질 것이니 부정을 저지르지 말 것이며, 부정을 당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라고 계시가 내렸다. 이때 "싸끼프"는 : "우리는 하나님과 선지자에게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서 단 원금만을 받았다(알바흐르 알무히트 337/2).

282-1) 이 절은 다음 2가지로 요약된다. 후불거래 및 선불과 후상품인도에 관한 조항과 현금지불 및 현상인도시의 거래에 관하여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후불거래 및 선불과 후상품인도란 예를 들어, 상품은 즉시 인도하고 지불은 일정한 시기, 일정한 장소에서 장래에 지불하거나 또는 현금은 현재 지불하고 상품인도는 일정한 시기, 일정한 장소에서 장래에 이

공정하게 쓰게 하라 하나님의 가르침이시니 기록하는 것을 거절해서는 안되며²⁾ 또한 채무를 진 사람으로 하여금 받아쓰게 할 것이며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할 것이며 두려움을 소홀히 하지 말라 그 당사자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허약하여 받아 쓸 능력이 없을 경우는 그의 후원자로 하여금 공정하게 쓰게 하라 그리고 두 남자의 증인을 세울 것이며 두 남자가 없을 경우는 한 남자와 두 여자를 선택하여 증인으로 세우라³⁾ 한 증인이 잘못 한다면 다른 증인이 기억을 할 것이기 때문이라 증인으로 요청이 있을 때는 거절하지 말라 그 계약의 기간 또는 규모가 적던 크던 기록하는 것을 꺼려하지 말라 그것이야 말로 하나님 앞에서 보다 옳은 것이며 증거로써 보다 적합하며 너희간의 의심을 없애는 보다 편리한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증석에서 거래하는 경우라면 기록을 하지 않아도 죄가 아니라 상업적 거래인때는 증인이 있어야 하며 증인이나 서기에서도 손해를 주지 말라 만일 손상이 있다면 너희에게 사악

فَأَشْرِكُوا بِعِبَادَةِ اللَّهِ الَّتِي لَا تَأْتِي بِبُرْهَانٍ وَلَا يَكْفِي عِندَ اللَّهِ شَهِيدًا إِلَّا اثنَانِ زَكَاةً أَحْسَنُ مِنْهُ وَشَاهِدًا بِمَا كَانُوا يَكْفُرُونَ
 وَإِن كُنْتُمْ عَلَىٰ شَكٍّ مِنْ حِسَابِ الْبَقَالِ فَاصْطَبِرُوا وَلَا تَأْتُوا بِبُرْهَانٍ وَلَا يَكْفِي عِندَ اللَّهِ شَهِيدًا إِلَّا اثنَانِ زَكَاةً أَحْسَنُ مِنْهُ وَشَاهِدًا بِمَا كَانُوا يَكْفُرُونَ
 وَإِن كُنْتُمْ عَلَىٰ شَكٍّ مِنْ حِسَابِ الْبَقَالِ فَاصْطَبِرُوا وَلَا تَأْتُوا بِبُرْهَانٍ وَلَا يَكْفِي عِندَ اللَّهِ شَهِيدًا إِلَّا اثنَانِ زَكَاةً أَحْسَنُ مِنْهُ وَشَاهِدًا بِمَا كَانُوا يَكْفُرُونَ
 وَإِن كُنْتُمْ عَلَىٰ شَكٍّ مِنْ حِسَابِ الْبَقَالِ فَاصْطَبِرُوا وَلَا تَأْتُوا بِبُرْهَانٍ وَلَا يَكْفِي عِندَ اللَّهِ شَهِيدًا إِلَّا اثنَانِ زَكَاةً أَحْسَنُ مِنْهُ وَشَاهِدًا بِمَا كَانُوا يَكْفُرُونَ
 وَإِن كُنْتُمْ عَلَىٰ شَكٍّ مِنْ حِسَابِ الْبَقَالِ فَاصْطَبِرُوا وَلَا تَأْتُوا بِبُرْهَانٍ وَلَا يَكْفِي عِندَ اللَّهِ شَهِيدًا إِلَّا اثنَانِ زَكَاةً أَحْسَنُ مِنْهُ وَشَاهِدًا بِمَا كَانُوا يَكْفُرُونَ
 وَإِن كُنْتُمْ عَلَىٰ شَكٍّ مِنْ حِسَابِ الْبَقَالِ فَاصْطَبِرُوا وَلَا تَأْتُوا بِبُرْهَانٍ وَلَا يَكْفِي عِندَ اللَّهِ شَهِيدًا إِلَّا اثنَانِ زَكَاةً أَحْسَنُ مِنْهُ وَشَاهِدًا بِمَا كَانُوا يَكْفُرُونَ
 وَإِن كُنْتُمْ عَلَىٰ شَكٍّ مِنْ حِسَابِ الْبَقَالِ فَاصْطَبِرُوا وَلَا تَأْتُوا بِبُرْهَانٍ وَلَا يَكْفِي عِندَ اللَّهِ شَهِيدًا إِلَّا اثنَانِ زَكَاةً أَحْسَنُ مِنْهُ وَشَاهِدًا بِمَا كَانُوا يَكْفُرُونَ
 وَإِن كُنْتُمْ عَلَىٰ شَكٍّ مِنْ حِسَابِ الْبَقَالِ فَاصْطَبِرُوا وَلَا تَأْتُوا بِبُرْهَانٍ وَلَا يَكْفِي عِندَ اللَّهِ شَهِيدًا إِلَّا اثنَانِ زَكَاةً أَحْسَنُ مِنْهُ وَشَاهِدًا بِمَا كَانُوا يَكْفُرُونَ
 وَإِن كُنْتُمْ عَلَىٰ شَكٍّ مِنْ حِسَابِ الْبَقَالِ فَاصْطَبِرُوا وَلَا تَأْتُوا بِبُرْهَانٍ وَلَا يَكْفِي عِندَ اللَّهِ شَهِيدًا إِلَّا اثنَانِ زَكَاةً أَحْسَنُ مِنْهُ وَشَاهِدًا بِمَا كَانُوا يَكْفُرُونَ
 وَإِن كُنْتُمْ عَلَىٰ شَكٍّ مِنْ حِسَابِ الْبَقَالِ فَاصْطَبِرُوا وَلَا تَأْتُوا بِبُرْهَانٍ وَلَا يَكْفِي عِندَ اللَّهِ شَهِيدًا إِلَّا اثنَانِ زَكَاةً أَحْسَنُ مِنْهُ وَشَاهِدًا بِمَا كَانُوا يَكْفُرُونَ

-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서류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술되고 있다.
- 그러나 법적 의무는 아니다. "...그것은 증거로써 보다 적합하며 너희들간의 의심을 없애는데 보다 편리한 것이니라"라고 계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현금 지불 현장인도의 경우는 서류계약의 증거는 필요치 아니하나 구두증인은 보다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 2) 기록하는 서기는 그 문체에 있어서 신탁을 받은자로서 도덕적 책임을 지고 양 당사자의 공정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기록하여야 하며, 그 기술의 능은 창조주가 주신 선물로써 하나님께 봉사하는 정신으로 임하여야 한다. 특히 문맹인이나 거래 관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서기들의 임무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 3) 증인으로써 2명의 남자가 없을 경우 남자 1명과 여자 2명을 증인으로 세우는 이유는, 남성은 사물이나 사건을 판별할 때 감성보다는 이성에 의존하나 여성일 경우는 이성보다는 감성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어린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엄마는 그 애의 잘못을 아버지로부터 벌을 피하게하여 줌으로써 사람을 배풀어 준다. 이로 미루어 보아서도 어떤 사건을 진술할 때 감정이 예민한 여성일 경우는 그 환경 및 질문자의 질문을 받을 때 감성에 치우치게 된다. 그러나 2명의 여성을 증인으로 세울때는 한 여성이 감성에 치우쳐 그릇되게 진술했을 때 또 한 여성은 여성의 본성, 시기 및 질투로 인하여 허위로 진술하는 것을 부정하려는 심리가 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함이 있도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
니라

283. 너희가 여행중이거나 서기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신탁을 하면 족하니라 서로가 신뢰 할 수 있다면 수탁자로 하여금 그의 위탁을 처리하도록 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하라 그리고 증언을 감추지 말라 그것은 숨기는 자마다 그의 마음은¹⁾ 죄악으로 얼룩지게 되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행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284. 하늘과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으며 너희가 심중에 있는 것을 밝히든 혹은 숨기던 하나님은 너희들을 계산하시니라 하나님 의지에 의하여 관용을 베풀고 또한 그분의 뜻에 의하여 벌을 내리시니 하나님은 진실로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심이라

285. 선지자는 주님이 계시한 것을 믿으며 또한 믿음 가진 자 그러하도다¹⁾ 그들 각자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서들과 선지자들을 믿으며 우리는 선지자들을 차별²⁾하지 않도다 우리는 청취하고 복종하며 당신의 용서를 구하나이다 주여 여정의 종말을 당신에게로 돌리나이다

286.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탱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짐을 주지 않으시도다¹⁾ 인간은 그가 행한 선의

وَإِنْ كُنْتُمْ عَلَىٰ سَفَرٍ أَوْ عَادَ بِكُمْ هَدْيُ الْبَقَرِ فَهُنَّ مَقْبُوضَةٌ إِنْ
أَمِنَ بَعْضُكُمْ بَعْضًا فَلْيُؤَدِّ الَّذِي أُؤْتِيَ أَمَانَتَهُ وَلْيَتَّقِ اللَّهَ
رَبَّهُ وَلَا تَكْتُمُوا الشَّهَادَةَ وَمَنْ يَكْتُمْهَا فَإِنَّهُ أِثْمٌ قَلْبُهُ
وَاللَّهُ بِمَا تَعْمَلُونَ عَلِيمٌ ﴿٢٨٣﴾

اللَّهُ مَا فِي السَّمٰوٰتِ وَمَا فِي الْاَرْضِ وَإِنْ تُبَدُّوْا مَا فِي
اَنْفُسِكُمْ اَوْ تَخْفَوْا بِحٰسِبِكُمْ بِهِ اللّٰهُ يَغْفِرُ لِمَنْ
يَشَاءُ وَيُعَذِّبُ مَنْ يَشَاءُ وَاللّٰهُ عَلٰى كُلِّ شَيْءٍ قَدِيْرٌ ﴿٢٨٤﴾

اَمِّنَ الرَّسُوْلُ بِمَا اَنْزَلَ اِلَيْهِ مِنْ رَبِّهِ وَالْمُؤْمِنُوْنَ
كُلٌّ اَمِنَ بِاللّٰهِ وَمَلٰئِكَتِهِ وَرُسُلِهِ ۗ لَا تَفَرِّقُوْا
بَيْنَ اَحَدٍ مِنْ رُسُلِهِ ۗ وَقَالُوْا سَمِعْنَا وَاَطَعْنَا
غُفْرٰنَكَ رَبَّنَا وَاِلَيْكَ الْمَصِيْرُ ﴿٢٨٥﴾

لَا يَكْتُمُ اللّٰهُ نَفْسًا اِلَّا وُسْعَهَا لَهَا مَا كَسَبَتْ وَعَلَيْهَا مَا
اَكْتَسَبَتْ رَبَّنَا لَا تُؤَاخِذْنَا اِنْ كُنَّا لَمْسِيْنَ اَوْ اَخْطَاةً رَبَّنَا

283-1) 그것이 건전할 때 전체가 건전하며 그것이 병들 때 전체가 병드나니 그것은 바로 마음이라.

285-1)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무함마드를 확증하고 마찬가지로 믿는 신도들도 그렇게 믿고 확증하도록.

2)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구별하여 믿음.

보상을 받으며 그가 저지른 악의 대가를 받으리라 주여 망각을 했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저희를 벌주지 마옵소서 주여 저희 선조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던 것처럼 저희가 짐을 짊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소서 주여 저희가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짐만 주소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저희에게 축복을 주소서 당신은 저희의 보호자이시니 불신자들로부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²⁾

وَلَا تَحِبُّوا عَلَيْنَا إِصْرًا كَمَا حَبَلْتُمْ عَلَى الَّذِينَ مِنْ قَبْلِنَا أَزْبَانًا وَلَا نُحِبُّنَا مَا لَمْ يَكُنْ لَنَا عَلَيْهِمْ وَلَا عَفْوَ عَلَيْنَا
وَأَعِظُوكُنَا بِرَحْمَتِكَ أَنْتَ مَوْلَانَا فَانصُرْنَا عَلَى الْقَوْمِ الْكَافِرِينَ ﴿٢٨٦﴾

286-1)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그 인간이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요구하지 아니하며 그 인간의 능력이 할 수 있는 것 까지만 요구하고 있다.

2) 파티하 장과 바카라 마지막 장 286절을 밤에 읽을 때 그것은 그것으로 보호를 받는다고 이브누 마쓰우드가 전하고 있으며, 부카리는 파티하와 바카라 마지막 286 절은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베풀지 아니하고 선지자 무함마드에게만 베풀 2개의 빛이라고 전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167).